

#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2 권 5 호

1980. 10

特輯：教育放送의 效率的 運營問題

- 放送의 教育的 機能과 意義
- 情報 社會化 속의 TV 機能
- 人間形成과 教育放送
- 教育放送에의 期待
- 外國의 教育放送 現況
- K E D I의 教育放送 計劃과 展望

韓國教育開發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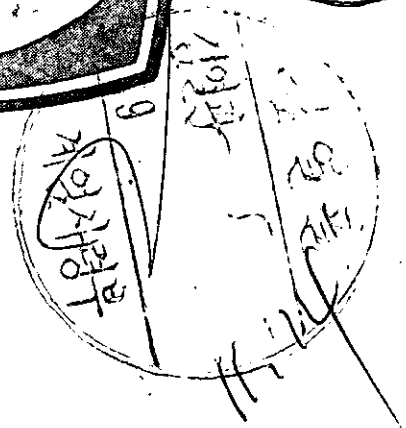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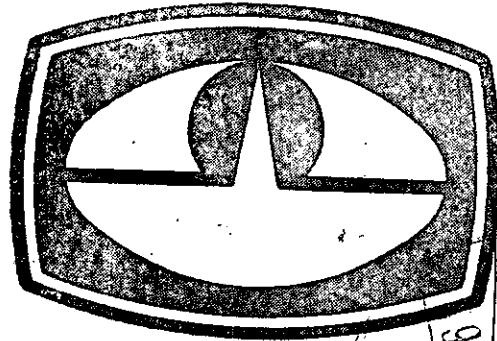
8호  
통권

# 교육개발

제 2권 5호

<통권 8호>

1980



한국교육개발원

# 敬慕하는 永淵兄께

이 동 후  
 <경북 안동군 풍북국교 교감>

떠나온지 二月餘가 너무나 欣然히 맞아주던  
 兄의 모습이 아직도 弟의 뇌리에 가득차 있군요.

故鄉에서 한 번 만나 故鄉의 濁酒를 한 잔 대  
 접하고자 몇 번이나 五美洞을 찾아 갔으나 번번  
 이 못다녔어요. 너무나 事業에 바쁜 兄이기에  
 이른 새벽에 떠나기 때문이었지요.

보리(宿麥)를 숙맥 또는 콩과·보리(菽麥)를  
 숙맥이라고 하는데 우리 鄉土에서는 바보를 숙  
 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곡식 중 가꾸기도 어  
 설프고 마련하기도 어설프며 또 먹은 뒤에도 뱃  
 일이 시원치 않거 때문에 걸보리를 두고 숙맥이  
 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兄은 自身을 숙맥으로  
 비유하던 말을 나 혼자 있을 때면 가끔 되새겨  
 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숙맥인지도 모  
 르겠다는 생각에 잠잠 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自己 것이 아깝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리오만 너무나 故鄉이 좋고 淸生스럽  
 게 다녔던 내 모교라고 크더 큰 짐덩이를 두마  
 더 말도없이 糶拾할 할 때 나는 兄의 얼굴을 훑  
 어보고 정말 숙맥이라고 느꼈읍니다.

내가 兄을 알게 된 것은 豊北이라는 學校때문  
 이었고 이 故鄉의 大事業을 始作함으로써 兄의  
 人品을 알게 되었지요. 億이 넘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장래의 모교 어린이들과 지방을 위한 事業  
 을 하고 있는 兄은 神의 加護가 늘 있으리라고  
 믿고, 기필코 成功을 기대하는 당신의 마음처럼  
 그 사업이 너무나 崇高함에 弟도 寤寐間에 成功  
 을 빌고 있답니다.

兄의 아름다운 꿈이 익어갈 때, 우리 시골의  
 어린 새싹들도 웃음을 활짝 띄고 都市의 아이들  
 처럼 걱정없이 中學, 高等, 大學을 다니게 되겠  
 지요.

尊敬하는 兄!

나라는 모자람의 人間은 돈하고는 못사귀고  
 살아가는 職業이기에 學校에서도 經理問題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限定된 學校豫算에  
 진절머리를 느끼신 校長님의 간곡하신 命命(?)  
 에 못이겨 뜻에도 없는 學校살림을 맡고나니,  
 내 家庭生活과 같이 先生님들의 조그만 요구조  
 차도 망설이며 들어주어야 하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아래한 형편에 學校를 꿈의 동산으로 만들 環  
 境助成이란 생각자체가 무리하고 愚昧한 生覺이  
 었다고 믿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비오던 날 초라한 내 모습에  
 들어 메이시는 校長님을 學校에 남게 하시고 代  
 身 上京해서 兄을 만나기까지는 몸과 마음이 열  
 마나 무거웠는지요. 함께 간 親友는 그래도 나를  
 安心시키고 있었지만 서울계신 兄들의 친우, 本  
 校 同窓들이 거부할 한다면 學校에 무슨 일굴로  
 돌아오며 흠으러진 學校의 環境은 두고만 볼 수  
 없는 형편이 아니었겠어요. 매마침 몰아부친 商  
 街의 不景氣라는 찬바람 속에 모교돕기 운동이  
 란 말이 客地에서 生存競爭에 시달리는 사람들  
 머리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兄의 열  
 락 설득과 本校 同窓들의 熱誠에 이 동산을 말  
 끄히 단장한 大事業을 마무리 지우고나니 오만

就任辭	취임사.....	洪雄善/5
移任辭	이임사.....	李榮德/7
論 壇	밝은 展望 .....	朴俊熙/9
	社會敎育의 制度的 基盤.....	黃宗建/12
	韓國敎育發展을 爲하 提案.....	李圭泰/15
特 輯	敎育放送의 效率의 運營問題	
	放送의 敎育的 機能과 意義 .....	최종물/18
	情報社會化 속의 TV機能.....	元佑鉉/21
	人間形成과 敎育放送 .....	李康洙/24
	敎育放送에의 期待 .....	崔昌燮/27
	外國의 敎育放送 比較.....	洪起宣/32
	KEDI의 敎育放送 計劃과 展望.....	閔相根/36
	連 載	西獨의 入試制度 .....
研究報告	敎育課程 國際比較研究 .....	林在潤/45 姜善甫
敎育理論	Kelly의 私的 構念理論 .....	朴性洙/52
敎科敎育 시리즈	音樂科 敎育의 改善方向	
	音樂科 敎育課程의 改善方向.....	崔鐘珍/56
	音樂科 敎育의 改善方向.....	鄭世文/61
	音樂科 評價에 대한 改善點 .....	黃炳勳/64
敎育隨想	課外工夫 그 後에 있어야 할 일 .....	鄭元植/66
院內動靜	消息.....	/68

編輯委員

- 委員長 尹正一  
委員 南錫祐  
李大揆  
李延燮  
李定根  
張錫祐  
張彥孝  
(가나다順)



# 취 임 사



홍 응 선  
(본원 원장)

교육이 한 나라의 성장과 그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절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입니다. 더우기 80년대의 풍요로운 복지 사회의 건설은 교육 발전을 통하여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복지 사회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 본인이 한국 교육개발원의 원장직에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개발원은 지난 1972년 창설 이래, 우리 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연구·개발하고 교육 방송이라는 이원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교육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 있습니다.

교육 개발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부각됐던 재수생 문제를 비롯하여 과열과외 해소 및 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고, “교육 발전의 전망과 과제”의 연구와 장기 인력 수급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문교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장기 인력 수급과 대학 정원 정책의 수립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교부의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민 학교와 중·고교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과 교육·과정 연구의 수행으로 우리 나라 교육 과정 개발의 중추적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원이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정립한 새 교육 체제는 교사들의 수업 지도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개선을 가져와 학업 성취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 정신 기능의 개발에 공헌하고 지역간의 학력 격차를 감소시키는 등, 그 성과를 크게 나타냈으며, 목표 관리에 의한 학교 경영 체제를 개발하여 학교 경영을 효율화, 근대화함으로써 국민학교 교육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새 수업 체제의 교육 효과는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백과 사전으로 유명한 Britanica 사는 자매사의 창설 50주년을 맞아 본원을 세계적인 교육 혁신 연구 기관으로 선정하고, 동사가 수여하는 “교육혁신상”을 전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연구 기관이나 교육계 석학들을 골라서

수여하는 이 영예를 본원이 차지하게 된 데에는 교육 현장에서 새 수업 체제의 토착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교육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은 바가 크며 수상의 영예를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방송도 방송 매체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 현장을 활성화 하고, 모든 가정과 사회를 교실화함으로써 전인 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적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수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을 위한 라디오 학교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통신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KBS 방송망을 통하여 매일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국보위의 교육 정상화 조치에 따라 문교부 주관하에 수행하고 있는 TV고교 교육 방송은 본원이 방송 프로그램과 교재 편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KBS와 MBC의 2개 방송망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는 바 본격적인 교육 방송은 81년부터 실시될 방침입니다. 본원은 TV 고교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과 교재 편찬을 위하여 대학 교수, 문교부 연구관, 현장 교사, 매체 전문가 및 본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분과 위원회는 집필자와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제작 방향과 원고를 검토하는 등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TV 고교 교육 방송은 단순히 입학 시험에 대

비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기본 원리의 이해 및 문제 해결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당해 교육 과정 전체를 망라하여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방송 강의 후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 확인하기 위한 학습 보조 교재를 이 용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때는 교육 개발원에 대한 일부의 오해가 없지도 않았읍니다마는 최근에는 교육 정상화 방안 수립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였으며, 교육 과정 개발의 전담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학이나 다른 연구 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교육 정책이나 교육 기초에 관한 문제를 폭넓게 연구하고 있으며, 교육 방송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연구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0년대에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이 획기적인 교육 혁신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본원은 그러한 과업을 과감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원을 오늘의 교육 개발원으로 성장, 발전시킨 전임 이영덕 박사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평소 본원을 지켜보아 주시고 여러 모로 보살펴 주신 학계,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여러 어른들의 배전의 격려와 장 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 移任辭



李 榮 德  
(前 本 院 院 長)

小生은, 9月 19日字로 그 동안 몸담아 있던 韓國教育開發院長職을 떠나 서울大學校 教授職으로 復歸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機關創設의 過程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滿 8年 1個月間 솔한 試鍊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克服하고 辟한 所任을 大過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有能하고 誠實한 350餘 職員들의 獻身의 努力과 함께 各界各層의 諸賢들께서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북돋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國力이 本格的인 成長期에 들어섰던 70年代 初(72年 8月)에 創設되어, 새로운 教育秩序를 確立하고 우리 教育이 當面한 계반 問題를 合理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開發함으로써, 發展의 時代에 副應한 國民教育의 中興을 위해 꾸준히 努力해 왔습니다. 이러한 努力들은 韓國教育의 發展을 위해 조용하면서도 매우 重要한 業績을 남겼으며, 새 時代를 맞는 우리 社會에 계속으로 貢獻할 基盤을 構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教育開發院이 長期間에 걸쳐 心血을 기울여 왔던 “初·中學校 教育發展事業”(새 教育體制研

究)은, 教育一線의 지대한 關心 속에 거의 3000에 이르는 國民學校에 採擇되어 놀라운 變化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技術教育 및 人口教育의 領域에까지 幅을 넓혀 온 研究開發의 經驗을 바탕으로, 이제 教育開發院은 初·中等學校의 “教育課程 및 教科用 圖書 研究開發機關”으로 成長하였으며, 이미 中等學校의 一種圖書와 國民學校·中等學校의 教育課程 및 教科用圖書 開發 作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時代的 要請에 의하여 推進된 中·長期 教育計劃研究 및 人力需給 計劃研究, 再修生 對策研究, 教育財源 確保方案研究, 義務教育 年限延長研究 등과 함께, 教育發展史에 길이 記錄될 1980年の 過熱課外 對策에 관련된 一連의 研究는 文教政策의 樹立과 施行過程에 貴重한 資料를 投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의 心理的·社會的 基礎 등에 관련된 研究를 비롯하여, 國民精神教育·社會教育·教員教育 등의 領域에 걸쳐 推進된 幅넓은 基礎研究들은, 아직은 그 成熟期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評價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教育發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重要한 據點을 占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各種 研究의 效率的인 遂行을 돕고, 나아가 國內外 教育機關이나 研究者에게 까지 편의를 提供해 줄 教育情報資料센터도 제대로의 機能을 發揮할 날이 멀지 않았읍니다.

특히, 그 동안 教育開發院이 教育放送의 開局을 위해 바쳐 온 執念과 努力은 近代教育 百年史上 처음으로 教育專用 放送體制를 갖게 하는 事實을 보게 하였습니다. 未熟하나마, 지난 9月 1日부터 “高校 教育放送”으로 첫 出發을 본 教育放送은 來年 봄을 期해 本格的인 開局을 보게됨으로써 앞으로의 教育發展을 위한 값진 資産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教育開發院의 研究開發 力量은, 世界의 여러 專門家들로부터 아시아地域은 물론, 世界의 教育革新 네트워크에서 重要한 役割을 담당하는 水準에 있다는 過分한 評價를 받고 있는 바, 이 어찌 教育開發院 職員들만의 기쁨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따뜻한 聲援을 보내주시는 先輩, 同志, 諸賢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이요, 榮譽입니다. 이렇게 國際的 聲價를 높이고 있는 教育開發院의 研究開發 力量의 中樞를 이루고 있는 것은 機關發展 期間 동안 輩出한 30餘名の

博士學位 所持者와 그 밖의 多數의 專門要員들인데 이들은 앞으로 國民教育發展에 有益한 人材가 될 것입니다.

教育開發院의 이러한 成長은 이제까지의 實績보다는 앞으로의 可能性에서 그 意義를 찾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可能性으로서, 教育開發院이 이 나라 教育發展을 先導하고 世界教育發展에도 크게 奇與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先輩, 同志, 諸賢의 계속적인 支援이 더욱 必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小生은, 本來의 職인 서울大學校 教授로 復歸하여 그 동안 미루었던 學問研究와 教授에 精進할 것이온즉 倍前의 關心으로 指導鞭撻하여 주심은 물론, 私心없이 오로지 韓國教育發展을 위해 묵묵히 情熱을 쏟고 있는 350餘名の 韓國 教育開發院 職員들과 저의 後任으로 오신 洪雄善 新任 院長님에게 아낌없는 讚辭와 激勵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韓國教育開發院長 在任時에 보내주신 先輩, 同志, 諸位의 聲援에 거듭 感謝드리면서 우선 誌面을 通하여 人事말씀 드립니다. ◆



# 밝은 展望

朴 俊 熙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韓國政府가 樹立된 이후 그래도 오늘과 같이 教育의 來日이 밝게 비쳐보이는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이번에 새로 制定된 憲法을 보면 아주 滿足스럽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우선 歡迎을 할만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선 憲法中 教育에 關聯된 內容을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二九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그 保護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定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教育의 自主性·專門性 및 政治의 中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된다. ⑤ 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 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包含한 教育制度와 그 運營·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이와 같이 第二十九條에 六個項에 걸쳐 教育振興을 위한 條文을 마련한 것을 一瞥할 때에 從來 數回에 걸쳐서 憲法을 改正했을 때에 比하여 刮目할만한 進步的, 또는 進取的이며 同時に 意欲의이고 自信心에 充滿한 것으로 改善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느낌만으로도 당장 흐뭇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意味에서 그 主要한 內容을 希望的인 觀點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果然 憲法에 담겨진 精神과 意志를 充分히 表現할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나 다 같이 來日을 꿈꾸고 設計한다는 뜻에서 檢討해 보는 일이 결코 無意味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第一項의 內容을 보면 教育을 받을 수 있는 基本權과 아울러 均等하게 機會가 주어져야 한다는 現代 民主社會에서 가장 重要視해야

하고 先進國에서 이점을 위해서 最大 最善의 努力을 傾註하고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은 文章만으로는 至極히 簡單한 것 같지만 國家가 이미 모든 努力을 傾向해야 하고, 또 傾註하겠다는 굳은 意志를 表明한 것이라는 點에서 새삼 그 意味를 찾을 수가 있다. 설사 그것이 必要하다고 해도 國家의 意志가 確固하지 못하거나 그 實現에 있어서 財政, 施設 등 모든 關係與件이 뒤따르지 않으면 不可能하게 됨으로 敢히 이것을 明文으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것을 明文化하여 國民에게 希望을 가지게 하고 있음은 確實히 國民教育의 來日을 밝혀주는 것이라는 뜻에서 特別한 意味를 지니는 것이라는 點에 留意해야 할일이 아닐 수가 없다. 둘째로 關心을 끄는 것은 第二項으로 그 동안 初等教育만을 義務教育의 對象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滿足하지 않고 先進國 隊列에 實質的으로 끼어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教育도 해야 할 것을 뜻하는 것을 엿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將來에 적어도 中學校까지의 義務教育이라도 實施해야겠다는 國家의 意志를 暗示한 것이라는 點에서 早晚間 中學校까지의 義務教育, 즉 九個年間的 義務教育을 가까운 將來에 實施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 역시 至極히 밝은 展望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第三項은 이제까지의 憲法에서도 言及되어 온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는 것임으로 特記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특히 第四項은 文字 그대로 劃期的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한 가지 內容이 아니고 적어도 세 가지 內容을 담고 있으니 이것 역시 教育界에서 恒常 主張하고 渴望하던 것이라는 點에서 우리

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루 속히 明實히 實現되는 날이 올 것을 期待할 內容이다. 첫째, 教育의 自主性이 法律에 의해서 保障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政治的인 次元에서 혹은 제스처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主張하고 伸張되도록 하겠다고는 했으나 그것을 明文化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었다. 그러기 때문에 法律的인 保障이 되어 본 적이 없고 한낱 제스처의인 口號에 그치는 程度를 넘어 서지를 못했었다. 둘째로, 教育의 專門性 역시 法律에 의해서 保障하겠다는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法律로서 保障하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어느 누구도 侵犯하지도 않고 또 侵犯하려 들지도 않는 것이 常識인데 事實 우리는 지금까지도 非專門家들이 오히려 占領이나 하려는 듯이 대들고 있는 形便이라는 現實狀況에서 이것이 憲法으로 保障하겠다고 나선 것은 國家가 教育을 對하는 基本的인 立場을 바꾸려는, 그리하여 依當있어야 할 狀況에 놓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볼 때에 역시 劃期的인 것이며 두손들고 歡迎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다음 세째로 政治的인 中立性도 保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教育界의 오래 동안의 宿願이었지만 역시 政界나 社會가 冷淡하여 그 實現은 事實上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오늘 새 時代를 열면서 들어주기 어려운 이 教育界의 宿願 역시 들어 주겠다는 約束을 온 國民에게 해 주는 것이 되었으니 이 또한 快哉를 부르고 教育에 從事하는 當事者들은 물론 民主 福祉國家를 指向하고 來日의 主人公들로 하여금 짜들지 않고 비두려지지 않으며 타고난 저마다의 個性을 살리며 個人의 人生을 즐기면서 國家 共同體意識이 마음 속깊이 심어질 수 있는 마음가짐과 態度와 行動의 所有者로 만들어주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라고 볼 때에 이 어찌 來日이 밝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단 말인가.

다음으로 第五項은 그야말로 來日을 내다 보고 우리도 飛躍과 躍進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의 어려움을 깨끗이 잊은듯이 來日을 살피 보람있고 모두를 위하여 奉仕하고 協同하는 가운데 生의 뜻을 마음껏 즐기고 世上에 태어난 뜻을 삶을 통해서 實現하자는 뜻이 가득하고도

굳게 담겨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文章自體는 比較的 簡單하지만 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單純한 希望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다른 어느 나라의 憲法에서 이것을 이렇게 強力히 表示한 것을 아직 볼 수 없다는 點에서 이 역시 劃期的인 社會發展에의 意慾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른바 福祉社會의 實現을 主要한 目標로 삼고 있는 此際에 이것이 學論이 되고 教育專門家가 아닌 많은 審議委員과 받아들인 決定權者들, 그리고 이것을 雙手를 들어 歡迎한 모든 國民과 더불어 다 같이 自祝會라도 열어야 마땅한 發展的 象徴이라고 해서 좋을 것이다. 1965年 유엔이, 특히 이 問題를 學論하고 그 方向이 提示된 지 十五年이지만 특히 앞서고 있으면 自動的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몇몇 先進國을 除外하고는 하나의 유-토피아인양—이른바 教育專門家와 一部 社會思想 및 事業家들 사이에서만 마치 空念佛이라도 외우듯이 종종 學會나 세미나에서 主張하고 論議하던 것도 事實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태두리를 거의 벗어나지를 못하였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 機會를 契機로 이것을 다른 法도 아니고 憲法 속에, 그것도 強力히 表現하게 되었다는 것은 果然 韓國人의 教育熱이 強하다는 것과 바람직한 것은 서슴치 않고 受容하는 姿勢를 지니고 있다는 國民의 力量의 表示라고 볼 때에 마치 가슴이 뭉클해 질 程度로 흐뭇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끝으로 第六項 속에도 特記하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 있으니 教育財政과 敎員의 地位에 關해서 特別한 關心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國家財政이 어려운데다가 國防과 經濟開發이라는 命題 앞에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지 않으면 아니될 形便이었기에 참다보니 그야말로 이대로 끌고 나아가다가는 教育自體를 그르치겠다는 念慮마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狀況에 이른 지금, 憲法精神으로라도 이 問題를 打開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홀륭했던 스승 尊重의 美風이 退潮할대로 退潮하여 社會的 氣風은 勿論 敎員 스

스로 自拋自棄하다 시피하여 自重自愛는 그 자취조차 살아져 敎育을 業으로 삼겠다는 훌륭한 人材를 求할 수가 없게 되어도 도무지 거의 言不聽이요 馬耳東風이라고나 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인가 하는 狀況 속에서 이제는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國家的 및 國民的 意思가 敎員의 地位라는 用語 또는 概念으로 具顯되었으니 果然 하늘이 무너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俗談과도 같이 우리의 敎育界에 生氣와 活氣를 불어 넣어 주는 內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새로 制定된 憲法이 敎育界에 文字 그대로 新風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니 이 어찌 밝은 展望이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慾心이란 限이 없는 것이어서 敎育財政이나 그밖의 많은 問題解決을 위해서 더욱 具體的으로 그 굳은 意志를 表現해 줄뿐 아니라 이른바 早期敎育으로서의 學齡前 敎育 등 허다한 內容에 이르기까지 言及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概觀해 본 것 가지고 보아도 從前에 比할 때에 隔世之感을 느낄 수 있으리만큼 發展되고 改善되었으며 이만 하던 앞에 例擧한 事項들까지도 따라서 잘풀려 나아갈 것이 아닌가하고 希望을 걸만한 充分한 基礎는 마련이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關心을 가지고 倍前의 努力을 할 일이 있다.

첫째, 무슨 일이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實現이 되는 것이 아니니 이의 實現을 위해서는 從前보다 活動하고 窮理에 찬 研究와 不斷한 努力이 敎育專門家에 의해서 國民的 支持를 獲得해야 하는 일이다.

둘째는 어느 時代나 社會에서도 그랬듯이, 특히 敎育人類學的 觀點에서만 보아도 그 나라의 敎育은 그 나라의 時代的·社會的인 橫的 要求는 勿論 同時에 歷史·文化·傳統의 發展的 觀點과 要求에서도 그 敎育은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主體的이고, 自主의이며, 專門的이고도 政治的인 中心을 維持하는 가운데에 調和있게 發展하도록 意圖的인 研究와 努力과 實踐이 따라야 한다는 事實이다. 자칫하면 輕薄한 思考에만 執着하거나 다만 當時當時의 技巧的인 側面에서 問題를 一面的으로 握把하고 解決하려 할 때에 새로운, 그리고 도리킬 수 없는 過程을 犯하게 되는 結果를 本意아니게 가져 올 수가 있다는 歷史的 敎訓을 마음 속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敎育學徒가 取해야 할 眞摯한 態度이며 姿勢가 아닐까. ◀

# 社會教育의 制度的 基盤

黃 宗 建

(啓明大學校 教授)

## 社會教育制度 樹立의 必要

幸福한 個人生活에 있어서나 國家發展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社會教育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先進 여러 나라의 例로나 우리나라 스스로의 경험으로 보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받을 權利를 가진다」라고 明示되어 있는 憲法 第27條 1項과 「教育은 弘益人間的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의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케 하여 民主國家發展과 人類共榮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教育法 第1條의 精神은 特別한 지위와 조건을 가진 一定한 年齡層의 正規學校 學生만을 對象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多樣한 社會·經濟·文化的 背景을 가진 各 年齡層의 모든 靑少年과 成人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새 憲法은 第29條 5項에서 「國家는 平生教育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學國的인 國家發展計劃에 立脚한 急激한 産業化와 社會開發過程에 參與하고 있는 靑少年·成人에게 繼續教育의 機會를 提供함이 憲法이나 教育法上에 明確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社會教育의 制度的 基盤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解放 후 우리 나라에도 여러 形態의 社會教育 活動이 政府와 學校와 産業體에 의하여 展開되어 왔다. 즉 1950年代부터는 文盲教育, 農村指導, 地域社會開發事業 및 再建國民運動이 활발하게

展開되었으며, 1960年代 後半에서부터는 公務員 教育, 職業教育, 職業訓練, 産業體 社會教育 등이 막대한 豫算과 施設을 가지고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大學이나 自願團體의 社會教育 參與도 날로 活動이 增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規模가 크고 다양한 團體 및 機關의 社會教育 프로그램과 活動을 후원, 지도, 조정할 수 있는 制度的 基盤과 專門的인 組織運營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浪費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社會教育을 “學校外 靑少年·成人들을 위한 組織的인 教育活動”이라고 定義할 때 적어도 우리나라 全體 人口의 약 60% 以上이 그 對象이 된다. 이들은 모두 社會生活, 職業生活 및 政治過程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國民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속적인 人文教養教育, 職業訓練 및 市民教育의 機會를 提供한다는 것은 憲法이나 教育法 精神에 부합할 뿐 아니라 國民 個人의 幸福과 福祉國家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優先順位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社會教育制度 樹立을 요구하는 個人的, 社會的 그리고 國家的 必要를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본다.

## 平生教育 理念과 教育機會 擴大

平生教育은 그 동안 年齡層別로 區分된 閉鎖的 學校教育과 미처 組織이 되지 않은 非效率的인 狀態로 방치된 社會教育을 統合再編成하여 결국에는 「教育의 社會化」와 「社會의 教育

化」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學校教育을 마친 후의 靑少年 및 成人들을 爲한 繼續教育의 機會는 學齡前教育과 學校教育과의 構造的인 均衡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國家教育計劃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날 教育의 責任을 묻는 모든 靑少年·成人들에 관한 問題들은 人間教育을 學校 안에서만 시도해 보려는 그 동안의 그릇된 노력에 根本的인 原因이 있는 것이다. 人生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듯이 人間の 바람직한 成長인 教育도 人間の 卞生을 통하여 그의 家庭과 學校와 社會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감할 때 靑少年 成人들의 教育機會 擴大는 오히려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것이다.

## 經濟發展과 人力開發

1967년부터 시작된 3次に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經濟는 비약적인 發展을 이루어, 이제는 先進國의 段階에 도달하고 있다. 수많은 工業團地의 建設과 고속도로의 擴張,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수출확대는 우리나라의 國力을 世界에 과시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이 過程에서는 적어도 學校外 靑少年과 成人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음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맡고 있는 役割과 職分이 무엇이건 간에 그들의 잠재적인 素質과 能力을 開發함은 물론,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습득하여 그들의 職業生活에 效果的으로 適應할 수 있음은 물론 國家發展計劃에 보다 有能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繼續教育(Continuing education) 또는 循環教育(Recurrent Education)의 計劃을 위한 法的 基礎가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이 論壇에서 強調하고자 하는 靑少年·成人教育은 이미 勞動廳에 관계되는 職業訓練法에서 다루고 있는 技術訓練에 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發展의 先行條件인 人間の 市民的 資質開發에 중점을 둔다.

## 政治發展과 市民資質 涵養

個人的 成長이나 國家의 發展은 어디까지나 調和와 均衡을 그 原理로 살아야 한다. 즉 經濟開發은 政治社會發展과 均衡을 이루어야 하며, 政治社會發展은 人間開發 특히 人間の 市民的 資質과 직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解放後 35年間の 우리나라 民主主義가 경직과 혼란으로 거듭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民主主義 政治教育 또는 市民教育의 不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去年的 인도지나事態와 世界政治動向을 관찰할 때 發展途上國의 國民들의 民主의 力量이 國家의 安寧과 秩序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國家의 安保와 번영이 한낱 國家指導者들의 下向式 要求라든가 지도자들의 一方的인 總和와 團結의 호소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個性의 존중, 自發的인 참여를 통한 合理的 協同을 통하여 實現되는 것이다. 이는 어려서부터 家庭과 學校와 地域社會 生活를 통한 實際的 訓練과 實踐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國家教育制度의 궁극 목적은 民主主義의 力量의 養成이다. 더우기 民主主義 政治發展을 至上으로 삼는 오늘에 있어서 社會·政治生活에 직접 참여하는 靑少年·成人들의 社會教育의 機會를 마련해 주는 法的인 制度樹立이 불가피하다.

## 國民生活 向上과 餘暇善用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목할 만한 사실은 國民經濟의 向上과 餘暇의 增大로 인하여 보기에 生活이 운택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經濟的 餘裕와 餘暇時間의 增大가 그대로 幸福의 條件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條件은 個人이나 社會를 위하여 肯定的이고 生産的으로 善用될 때만 값있는 보배가 될 수 있다.

文化內容이 날로 增加하고 社會構造나 生産過程이 복잡해지는 오늘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生活의 중심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

고 自己의 能力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社會教育 프로그램은 個人的 幸福 뿐만 아니라 國家의 번영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 靑少年의 價値와 能力의 啓發

오늘날과 같이 文化가 발달하고 社會構造가 복잡해 질수록 靑少年 年齡層(14세~23세)은 하나의 獨自의인 世代를 이루게 된다. 靑少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地位가 있고, 問題가 있고, 독특한 文化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韓國의 靑少年들은 成人들로부터 그것이 인정되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다.

꿈과 活力과 創意的 能力이 왕성한 靑少年들에게 自己의 素質과 能力에 맞는 적당한 職業과 繼續의인 自己成長의 機會를 제공하는 것은 國家의 貴重한 人力을 낭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날로 격증해가는 靑少年問題를 바르게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최근 關係法의 制定으로 學校教育의 惠澤을 받지 못하는 學校外 靑少年의 職業訓練의 機會가 늘어가고 있기는 하나 그들을 위한 人文教育和 市民教育和 餘暇善用의 프로그램을 體系의으로 지도하는 社會教育機關 및 團體의 組織과 活動은 그들의 要求에 극히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靑少年의 健全한 餘暇善用의 施設과 계속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社會教育의 施設과 프로그램이 國家教育計劃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社會的 國家的 要求와 國民 個人的 必要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社會教育의 組織과 活動을 體系化하고 效率化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基本法으로서의 社會教育法 制定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끝으로 社會教育制度를 樹立하는 데에, 또는 社會教育關係法規를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원칙을 다음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1.平生教育의 理念에 입각하여 여러 背景을 가지고 있는 모든 靑少年·成人을 위한 繼續教育의 機會를 擴張해 주는 것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로 삼는다.

2. 社會教育關係法規는 社會教育機關 및 團體의 組織과 活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권장, 후원하는 것을 그 根本精神으로 한다.

3. 社會教育은 國家統合計劃속에 포함되는 동시에 學齡前教育이나 學校教育計劃과 밀접한 연속적 관계속에서 그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4. 靑少年·成人들의 繼續의인 自我實現과 市民的 資質涵養과 職業的 成就를 도와주는 각종 社會教育 프로그램 및 資料를 開發하여 이를 보급하는 것을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의무로 삼는다.

5. 社會教育政策의 審議, 社會教育團體의 研究 및 社會教育要員의 研修를 담당하는 專門機構와 社會教育機關 및 團體間의 協助와 調整을 위한 協議機構를 둔다.

6. 職業을 가지고 있는 靑少年·成人의 職業外 社會教育 참여를 保障해 주는 동시에 거기에 소요되는 經費를 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企業體가 補助해 준다.

7.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관리·운영하는 社會教育機關에 종사하는 要員의 專門的 訓練과 資格을 義務化한다.

8. 地方의 社會教育機關 및 團體의 프로그램計劃과 運營의 指導는 물론 社會教育訓練에 있어서 大學의 指導의 참여를 制度化한다. ○

# 韓國教育發展을 위한 提案

李 圭 泰

(朝鮮日報 論說委員)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실이나 운동장의 청소를 한다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은 내가 배우는 교실 청소를 할 것으로 막연히나마 생각하고 있는데 예외가 없을 줄 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 때부분의 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고 있다. 청소부를 따로 고용, 그들로 하여금 청소를 시키고 있으며, 만약 어떤 선생이 학생들로 하여금 청소를 시키거나 유리를 닦았을 경우, 이 청소부들은 자기네 노동권을 침해 당했다 하여 항의를 하거나 제소를 하게 마련이다.

곧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킨다는 것은 한국 학교의 특색이며, 이 특색을 한국 학교 교육의 同一性(Identities)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同一性이란 政治·經濟·社會·文化·學術·藝術·教育·生活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그 민족, 그 국가, 그 文化圈에게만 있는 고유한 자질이나 유별나게 강한 자질을 의미한다.

이 같은 同一性を 가려내는 학문이 比較教育學이요, 그 같은 同一性の 要因分析을 하는 학문이 教育人類學이라고 들었으며 극히 근년에 이르러 이 同一性 추구하고 탐구가 중요시되어 왕성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들비면 외국에서 하지 않는 학생 청소라는 同一性を 형성시킨 요인이 뭇인가 하는 요인분석이다. 서양에 있어 청소는 어디까지나 오물을 없앤다는 물리적 차원 이상의 것이 못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옛날 절방에서 마루를 닦는 것이 僧侶들의 주요한 수업과정이었다가 수양수도 행위라는 정신적 차원까지 승화시켰던 그런 전통이

학교 교육에 있어 청소에다 인간형성상위'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요인추구를 하게 된다.

이 교육의 同一性 형성 요인에 대해 독일의 프리드리히·슈나이더는 國民性, 지리적 환경, 文化, 經濟, 科學, 정치, 종교, 역사, 외국의 영향, 교육의 內的 自己 발전 등을 들고 있다.

문제는 한국 교육의 同一성이 뭇인가, 그리고 그 同一성이 왜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그 同一성이 앞으로 한국 교육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조되고 응용될 수 있는가의 규명은 오늘날 한국 교육이 역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의무가 아닌가 싶다.

미국의 文化人類學者 마아가렛·미드女史는 이제까지의 文化史는 이 세상의 모든 사리나 사물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발달해 왔다면 앞으로의 文化史는 이 세상의 사리나 사물 가운데 똑같지 않다는 전제 아래서 발달될 것이라 말하므로서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 文化圈이 지니고 있는 同一성이 脚光을 받는 同一性 文化時代의 개막을 學理論的으로 전개하여 실효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교육도 이 세상의 교육의 목적이나, 이상이나, 방법이나, 효과나, 질은 결과적으로 같다는 전제 아래 보다 발달되고 우수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資質의 교육에 본을 찾아 연구되고 개선되어 왔다해도 대과가 없다. 그런 문화시기에 있어 同一性이란 열등하고 非價値이며 버려야 할 후진적인 요인으로 배척받게 마련인 것이다.

물론 시시각각 발달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인간형성, 더우기 국제화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형

성을 위해 同一性에의 고집은 낙후 요인이 된다. 同一性에의 고집이 아니라 同一性이 뒤틀린가를 규명해 놓으므로서만이 그 同一性을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조장하고, 또 해소하고 개조해 나가는가의 命題가 나타나게 된다. 곧 同一性 규명은 同一性에의 맹목적인 고집이 아니라 同一性에 터전을 둔 발전적 개조의 기초를 닦는 일이다. 맹목적인 외국 것의 모방을 탈피, 그 외국 것의 同一性에의 발전적 융합으로 형성시킨 文化가 同一性 文化요, 그런 교육이 同一性 교육인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 교육의 同一性 가운데 하나로써 「齊合性」을 들 수 있다. 이것저것 골고루 갖추는 일종의 완벽주의 원·셋티즘(one settism)志向이다. 곧 인간형성에 있어 모든 자질을 골고루 갖추게 하려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 음식이나 서양 음식처럼 一品料理식 교육지향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춰진 여관 밥상식 교육 지향을 한다.

미국의 비교 교육학자 칸델은 어느 한 나라의 교육의 同一性은 그 나라나 민족의 食性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반항을 불러 이끈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大食家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독일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대량의 지식이나 사실을 축적시킨다. 同一科目的 교육내용의 量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으뜸이 독일이며 따라서 교과서에 註釋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나라도 독일이라 한다.

이에 비해 프랑스 사람들은 美術家로 식물의 맛을 감별하는 예민한 미각의 소유자들이다. 그러기에 식당에 가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문을 하고 주문한 요리를 서서히 충실하게 맛을 놓치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먹는다.

그것은 마치 프랑스의 학교들에서 많은 사실을 가르친다기보다 지식을 음미토록 하여 생각하는 법이나 사상의 깊이에 유도하는 데 重點을 두고 가르치는 것과 흡사하다.

영국의 食事は 맛 없고 거칠기로 소문나 있지만 그것이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 식사를 맛있게 먹는다는 오락 차원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전강차원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육도 心身 단련이 우선되며 영국 교육에 있어 스포츠의 비중이 별나게 강한 이유도 이 식성과 부합된다.

미국에서는 어느 가정의 식사도 대체로 같고 맛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특색이다. 그것은 미국인에게 있어 식사란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그다지 맛이나 기호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교들은 많은 선택과목이 마련돼 있어 학생들은 그 가운데 자신이 필요로 하는 單位를 따서 졸업하게끔 돼 있다. 이것은 식사에 있어 필요한 칼로리를 취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식사의 특색은 뒤틀린다. 물론 칸델은 한국 것까지는 언급해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그것에 비해 한국인의 食性的 두드러진 특성을 들자면 바로 여관 밥상식의 齊合性, 곧 뒤틀어진 갖춰 놓고 본다는 데 있다고 본다.

먹진 안먹진, 좋아하건 싫어하건 일단 갖출걸 다 갖추어 한상 차려 갖다 안긴다. 곧 먹는 사람의 의사나 기호는 전혀 무시된다. 이것은 독일 사람처럼 많이 먹는다는 것과는 다르다. 많이 먹고 싶은 것이나, 적게 먹고 싶은 것, 전혀 먹고 싶지 않은 것이 一定量으로 나온다. 곧 많이 먹는다고 보다 雜多性이다.

곧 뒤틀어 먹고 싶다, 뒤틀어 구미에 맞는다는 먹는 자의 의사나 기호에 관계없이 차린 자가 획일적으로 차려내는 그런 획일성도 한국 食構造의 특성이다.

한국 교육에 있어 이 같은 한국인의 食性이나 食構造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본다.

교육제도 면에서 보면 학제가 그렇다. 한국의 현행 학제는 해방 후 미국에서 도입된 6·3·3制다. 하지만 도입원인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학제가 다양하다. 물론 6·3·3制가 많이 보급돼 있긴 하지만 지역의 실정이나 요구에 따라 6·6制, 8·4制, 5·3·4制, 4·4·4制 등 실로 다양하다. 대체로 6·3·3制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알맞는 제도요, 8·4制는 시골에 적합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한때도 우리나라는 서울같은 대도시로부터 학생수가 10여 명 밖에 안 되는 도서벽지까지 확



일적으로 6·3·3制다. 곧 획일적으로 차려진 밥상같은 것이다.

현행 교육법상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유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게는 돼 있지만 사실상 유급자가 없거나 극소수인데 예외가 없다. 대체로 공부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열심히 아이나 게으른 아이나 그저 학교에 넣어 놓으면 일제히 진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곧 年功序列의이요, 획일적이다.

프랑스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그 학년에 해당하는 적령의 학생은 전체의 50%에 불과하며 나머지 30%는 1년유급생, 10%는 2년유급생, 나머지 10%는 거꾸로 월반생으로 돼있는 것이 상식이라 한다. 곧 유급생과 월반생이 절반을 차지한다.

성적 평가도 여관밥상式으로 획일적으로 한다. 우등생은 국어, 수학뿐 아니라 체조, 가사, 음악, 미술도 골고루 다 잘해야만이 된다. 이를테면 어느 음식하나가 유별나게 맛있는一品料理이어서는 안 되며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찌개가 모두 맛있어야만 한다. 사실 천부적 자질이 모든 것에 유능하도록 돼 있다면 이같은 성적평가가 좋겠지만 재능에 개성이 있는 개연성에서는 획일적 평가가 문제가 되기도 남음이 있다.

프랑스에서 처럼 수학의 우등생, 체육 우등생이 따로 따로 있고 심지어는 리더쉽의 우등생, 奉仕의 우등생, 友愛의 우등생, 엘레강스의 우등생 등 個性적인 재능의 우수성에 주어진다든 법은 없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敎科目, 수업시간수 등은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고 교육과정의 기준도 학습지도 요령에 의해 획일화시키고 있다.

한국 내의 어느 학교에서든지 同一科目을 획일적으로 가르치게끔 돼 있다. 영국의 학교들은 제각기 페이스(face)가 있다 하리만큼 특색있는

교육을 베풀고 있다. 뿐만 아니라 歐美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적성·능력·요구에 응한 다양한 교육을 베풀기 위해 선택과목이 대폭 증설돼 있고 코스別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희랍신화에 프로크라스테스라는 흉악한 도둑이야기가 있다. 나그네가 프로크라스테스의 집에 머물면 이를 잡아 쇠침대에 묶는다. 나그네가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길이 만큼 잡아 늘이고 침대보다 크면 침대에 맞게 발을 잘라버린다. 이처럼 하여 프로크라스테스는 키가 작은 자건 큰 자건 모두 같은 키로 가즈런하게 하므로써 죽여버렸던 것이다.

마치 한국 교육의 同一性 가운데 하나인 劃一性은 아이들을 프로크라스테스의 침대에 묶어놓고 잘못된 놈은 억지로 잡아 늘여놓고 잘하는 놈은 주저하게 하여 가즈런하게 획일화하고 또 아이들의 개성이나 능력을 획일된 침대기준에 맞춰 잘라냄으로서 죽여버리고 있다할 것이다.

이상 한국 교육의 同一性 가운데 하나로서 획일성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同一性은 長短點으로 따져지기 이전에 우리 한국 교육에 실존하는 구체적 사실(fact)이다. 이 구체적 사실이 당시대의 여건이나 장래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단점으로도 작용을 한다. 따라서 장점으로 작용하거나 앞으로 작용할 同一性 요소는 이를 기리고 조장해야 하고 단점으로 작용한 요소나 작용할 요소는 대담하게 개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췌보다 한국 교육계가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한국 교육의 同一性들이 췌이나를 비교 교육학 측면에서 규명해 하고 왜 그 같은 同一性들이 형성되었느냐를 政治, 社會, 經濟, 文化, 歷史, 의식구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명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同一性은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조장, 개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

# 放送의 教育的 機能과 意義

최 중 른  
(中央日報 論說主幹)

며칠동안 山間地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聞慶새계(鳥嶺)는 옛부터 소문난 天險地로 그 높 이만해도 1천미터가 넘는다. 요즘은 말끔히 그 일원이 포장되어 오지(奧地)도 아니지만, 그때 도 한적한 고장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문경서 忠州에 이르는 羊腸의 고갯길 을 넘으며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산비탈에 외떨어져 있는 가옥에도 보아 란듯이 TV안테나가 솟아 있었다. 마을마다·가 구(家口)마다 그것은 거의 예외가 없어 보였다. 집은 형편에 따라 허름해도 TV만은 있는 것 같 았다.

비공식 통계지만 방송국 당사자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TV수상기를 7백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수가 5백40만채인 것을 생각하면 가히 그 보급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먼 눈으로 바라보는 TV안테나의 현실 과 가까이 그 안테나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현실과는 엄연한 갭이 있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된 다. 우선 사람들의 意識수준에서 大都市 주민과 農村 주민의 그것과는 숨길 수 없는 차이를 발 견하게 된다.

더구나 각급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더 많 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

가령 教育與件에 있어서 시골학교는 교과서와 칠판과 教師가 그 환경의 전부이다. 학습자료나 教材는 들체치고 教師의 資質에 있어서도 상당 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더러의 例外는 있겠지만 추세가 그렇다 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地方 학교의 경우는 過密 교실과 같은 문 제는 없는 편이다. 그러나 教育的 質에서는 지

역간의 격차가 현저하다. 이것은 과학적인 메야 터가 없어도 우리가 일상 중에 언제든지 경험하 는 일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오늘의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 제이며 또 방치될 수도 없는 일들이다. 教育財政 이 풍족하다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 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單位教育費마저 최저수준을 면하지 못 해 문제는 더 한층 어려운 국면에 있다. 어떤 통 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단위 교육비는 아시아 지역에서 까지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값싼 교육」은 불가피한 일이다.

바로 放送의 教育的 機能은 이와 같은 教育與 件과 현실 속에서 그 중요성과 의의를 새삼 吟 味해 보게 한다.

단일 放送文化와 그의 教育的 기능이 調和를 이룰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폭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國家的 意志와 國民의 要請과 專門家들의 使命感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주변에선 『TV프로그 재미없다』는 聲討가 높다. 계절적으로는 秋季 프로그편과 함 께 한창 活氣가 넘칠 무렵이다. 정작 요즘의 TV를 보면 그런 熱氣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런 현상이 프로淨化와 함께 보조를 같이 하 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교양과 품위를 갖춘 프로는 반드시 재미가 없어야하느냐의 문 제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중매체들은 거의 예 외없이 그런 圖式이랄까·固定觀念에 사로 잡혀 있다. 비단 放送만이 아니라 新聞·雜誌도 마찬 가지이다. 教育的인 내용이나 教育 그 자체는

으레 재미가 없다는 것이 定評이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재미」의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의 우리 대중매체들이 보여준 「재미」가 정말 「재미」인가하는 의문도 있다. 아뎀튼 그런 기준에서 새로운 狀況에 직면하면 쉽게 재미없다는 판정을 내리게 되는 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제작자의 창의력 빈곤이다. 다른 말로는 성의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敎養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기술의 빈곤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본다. 가령 새해 豫算案에 관한 TV뉴스·캐스팅의 경우, 캐스터는 멀쩡히 앉아서 數字 풀이만 하고 있을 것인가. 실제로 그런 예를 보고 있는 것이다.

TV매체라면 응당 캐스터가 앉은 배경에 磁石板이라도 세워놓고 數字를 칩혀 얹으면서, 그것을 분석도 하고, 내용 설명도 해야 印象的인 것이다.

「이란」·「이라크」의 전쟁만 해도 그렇다. 우선 戰況을 알리는 최신의 地圖가 圖解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國旗나 무슨 「깃발」로 두 나라가 알기 쉽게 아니 재미있게 演出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장치나 연출 또는 아이디어는 바로 映像을 보여주는 TV매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대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그것은 TV매체만의 長技이며 特色이고 強點이다. 그 때문에 TV는 지금 세계의 매스콤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放映을 할때 누가 감히 재미없다는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과연 이런 TV가 몇이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책상 하나 놓고 남자·여자가 마주 앉아, 때로는 몇 사람이 둘러 앉아, 저마다 각본 같은 원고를 읽고 퇴장하는 TV의 뉴스·캐스팅은 시선을 끌기가 없다. 차라리 라디오로 바꾸어 놓아도 그 결과는 TV와 다를 것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 상징적 批評에 지나지 않지만, 放送이나 放映의 아이디어개발이야말로 우리 放送文化의 발전을 가늠하는 열쇠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放送의 敎育的 기능은 높이 평가하면서, 그 효과는 회의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재미없는 프로」를 누가 볼까하는 의구심때문이다.

여기에는 먼저 「프로그래머」나 「프로듀서」의 「저널리즘」에 대한 올바른 理解가 요구된다.

저널리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糖衣(슈가·코팅)를 입히는 기술이다. 「재미가 없는 프로」란 바로 그 당의를 입히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때문이다.

放送의 敎育적 기능도 이런 觀點에서 얼마든지 活性化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敎育할까」의 문제에 앞서 「어떻게 敎育할까」의 문제가 보다 연구되고, 보다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재미」云云하면 뜻하지 않은 오해를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放送프로의 개선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低質性·퇴폐성이 거론되는 것도 그런 예의 하나다. 재미의 本質을 저질과 퇴폐에서 찾으려는 가치판단의 혼란에서 빚어진 년센스일 것이다. 결국 이런 혼란으로 인해 「재미」있는 프로는 곧 매스콤의 逆機能으로 평가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만다.

매스·커뮤니케이션分野에서 개척적인 研究 업적을 남긴 政治學者이자 心理學者인 해롤드·라스웰은 매스콤 종사자들의 활동을 세 가지로 분석한 일이 있었다. 하나는 환경의 감시, 또 하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자들의 상관조정, 세번째는 한 世代로부터 다음 世代로의 사회遺産 傳授이다.

「환경의 감시」란 어느 특정사회의 안팎환경에서 일어나는 사태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캐스팅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새로운 知識의 전달도 이런 기능에 속한다.

「상관조정행위」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풀이하고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처방해 주는 경우이다. 세제의 「사회유산傳授」는 다음 세대로 지식·가치관·사회적 규범을 전달해 주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74년 『매스·커뮤니케이션—그 社會學的인 考察』이라는 近著로 聲價를 올린

美國의 사회학자 「찰스·R·라이트」교수는 「라스웰」교수의 주장에 또 하나의 활동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娛樂의 기능이 그것이다. 오락하려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주로 그 목적이 있는 전달행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매스·코뮤니케이션은 「임포터티브」(情報전달), 「에듀케이티브」(教育的)의 기능 외에 또 하나의 기능인 「엔터테인먼트」(娛樂性)의 역할도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매스콤 종사자들은 도덕적·사회적 책임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책임이 다른 어떤 책임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책임도 결코 회피할 수는 없다.

물론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정보와 논의를 즐겁게 전달한다는 뜻은 문제 자체를 의곡하거나 사회적 책임까지도 접어두고 즐거움에만 집착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쉽고 재미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 「테크닉」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용한 「찰스·R·라이트」의 네가지 활동기능은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회적·도덕적 책임만 강조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說教가 訓示의 태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워지며, 재미에만 치우치다보면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平衡感覺을 잃기 쉽다.

이런 不自然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활동과 기능이 調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放送의 교육적 기능도 결국 放送文化의 수준과 일치한다. 放送文化의 向上은 어쩌면 그 前提일 것도 같다. 그 때문에 매스콤의 기능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기능과 함께 전문 종사자들의 使命感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全家口數를 넘는 TV수상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아직도 教育的 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이다. 한 때 課外熱風 속에서 「TV課外」와 같은 非正常的인 教育프로는 사회의 視線을 모으는 듯 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활기를 잃어가는 印象이다.

역시 TV媒體의 특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좋은 實例의 하나가 됨직하다. 앞서 지적한 뉴스·캐스팅의 경우와 같다. 저널리스트릭·센스의 부족이라도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논의는 흔히 判료적인 變명을 낳기 쉽다. 예산이 없고, 人力이 모자라며 機材가 남았다는 얘기가 으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디어」以後의 문제이지 모든 실패의 原因일 수는 없다.

정부나 교육당국에는 이런 點에 착안해 전문인들의 양성에 더 많은 關心과 投資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아직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빈번히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이다. ○

# 情報社會化 속의 TV 機能

元 佑 鉉  
(高麗大學校 教授)

社會的으로 볼 때 어떤 형태의 지식이든지 情報의 유통과정을 거쳐서 社會의 구성원들 사이에 전달되어야 그 社會적인 면에서 실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텔레비전과 달리 教育放送이 주는 메시지는 教育的 效果라는 이미 設定된 기대를 예견하고 수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論題의 부타이 情報의 社會化 속의 TV기능이나 社會교육적인 의미를 고찰하는데 뚜렷하게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라는 제한이 없고 보면 교육방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견해를 피력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教育的 效果가 무엇인가 하는 教育에 관한 내용은 뒤로 미루겠다.

## 社會的인 自我形成 과정으로서의 教育放送

오늘날 現代人이 생활하는 가운데 얻는 情報源은 매스·미디어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情報를 수집하여 제공하는데서 형성되는 準環境에서 얻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情報體系에 자신의 지식을 동화 내지 적응시키면서 情報의 社會化 과정을 밟아서 社會的인 自我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정보의 廣域性과 신속 때문에 정보체계의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하고 사실을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한다고 본다. 따라서 텔레비전을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출생 후 주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제한된 與件 속에서의 知識을 더욱 넓게 얻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規範化된 社會적

행동유형을 직접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더라도 學習할 수 있고 이를 기준삼아서 개인의 행동을 일반 社會규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능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放映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社會적 가치나 규범에 의해서 선별된 것이고 이를 情報 습득을 통해서 社會化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文化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文化를 일반 수용자에게 전달해서 文化의 制度的·規範的·認知的인 면을 진수하는 과정이고, 집단이나 社會의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에게 社會적 규범을 內面化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個人的인 차원에서는 텔레비전이 주는 情報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社會적 규범체계에 조화시키는 과정을 밟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受容者들은 社會的 自我를 형성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여기서 教育放送의 경우를 보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학생이 직접 對面하지 않고도 유대를 맺게 되어 社會적 自我를 형성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능력이 社會인의 지표가 된다. 이와같이 教育放送이 放映하는 視聽覺·情報는 기존의 社會規範에 동질적으로 되도록 수용자를 변용시키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社會價値나 새로운 社會秩序를 창조할 수 있는 社會的 價値의 客觀性이나 普遍性이 무엇인가를 判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 超自我形成과 教育放送

教育放送의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대되는 社會적 개인은 自我의 內面에 축적되어 정립된

가치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受容者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자신의 태도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외부적인 규제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受容者 개인이 지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個人的 內在的 統制機構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 周知하는 바와 같이 「프로이드」는 超自我한 개념을 이용했다. 教育放送은 教育的인 측면과 放送이 갖는 娛樂的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教育媒體는 오락적 기능을 도의시킬 수는 없지만 教育的인 內容을 담은 프로내용이 특징이기 때문에 個個人이 自我의 快樂의 原理를 따르기 마련인 熱情(id)에 충실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內容을 自我의 價値體系 형성에 기초가 되는 規範律을 自我 속에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超自我를 자극하는 면에서 제작되고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개개인의 의식구조를 살펴볼 때 주위의 실제적인 환경조건을 의식하는 ego는 충동적인 熱情(id)과 超自我(super-ego)의 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個人的 行동을 계속하는데 이 경우 超自我는(super-ego) 受容者에게 社會的 規範을 강요하고 자신을 一般化된 個人으로 유도하여 內面的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여 다른 측면에서의 自律의 기구인 良心의 世界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教育放送이 教育的 內容을 담은 情報를 受容者에게 전달함으로써 受容者 個個人은 내적으로 超自我가 그 기능을 강화하게 되고 良心의 自律的 統制機能이 강해지게 촉진하여 무절제한 개인이나 주관적인 개인이 社會的 過程을 밟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受容者들은 교육 텔레비전에서 정보의 제공을 받음으로서 「프로이드」의 해석대로 하면 個個人이 超自我를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情報의 社會化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다.

## 텔레비전과 教育

현재 放映되고있는 家庭高校放送 등 교육방송 프로그가 고등학교의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이점에 관해서 텔레비전의 기능을 생각해 보겠다. 수업교육 TV의 경우 교육의 일부로 텔레비전을 이용하면서 教育이 정

규적인 교과과정이나 공인된 제도 속에서, 즉 학교라는 울타리를 통해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종래의 개념을 불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制度化된 체계 속에 教育은 기존체제에 대한 순응을 가르치고 제도의 유지라는 기능에 치우칠 수 있다. 이에 대해 教育을 출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규적인 교육제도 이외에 일반환경에 대한 산 교육이나 人格陶冶를 위한 全人教育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教育에 대한 社會의 要求에 전적으로 부응할 수 없는 教育放送의 제약점도 주로 수업교육방송(ITV)인 경우엔 나타난다. 첫째 학습용 텔레비전은 受容者가 社會的으로 일부 階層에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특정한 학습내용에 관하여 특정한 대상층을 겨냥하고 제작·편성한 내용이라 教育의 一般化에는 지불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둘째로 教育放送을 듣는 受容者 범위가 제한된데 비해서 經費가 너무 많이 들어서 非 經濟的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셋째는 교육방송 내용이 독자적으로 습득될 수 없고 교사의 지도가 병행해야 가능한데 教師들의 교육방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청자인 학생에게 번거로움을 줄 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教育放送의 기능이 정보의 사회화 기능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규 수업내용의 보완책으로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다.

## 社會教育 기능으로서의 TV

텔레비전이 放映되면 그 자체가 일반 受容者에게 사회교육적 의미가 있으나 教育放送이나 敎養放送에서는 교육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프로그램제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협의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 教育放送의 사회교육적 의미가 학교의 정규적인 교실수업과정을 텔레비전의 특성을 살려서 제작하는 ITV(Instructional Television)의 운영을 통한 특정 학년에 대한 특정 학습내용의 전수활동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ITV가 일반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일반 사회교육이나 교양교육을 전체계층을 대상으로 방영하는 ETV(Educational Television)에 사회교육적 기능으로서의 敎育放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교육적인 측면에 관해서 외국의 예를 보면 英國의 경우는 ITA가 敎育방송을 방영하는데 그 내용이 일반 成人敎育이나 學校卒業 이후의 補充敎育(Further Education) 幼兒敎育 兒童을 위한 言語敎育·外國語 敎育·職業敎育·技術敎育·科學·藝術·文學·歷史 등의 내용을 일과를 마치고 일반 社會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 방영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공급하는 社會敎育場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방영내용이 겉보기로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이지만 文學이나 藝術프로그램을 제작해서 放映할 때 古典을 취급하여 일반인이 古典을 쉽게 넓히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일반 국민에게 傳統文化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준다.

社會敎育기능을 주로 담당할 敎育放送의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 운영될 敎育放送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겠지만 첫째로 敎育放送의 운영

은 본래의 사회교육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방영하는 외에 시청자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나 손쉽게 접할수 있는 知識의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로 일반 시청자가 실제로 살아가는 生活 속에서 얻은 경험을 반성하고 비교해 줄수 있는 교훈이 될 만한 자리를 제공하여 社會的 判斷 기준을 마련해주고, 셋째로 商業放送이 지향하는 흥미위주의 프로에서 얻은 미래의 환경에 沒入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自我를 발견하고 規範과 社會秩序에 적응할수 있는 倫理的 바탕을 敎育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고, 넷째로는 학생이든 사회인이든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커리큘럼과 연관지어 수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학습내용을 보강하거나 반복할 기회가 생기게 되고 평생敎育의 실현에 도움을 줄수 있다. 여기서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역할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제외시키고 사회화 과정에서의 개인의 의식과 敎育매체의 사회敎育 기능을 단편적으로 살피는데 그친 점을 밝혀둔다. ○

(38페이지에서)

#### 바. 制作費 現實化 問題

現 韓國敎育開發院의 制作費 基準은 他 放送機關의 基準에 크게 未達(約 50%程度)함으로 이의 現實化를 爲한 豫算當局의 配慮가 있어야 겠다.

以上에서 言及한 問題外에도 크고 작은 問題點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根本的인 問題는 모두 豫算과 直結된다. 敎育이라는 것이 그

效果가 即時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年 또는 그 以上の 時日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疎忽히 다룰 念慮가 있으나 政府當局에서도 目的稅이긴 하지만 敎育稅를 新設할 움직임이고 敎育의 正常化를 爲해 크게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待望의 80年代에는 敎育放送 뿐만이 아니라 敎育全般에 걸친 劃期的인 發展이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

## 人間形成과 教育放送

李 康 洙

(漢陽大學校 教授)

“人間 누구도 갖고 있는 이른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欲求나 性的 欲求는 분명히 存在한다. 그러나 人間性格의 個人差를 나타내는 사랑과 질투, 權力에 대한 欲望과 服從하는 마음, 官能의 즐거움과 恐怖와 같은 衝動은 모두 社會過程의 產物이다.

人間的 가장 아름다운 傾向은, 가장 보기 싫은 傾向과 같이 固定된 人間性의 一部分이 아니라, 人間을 만들어내는 社會過程의 產物이다”라고 한 「에피히·프롬」(E. Fromm)의 말은 人間은 生物學的 存在임과 同時 社會的 存在임을 端의으로 表現한 말이다. 先天的 行動樣式을 本能이라고 부르고 後天的 行動樣式을 習慣이라고 부르다면 昆蟲에 있어서 本能, 즉 生物學的 遺傳의 優越에 대하여 人間에 있어서 習慣, 즉 文化的 遺傳의 支配는 거의 의심의 餘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美國 學者들의 表現을 빌린다면 人間은 Individual로 태어나서, 學習을 통해서 Personality로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ndividual이 Personality로 된다는 것은 하나의 社會行動樣式으로서의 習慣을 획득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昆蟲이 生活의 最初의 段階에서 이미 完成해서 그 後는 거의 學習의 能力을 보여주지 않는데 比하여 人間은 거의 未完成의 狀態로 태어나서 그 後는 限定없는 學習을 통해서 習慣을 形成하게 되며, 既存의 社會的 行動樣式을 習得해감으로서 비로소 完成段階의 人間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人間은 끊임없는 學習過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W. 제임즈」가 말하는 「習慣의 덩어리」(Bundle of Habits)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人間의 形成은 바

로 學習을 통한 社會化 過程으로 (Socialization Process)로 把握되어진다고 하겠다. 大體로 社會化를 說明하는데 있어서 使用되는 學習 내지 學習過程은 크게 세 가지 類型, 즉 모델化 (modeling), 補強(reinforcement), 그리고 社會相互作用(social interac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모델化 過程은 그 中心의 메카니즘이 模倣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가 社會化를 이끄는 사랑(socialization agent)과 겨냥하려는 意識的인 企圖를 通하여 혹은 單純히 그 사람의 行爲가 그가 取하기에 가장 特出하기 때문에 이를 본받아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둘째, 補強過程은 報酬를 갖거나 주는 메카니즘(積極的 報酬)과 處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學習過程에 있어서 社會的 相互作用은 그렇게 明確한 메카니즘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는 大體로 모델化와 補強의 融合으로 보던 된다. 가령 어떤 훌륭한 사람과의 個人的인 接觸에 內包된 特定한 社會的 規範은 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나 嗜好와 같은 行爲를 보다 適切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學習過程은 人間形成의 發達過程으로 볼 때 學習過程은 人間의 認知的 發達段階와 直接的으로 聯關性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認知理論에 依하면 兒童의 認知 내지 知的 發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行爲는 年齡段階에 따라 各各 相異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그 代表的인 例가 「피아제」(J. Piaget)의 認知理論으로 그에 依하면 兒童의 認知發達は 0~2歲, 2~7歲, 7~12歲, 12歲 以上の 4段階의 發達段階로 說明하고 있다. 따라서 兒童들의 人間形成에 있어서 學習過程은 各 兒童들의 各 認知段階에 따라 各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兒童의 人間形成을 위한 社會化 過程에서 社會化를 위한 對象으로서 어린이 生活를 둘러 쌓고있는 이른바 社會-文化的 條件 내지 環境의 問題와 함께 社會化 擔當者로서의 兒童이 어떤 어린이인가, 認知的 發達は 어떤 段階인가의 問題를 同時에 考慮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兒童의 社會化 過程은 兒童의 社會化 推進者(agent)와 社會化 受容者로서의 兒童間的 이른바 Source-receiver間的 融合 내지 力學關係로 說明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兒童의 人間形成에서 影響을 줄 수 있는 社會文化的 環境 내지 社會化 推進者의 한 變數로서 放送媒體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放送媒體, 特히 TV는 오늘날 兒童生活環境의 中心分野가 됨으로써 兒童의 生活에 있어서 TV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TV臺數의 普及이 600萬臺를 突破하므로서 農漁村의 靑少年에 이르기까지 每日저녁 2~3時間 이상씩 視聽하므로서 兒童의 경우 잡자는 時間과 工夫하는 時間을 빼놓으면 가장 많은 時間을 TV視聽에 所要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年齡的으로 보면 兒童의 意識的인 TV視聽은 2~3歲에서 始作해서 그 後 年齡이 높아져감에 따라 增加하여, 國民學校 5~6學年에서 그 項點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TV가 兒童이나 非靑少年들에게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많은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充分히 豫想할 수 있다. 特히 人間의 中心的 퍼스나리티가 形成된다고 보는 10歲 以前的 兒童에 있어서 TV의 人間形成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TV가 兒童에게 어느 정도의 影響을 주는가를 說明하기에는 그렇게 簡單하지 않다. 더우기 人間形成이라는 長期的인 發達에 미치는 影響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調査 내지 實驗研究가 長期日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效果研究의 大部分이 短期的 影響만을 追求하여 온 까닭에 이 主題가 充分히 究明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現段階에 있어서 TV의 教育心理學的 側面을 보면 첫째, 學齡 以前的 幼兒의 경우, TV등의 매스·미디어를 빈번히 接하면 이야기와 知識量의 增大가 顯著하다. 더우기 이야

기와 더불어 映像이 提示됨으로써 올바른 言語使用이 일찍부터 行해지게 된다. 이야기와 知識量의 增大는 兒童들의 思考活動을 活發하게 만든다. 둘째 數, 曜日, 時刻에 대한 觀念이 일찍 定着되며, 세째 喜怒哀樂의 情이 보다 豊富하게 되며, 네째 일찍부터 친구 集團(peer group)이 생겨서 社會性을 發達시킨다. 다섯째 創造性이 開發된다. 가령 視聽覺的方法에 依한 教育은 兒童의 注意力, 科學的 空想力, 創造的 想像力, 論理的 思考力, 그리고 記憶力 등을 發達시킨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TV는 兒童들에게 적절한 行爲의 模型을 提示해주며, 兒童들이 直接的으로 經驗할 수 없는 領域의 情報를 提供해주며 여러 對象에 대한 定義를 내려주고, 보다 幅넓은 役割取得(role-taking)의 模型과, 이전에는 家族이나 學校 그리고 친구集團에 依하여 주로 行하여졌던 社會化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지적되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상의 例에서 본바 TV의 機能들이 TV에 대한 兒童들의 觀察學習(observational Learning)을 통하여, 意圖的으로 學習되어지거나, 偶然的 學習(Incidental Learning)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또한 「모델化」「補強」「社會相互作用」의 諸過程을 통한 學習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V의 人間形成에 대한 研究質問을 이른바 TV의 反社會的 行動研究에 對比되는 贊社會的 行動(Pro-social behavior)研究로 規定지을 수 있는데 TV의 贊社會的 行動研究의 代表的인 經驗的 研究事例은 「Sesame street」에 대한 Ball과 Bogatz의 共同研究, 그리고 Stein과 Friedrich의 「Misterogers Neighborhood」에 대한 研究를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美國의 教育放送인 PBS에서 放映되고있는 代表的인 教育프로그램으로써 美國에 있어서 TV를 통한 教育放送의 可能性을 最初로 立證시켜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 特히 有名한 Sesame street는 就學 以前的 어린이들, 特히 人種 및 社會階層的으로 少數集團에 屬하는 兒童들의 知的 그리고 文化的發達을 促進시키려는 意圖로 制約되었다.

이들 TV프로그램이 果然 兒童의 바람직한 方

向의 社會化 내지 贊社會的 行動에 어느 정도, 어떻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이에 대한 實驗室的 調查結果를 Misteroger Neighborhood의 경우를 보면 贊社會的 行動으로써, 兒童들의 自我統制와 다른 사람과의 協助, 困難한 일을 當했을 때 이를 對處하는 努力, 葛藤과 遲延에 대한 참을성, 感情 或은 느낌에 대한 言語的 表現 등에 影響을 주고 있다고 報告하고 있다. 이들 한두개의 贊社會的인 教育프로그램에 대한 實驗室的 調查結果로 모든 教育프로그램의 效果를 推定할 수 없으며, 더우기 短期的인 實驗結果를 現實社會 狀況에 그대로 適用하기에는 어느 정도 問題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教育的 프로그램의 兒童의 社會性 내지 人間形成에의 影響을 결코 過少評價할 수 없다.

오늘날 兒童들의 人間形成을 크게 보면 父母나 教師와 같은 어른들이 意識적으로 參加해서 行하는 目的 志向性을 갖인 教育和 그리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方向性과 教育目的 志向性이 없는 社會的 環境에 依한 自然成長의인 이 른바 두 가지의 廣義의 教育過程을 通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기에 兒童들에게 教育目的 志向性이 없는 一般的인 매스커뮤니케이션環境에서 보다 教育目的 志向性이 강조되는 매스·커뮤니케이션環境을 助成해 줌으로써 兒童들이 日常的으로 그러한 教育프로그램을 接觸할 수 있을 때 兒童들의 贊社會的 人格形成은 보다 容易하리라고 본다. 여기에 教育放送의 必要성과 그 存在的 意義가 있지 않은가 한다.

한편 人間形成과 教育放送을 關聯지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人間形成過程에 있어서 認知發達의 段階에 따라 人間의 學習過程,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行動도 各各 相異하게 나타난다고 볼 때 教育放送 프로그램 內容도 이에 적절히 對應할 수 있는 多樣性있는 프로그램을 開發해서 내보내

야할 것이다. 가령 여기에서 美國 BBC教育放送의 例를 든다면 BBC教育放送의 主役은 學校放送이며 여기에는 ① 就學前 教育(4~5歲), 初等教育, 前期·後期中等教育的 各級學校 對象 教育 ② 繼續教育 大學教育(主로 勤勞 靑少年을 위한 教育機關), 一般成人教育 ③ 「公開大學」(Open University) 講座 등으로 나누어진다. BBC學校放送의 目標를 보면 「모든 種類의 學校別, 모든 年齡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學習活動을 넓은 範圍에 걸쳐서 寄與한다」는 것을 目的으로 企劃하고 있으며 그 趣旨에 따라 「다른方法으로 容易하게, 또는 絶對로 얻을 수 없는 經驗, 見聞을 教育現象에 提供함으로써, 어린이들의 視野를 넓히고 構想力과 創意를 자극하고 自己들이 사는 世界와 그 過去와 現在, 거기서 꽃피운 藝術, 文學, 科學, 技術 등에의 關心을 환기시키는 것」이 第一의 目標이며, 同時에 「커리큘럼의 發展과 刷新, 그리고 教授法에 새로운 局面을 開拓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提供하는 것」도 學校放送의 目標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教科內容도 첫째 어린이들의 個性과 構想力, 創造性을 伸張시키는 것, 둘째 傳統的 教科領域에 대한 知識을 增進시키는 것, 셋째 라디오와 TV의 特性을 살리고 새로운 教育分野를 開拓하려고 하는 것으로 分類되어지고 있다.

BBC의 教育放送에 대한 目標와 그 目標에 立脚한 프로그램의 多樣性은 바로 教育放送이 결코 單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示唆해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設立하게 될 教育放送은 單純히 어떤 教科, 어떤 領域의 學習이나 指導에 도움이 되는 것 만이 그치지 않고, 보다 넓고 긴 教育目標와 理念 위에 營爲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의 教育全體 속에서 放送이 擔當해야 할 部分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確認하고, 그리고 그 結果로서 教育放送이 存在되어야 할 것이다. ☐

# 教育放送에의 期待

崔 昌 燮

(西江大學校 教授)

## I

放送의 教育的 기능은 항상 論難의 窠點이 되곤 한다. 放送계를 중심으로한 일부에서는 방송의 오락적 기능만을 주장하면서 방송은 오직 시청자와 청취자를 즐겁게만 해주고 교육적인 기능은 학교나 책이 해줘야 한다고 방송의 교육성을 일축해 버리기를 즐긴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마땅히 반박되어야 한다. 첫째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이다. TV의 경우에는 심지어 원자탄의 위력을 능가하는 힘에 비유되까지 하여 放送의 영향력으로 現代人은 울고, 웃고, 죽고, 살기도 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現代人의 日常生活의 重要한 一部가 되어있는 放送의 막강한 잠재력이 單純히 웃고 즐기는 次元에서의 오락품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걱정이다. 즉 많은 大衆이 生活의 一部로서 즐기는 라디오·TV의 오락성을 통해 파생되는 마취작용, 도피주의 현상 등 諸般 逆機能의 效果를 감소시켜 順機能의 側面에서 啓導의 目的에 利用되어야 한다는 主張이다. 즉 放送프로그램을 통해 웃고 즐기는 가운데 무언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內容의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一般적으로 “오락 속의 敎養” 또는 “교양 속의 오락”으로 表現되고 있다.

그러나 放送은 이러한 啓導의 敎養放送의 概念에서 眞인보하여 좀더 적극적인 教育的 目的에도 利用되어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放送의 敎育的 機能은 學生을 대상으로 교과목의 全體 또는 一部를 가르치는 狹意의 敎授機能을 일컫는 敎授放送(ITV, IR)과 一般의

으로 成人敎育·平生敎育·생애敎育의 의미를 가진 廣意의 敎育기능을 말하는 社會敎育放送(ETV, ER)으로 區分된다.

둘째, 放送매체의 다양한 特性(同時性·廣範性·現實性·親近性·感受性等) 내지는 教育的 價値(學習能力의 向上·敎材내용의 이해력 증진·具體的인 知識의 提供等)는 現 한국사회의 諸般 敎育의 問題點과 社會敎育의 要請에 적극 부응해야 할 必然的인 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即, 現實的인 敎育實情에 비취 ① 學生과 敎師의 量的 불균형 ② 敎師의 資質問題 ③ 도시집 중현상에 따른 學校間의 質的 격차 ④ 敎育과정의 미흡 ⑤ 시설의 미흡한 점 등을 放送매체의 活用으로 해결해 보자는 努力이 必要하다는 主張이다. 아울러 急變하는 現 한국 사회가 平生敎育을 지속적으로 要請하고 있어 放送매체를 利用한 平生敎育은 絶대 불가결하다는 주장이다.

장진호 교수는 “한국 사회의 사회敎育적 要求과 전망”(KBS 「방송과 평생敎育」, pp.83-84)에서 9가지의 必要性을 지적하고 있다.

- ① 인간존엄의 정신고취
  - ②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의 경험과 생활훈련의 場을 제공
  - ③ 主體性 함양에 도움
  - ④ 학교敎育의 불완전성 보완
  - ⑤ 近代化 작업을 위해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의 습득과
  - ⑥ 外來文化의 적절한 受容 태도 계몽
  - ⑦ 再敎育의 必要性
  - ⑧ 社會規範의 再確立 구축
  - ⑨ 國民統合에 큰 영향
- 實로 平生敎育은 敎育을 받고 學識을 傳授하

는 다양한 分野 사이의 장벽을 除去시키고 다양한 학습형태를 具體化시키며, 또한 급격한 교육 구조의 制限으로부터 個人을 해방시켜 주며 앞으로의 교육진장에 부응키 위해서 새로운 수단과 기술을 탐구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고 차알스 허벨은 지적하고 있다(「유네스코 뉴스」 第313號: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적 기여”) 先進外國에서는 이미 방송매체가 이러한 욕구에 대한 답을 提供해주고 있다. 더구나 科學技術의 진보와 함께 社會·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社會의 諸 분야가 細分化·專門化 되어감에 따라 電波를 利用한 교육방송도 그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內容도 다양해 가고 있음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外國의 경우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TV는 TV대로 各 媒體의 特性을 最大限으로 살리면서 各 級教育에 적극적으로 利用하고 있으니 代表的인 實例로 英國 BBC의 成人教育放送과 放送通信大學, 日本 NHK의 成人교육방송, 펠저움 라디오 텔레비전 公開學校, 荷蘭의 성인교육(라디오 市民大學放送), 대만 CTS 교육방송, 인도 교육방송(Akashvani와 Dookdarshan 방송국), 西獨의 제 3학년 社會교육방송(成人교육: *Erwachsenen bildung*)을 들 수 있겠다.

## II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기술 내지는 기타의 諸般 制約으로 一般大衆은 充分한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接해오지 못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경제적인 이윤추구의 極大化에 따른 경제적인 統制, 미디어企業의 獨占化, 專門放送人 養成을 저해하는 內的 여건, 放送의 倫理性을 外面하는 所有主 내지는 경영층의 內的 不實, 放送人 스스로의 自律規制의 미약성 등 諸般 인위적인 여건에 의해 교육방송 프로는 피상적이고 산발적이며 심지어는 形式的인 교육프로그램 類型의 수준에서부터의 신세를 면치 못해 왔던 것이다.

물론 그 동안 KBS 라디오의 부분적인 교육방송 실시, MBC 문화방송을 본래 교육방송국으로 許可했다는 사실, 교육개발원(KEDI)의 발족, 라디오를 利用한 「방송통신고교 및 대학」, 기독교 방송국(CBS)의 고교강좌 등 放送媒體의 교육적

인 活用面에서 부단한 努力을 경주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放送人·一般大衆·政策立案者·教育者의 無關心 내지는 저항에 부딪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듭해오다 드디어 80年代에 접어들면서 放送教育, 또는 教育放送 分野에 적극적인 關心을 보이게 된 것은 先進外國의 實例와 半世紀라는 韓國 放送史에 비취 안시지탄감이 없지 않지만 께이나 다행한 일이다. 즉 今年 6月中순부터 「TV課外」 實施에 대한 文公부와 KBS의 發表를 계기로 “교육방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活氣를 띄게 된 것이다.

TV교육방송에 대해 교육자·學父母·學生·專門家들은 一般的으로 肯定的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發展的인 次元에서 운영의 妙와 效果를 높이기 위한 신중한 問題點도 提起하였다.

肯定的인 次元에서 우선 우리나라 교육 및 TV 放送史上 처음으로 시도되는 TV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시도로서 받아들여졌다. 特別히 公益性을 大前提로 한 TV放送, 더구나 公營인 KBS로서 大衆의 利益과 必要性을 充足시킨다는 次元에서 必然的인 大衆봉사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수용층의 편의에 부응하는 다양성 충족과 特別히 방송의 교육적 기능 증대를 위해 UHF특수채널을 開放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役割을 해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셋째, 補充教育의 기회균등과 都市와 地方間의 격차를 해소시키면서 平準化와 수준향상에 力을 담담하게 될 것이라는 原則論的 當위성이다.

네째, TV는 媒體效果가 크며 더구나 요즈음의 세대는 TV시대에 TV와 함께 자라난 세대로서 참여도와 집중력이 높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미국에서 “Sesame Street” 프로를 계기로 “TV도 가르칠 수 있다”는 確信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도 同一한 信念을 체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KBS의 「TV課外」는 3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정적 비판도 받아왔으나 그 후 각계각층의 여론과 반응을 단계적으로 창작하면서 「TV課外」에서 「TV가정교과」로 명칭을

바뀌고 入試위주의 국어·영어·수학 3個 과목에서 大學入試위주를 탈피하여 補充教育에 중점을 두면서 科目의 數도 8個의 科目(국사·생물·물리·화학·지구과학·국민윤리·정치경제)을 추가하는 同時에 9月 1日부터는 MBC-TV도 「TV 가정교과」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프로그램 制作도 KBS에서 KEDI로 이관되었다.

KEDI의 제작담당자 박범익은 “TV교과 교육 방송안내”(「과학과 교육」: 1980. 10月號 p.36)에서 TV교과 교육방송은 고교수업의 보충과 심화를 위하여 과열 과외를 해소하고 다양한 학습보조자료를 充分히 提供해 줌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달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학교 교육의 正常化를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來年부터는 프로그램放映도 별도로 UHF 채널을 개설하여 現在 VHF채널에서 부분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고교방송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FM 라디오 채널도 利用하게 되며 내용도 成人대상까지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방송을 本格的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준비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最近 TBC라디오도 고교방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앞으로의 바람직한 교육방송 발전을 위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과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 III

첫째, 교육방송은 狹意의 教授放送 뿐만 아니라 廣意의 社會教育放送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教授機能은 單純한 學校授業의 반복을 탈피하여 學校內의 여건이나 地域的 여건 등에 의해 學校授業에서 다루기 어려운 內容까지를 포함하는 補充的 內容을 토대로 해야 하며 대상도 고등학교 과정 뿐만 아니라 유치원·초·중·대학 심지어는 大學院과정과 나아가서는 교원 재교육, 카운셀링·여름학교의 領域까지 점차 확대시켜 라디오와 TV를 共同 活用해야 할 것이다. 但 라디오와 TV媒體의 特性을 고려하여 內容을 配정해야 한다. 特別히 여기에서 기존의 「방송통신교과」와 「통신대학」에 좀더 關心을 갖고 개발

하는데 努力을 경주해야 하겠다.

둘째, 교수 방송프로의 개발을 위해 교과전문가, 방송매체전문가, 현장교사, 장학관계관, 교육심리학자 등 相關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방송심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바람직하겠다. (이영덕; “TV교과 교육방송의 활용방법과 전망” 「과학과 교육」 1980. 10月號, p.33) 또한 製作에는 相關기관의 協助와 지원체제가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Film Library 등 專門的인 資料室의 內室化가 先行되어야 한다. 充分한 교육보조자료가 확보되어야만 프로젝트작시에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活用될 수 있고, 必要에 따라서는 포맷 설정면에서도 강의주제와 相關된 內容을 劇化하는 등 과감하게 構成의 多樣화를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學生들이 一般的으로 接하기 어려운 희귀한 資料의 提供이나 一定 人物에 대한 화면을 興味있게 처리하므로서 注意(關心)集中 效果를 充分 살리도록 最大限의 創意力을 動員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 방송프로의 본격적인 活用に 앞서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事前 교육이 先行되어야 할뿐 아니라 아울러 이들 일선교사와 학부모를 通한 事前의 집중적인 프로모션(promotion)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네째, 社會教育(Educational)機能은 成人대상의 平生교육(생애교육)이라는 次元에서 平生을 통해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個人的·社會的·國家的으로 보람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고 人格形成과 全人完成을 촉진시키는 방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社會教育은 一面 學校교육의 연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教育放送은 急變하는 產業社會에서 個人이 적응해 나갈 方向을 提示해 주고 나아가서는 무너진 가치체제와 도덕적인 規範不在의 상태를 재구축할 “個人”과 “가정”에 좀더 關心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外來文化의 受容이나 傳統文化의 계승에서 우리의 同一性(identity)文化를 主體性있게 結晶하는 無形의 智慧를 바탕으로 한 교육방송정책이 命題가 되어야 한다. 同時에 外來性 및 國際性에 대한 열등감이 대중 속에 스며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열등감을 해소·분식하고 이를 平準化 시키기 위한 比較性的의 프

로써 의도적으로 기획·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多元(複合)主義時代에서 共同體 의식을 심어준다는 次元에서 모든 放送이 人間關係의 形成에 새로운 희망을 提示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放送은 顯時的(menifest)인 측면과 잠재적(latent)인 측면간의 균형과 調和 속에 補強시켜 나가는 社會化의 強力한 道具로서 教育성을 장·단기적인 次元에서 目標設定이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 社會教育放送 프로그램의 內容은 人間教育(人間性·知·眞理·愛·正義·規範)과 직업교육, 非 직업교육으로 編成될 수 있으며, 대상층은 全國民으로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위해 대상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우선 혜택을 덜 받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하부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즉 多數속의 少數구분(minority) 봉사라는 次元에서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직업청소년이나 女性 중에서도 特別히 취약지구인 농촌이나 도서지역의 영세민층 女性, 正常的인 교육에서 除外된 특수아 등에 우선적으로 關心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職業教育의 경우는 長期의 자격증을 발부하는 과정과 단기의 부담없이 듣는 과정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점차 專門직업훈련의 性格을 의사·간호원·사회사업가·엔지니어·경영자·건축업자 농어민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非職業훈련의 性格을 띤 것으로는 외국어강좌·양재·요리·실내장식·器具의 自習活用·농사기술 프로·時事話題(사회·과학·역사·미술·음악·연극·문학等)·成人독서운동·미디어 受容 의식계발교육·특수교육(신체부자유아·정신박약아 교육·기업경영·청소년·어린이)·科學프로·주산교육·운전교육·살림을 위한 미니사전·농업·임업·어업 프로 등 다양한 分野와 영역이 長期의인 眼目에서 年次的으로 확대·방영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방송은 오락방송보다 일면 고도

의 전문성을 더욱 요하는 분야로서 教育프로그램 製作委員의 창의성·융통성·專門性·生動力을 高揚시킬 制度的인 여건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이들은 各其 프로그 “누구를 위한” “무엇 때문에”라는 自己 目的과 메시지意識을 分明히 규정짓고 대상층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심층적 피드백 調查研究를 強化해야 한다.

여덟째, 교육방송은 매스(mass)를 추구한다고 보다는 어디까지나 다수속의 소수를 찾는 “必要로 하는”(NEEDS) 放送으로서 대중영합을 지나치게 의식해야만 하는 시청취를 경쟁 게임을 초월한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야겠다. 또 비록 초기에는 시청율이 낮더라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시청자의 시청패턴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높은 시청율을 염두에 둬으로써 스스로 자포자기와 좌절감에 빠지는 心理的 反響을 예방해야 하겠다.

아홉째, 敎授·教育放送의 全般的인 운영을 보다 効果的으로 하기 위해 기존의 社會·教育團體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質的 改善을 위해 受容者 및 使用者의 아낌없는 助言을 적극 求해야 하며 同時에 이에 대한 開放的인 受容態度가 送者(Sender)의 立場에서 確立되어야 한다.

끝으로 放送프로그램의 教育性은 興味性을 떠나 獨存할 수 없는 相互補完的이며 相互依存的인 相關관계의 概念과 맥락 속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強調하고 싶다.

참고로 KBS教育局이 81年 3月 1日 UHF채널 放送開始를 目標로 잠정적으로 마련한 教育放送의 編成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國家觀 定立과 意識構造의 改革(우리얼, 우리文化, 우리의 安保)
- ② 正統 韓國史의 體系의인 敎育과 傳統文化 傳承 開發(韓國史 博物館大學)
- ③ 健全한 國民을 위한 生活敎育(내일의 經營法과 生活·女性敎室·나의 발자취·生活人의 교양·市民大學)
- ④ 文化藝術의 涵養(미술강좌·藝術의 窓·文學에의 초대)
- ⑤ 靑少年 善導(碩學의 대화·여기 이 사람들)

교육영화)

- ⑥ 國際社會 進出에 必要한 外國語 및 世界的 歷史·文化(서반어語·佛語·中國語·日語·世界史).
- ⑦ 科學生活 및 技能人 養成(1人 1技·科學營農)
- ⑧ 여가선용(일요특집)
- ⑨ 障礙者를 위한 特殊兒教育(나도 할 수 있다)
- ⑩ 高校教育放送(2時間 30分)

이와 같은 編成 프로그램을 실천시키기 위한 指針으로 교육방송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制作陣의 專門化, 교육방송 시청결과분석 및 調查研究業務의 強化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放送時間은 1日 6時間 30分을 기준으로 하되 時間帶에 따른 대상층을 고려하여 저녁 7時は 가족이 함께, 8時와 9時에는 고교방송시간으로 하고 그以後를 成人대상 時間으로 編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具體的인 展望을 높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교육방송 발전을 위한 課題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참고로 정지웅·김지자의 共同研究인 “成人教育放送 學習要求度調查” 보고서(KBS 교육 방송 연구 IV, p.71)에 依하면

“.....애국심과 民主市民으로서의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精神教育이 가장 높게 知覺되고 있으며 언어교육에 있어서도 국어교육 및 우리말의 문화 등을 중요시하고 있어 이들이 원하고 있는 成人교육방송은 실제적인 기술이나 生活에도 구체적 혹은 수단적인 目的 보다는 교양·사고

방식 혹은 人間關係 등의 精神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內容은 애국심이나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內容이 첫째로 꼽혔고, 그 다음이 가정교육 및 가정관리, 정서교육, 국어 및 우리말의 순화, 건강교육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밖에 사춘기 청소년 대상의 性教育等 청소년의 問題를 다루어 줄 것과 協同心 및 自我意識을 고취하는 內容들도 다루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청소년과 관련시켜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환경 속에서 生活하면서 끊임없이 미디어의 영향력을 順機能 및 逆機能의 측면에서 받으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을 교육방송에서 시도해야 할 必要性 내지는 責任性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의 一部로 포함되어 식별력있고 선별적인 미디어 受容태도와 의식계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하겠으나 이에 앞서 교사와 學父母를 대상으로 이러한 미디어교육의 必要性과 方法論에 대한 事前교육을 先行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식계발 프로그램을 社會教育放送에서 적극 開發해야 할 것이다.

急變하는 現代社會에서 매일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情報의 洪水 속에 生活해야만 하는 現代人이 自身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환경 自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이를 올바르게 受容하지 못한다면 未來指向的인 次元에서의 오늘의 時代를 슬기롭게 創造하지 못할 것임을 再認識해야 되겠다. [4]

# 외국의 교육방송 비교

##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洪 起 宣

(慶熙大學校 教授)

###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여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방송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방송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하여 보다 바람직한 교육방송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근래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지만 다양한 교육방송의 내용과 형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몇가지 종류의 교육방송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한 검토나 반성도 부족한 것 같다. 특히 교육방송의 경영은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얽매어 다양한 자원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 단계로 교육방송의 선구자적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등 네나라의 교육방송을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하려고 한다. 특히 교육TV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겠다.

### II. 미국의 교육방송 제도

미국은 방대한 국토와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고 지역적인 자치성이 강한 나라이다. 미국의 교육방송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각 지역단위의 학교방송, 지방방송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교육방송 프

로를 제작 배포하는 몇개의 사실기구가 있고 연방기구는 채널 확보와 재정지원 원칙을 설정하고 감독할 뿐이다.

미국의 교육TV는 “교육TV”(ETV)라고 부르지 않고 “공공TV”(Public Television, 즉 PTV) 혹은 “비 상업TV”(Noncommercial TV)라고 부른다. 자연히 방송내용도 다양해서 학교수업 보충에서 부터 어린이 가정교육, 성인들의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 PTV라는 이름으로 방송된다.

PTV의 기본방향은 “근본적으로 교육적이고 문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오락과 흥미를 위한 것은 아니다”(미 하원 보고서 90~527중에서)라고 규정짓고 “정부의 간섭으로 PTV의 독립성을 보장”(카네기 위원회 보고서 중에서)과 비영리성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TV는 1952년 연방 커뮤니케이션 위원회(FCC)가 비영리 교육TV를 위해 전용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시작되어 각 지역과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ETV가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질과 이를 뒷바침할 재정지원이 늘 문제가 되어서 미 의회는 카네기 위원회(Carnegie Commission)를 만들고 이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도록 했다.

카네기 위원회는 ETV를 더 포괄적인 PTV로 교육방송의 개념을 넓히고 전국에 흩어져있는 독립된 PTV 방송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방송회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의 설립을 추진했다.

CPB의 성격은 연방정부에 의해 규약이 정해진



비정부, 비영리(Federally Chavted, Nonprofit, Nongovernmental) 기관이다. 카네기 위원회가 제시한 CPB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 방송국을 지원할 뿐 직접 운영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 2) 프로젝트작을 지원하고 이를 배포한다.
- 3) 지역 방송국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경비지원을 한다.
- 4) 방송관계의 조사와 연구업무를 맡는다.
- 5) 필요한 전문인을 모집 훈련한다.

또한 카네기 위원회는 PTV의 재정지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 1) PTV는 근본적으로 독립적이며 산하 각 방송국이 자치적으로 운영되나 부분적으로 연방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 2) 이를 위해 CPB를 구성하고 CPB의 재정지원으로 TV수상기 판매시 공장 인도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연방세(Federal Tax)를 부과한다.
- 3) 각 지방 PTV는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재단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 4) TV수상기 판매세를 관리하고 CPB를 지원하기 위해 재무성에 신탁 계좌(Trust Account)를 개설한다.

이러한 원칙아래 PTV는 연방정부이외에도 사설기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은 ETV 시초인 1952년부터 1966년까지 1억불을 기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의 연방지원보다 큰 액수이다.

그 외에도 Exxon이나 Mobile등의 굴지의 회사들이 PR의 일환으로 특정프로 제작에 기금을 대고 그 프로 앞뒤에 스폰서 회사명을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PTV 프로젝트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도 다양해져서 예를들면 Eastern Educational Network, Children's Television Workshop, Agency for Instructional Television 등이 있다.

### Ⅲ. 영국의 교육방송 제도

영국의 교육방송을 이해하려면 BBC라는 특수 방송제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BBC는 비 영리

기구로 독립적인 공영회사(Independent Public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며 재정은 수상기 등록세(Licence Fee)로 충당된다. 등록세를 징수하는 이유로는 방송의 중립성과 프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BBC를 주축으로 하는 영국의 교육방송은 미국과 같이 독립적인 교육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BBC 프로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BBC의 교육방송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분류된다.

#### 1) 학교 방송

초, 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학교방송으로 90% 이상의 학교가 이 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 2) 신체 장애인 프로

신체 장애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들면 농아를 위한 "입술 읽는법"(The Skill of Lip Reading)등이 있다.

#### 3) 특수 교육프로

사회의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기술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다. 교사 대상의 "현대 언어 교수법"이라던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을 위한 작업"(Working for Safety)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4) 공개 대학교(Open University)

공개 대학교는 방송을 통해 정규대학에 해당되는 강의를 받고 통신을 통해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79년도에는 TV는 주당 36시간, 라디오는 30시간을 공개 대학교 강의에 할애했다.

BBC의 교육방송은 등록세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특수재정이나 출판물 판매 등을 통해 그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교육방송 교재 판매등 출판물 판매
- 공개 대학교는 교육 과학성 소속으로 BBC의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 대학교는 교육 과학성 예산의 도움을 받고 있다.
- BBC 해외방송은 재무성의 지원기금(Grant-in-

aid)으로 운영된다.

BBC 기업(Enterprises)에서는 BBC프로를 16 mm 필립이나 카세트로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대여해 준다.

교육방송 관장 기구로는 영국 학교방송 심의회(The School Broadcasting Council for U.K.)가 있고 스코트랜드와 웨일즈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학교방송 심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유일한 민간 상업방송인 ITA(Independent Television Authority)도 역시 학교방송과 일반 교육방송을 하고있다. ITA의 교육방송은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나 사실기관이 ITA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후원기관의 의사가 프로젝트에 많이 반영되고 자연히 지역적 특수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별 독립 교육방송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 VI. 일본의 교육방송 제도

일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좁은 섬나라와 단 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제도가 비교적 중앙집중적이며 교육방송 역시 NHK라는 공영방송망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NHK는 비정치, 비영리 공영방송으로 주 재정은 BBC와 같이 수상기 등록세로 NHK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다.

1953년 2월 NHK TV의 개국과 함께 시작한 교육TV는 현재 매일 5시간에 가까운 학교방송(초·중등학교 대상)을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과 보육원 대상 프로그램도 매일 40분씩 방송된다. NHK 교육TV의 프로 구성 비율은 순수 교육프로가 76.3%, 문화·교양이 23.3%, 나머지 0.4%가 뉴스에 할애되고 있다.

민간 상업방송도 교육TV에 관심을 보여 1959년 동경의 일본 교육TV국(NET)를 시초로 여러 곳에 민간 교육TV국이 생겼다. 민간방송이 교육TV의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프로의 50% 이상을 순수 교육프로에, 그리고 30% 이상을 문화·교양에 할애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라디오를 통한 교육방송은 그역사가 1931년부터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중학 진학을 못한 청소년 대상의 프로가 주류를 이루었다. 1975년말 NHK 제2방송에서 실시하는 학교방송 시간은 매일 3시간 45분이나 된다.

일본의 교육방송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방송통신 고등학교”다. 이 제도는 NHK의 라디오와 TV를 통해 고등학교 전 과정의 수업을 받게되고 우편을 통해 숙제를 내거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동안(보통 10~15일) 지정된 고등학교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직접 고등학교 생활을 체험하게 하고있다.

방송통신 고등학교의 교재는 전국 통신 고등학교 교육연구협회(National High School Correspondence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에서 선택하고 문부성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재비와 함께 약간의 등록비, 통신비, 그리고 기숙사비등을 지불하고 있다.

통신고등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NHK는 통신과정을 대학으로까지 연장했다. 1974년 정식으로 발족된 방송대학은 영국의 공개 대학교와 비슷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V. 프랑스의 교육방송 제도

프랑스의 방송은 라디오와 TV 모두 국영으로 프랑스 방송협회(ORTF)가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방송도 ORTF의 일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TV 학교방송을 실시한 나라다. 1952년부터 당시 국영방송인 RTF(1964년 부터 ORTF로 명칭이 바뀜)를 통해 초·중등학교, 직업학교 대상의 교육방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교사난을 해결하는데 학교방송의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1963년부터 시작한 교육방송 발전 4개년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아래서 실시되었다.

- 1) 교육방송 시간 연장시에는 기초과목인 물리, 화학, 수학, 공학, 국어 등을 우선적으로 늘릴 것.
- 2) 교육방송은 유자격 교사가 부족한 학교와

교실을 우선적으로 대상할 것.

3) 교육방송은 새로운 교육방법과 공학, 수학 등 새로 개발되는 분야에 치중할 것.

교육방송 개발 4개년 계획이 끝난 1967년에는 TV는 제 1 방송을 통해 주당 15시간 정도를 방송하며 주로 관찰을 필요로 하는 과학과목에 치중하고 있다. 라디오는 제 2 방송을 통해 주당 25시간 정도 방송하며 중학교과정의 어학강좌를 중심으로 하며 국민학교와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방송의 제도적 구성을 보면 학교 방송 기획과 효과측정은 국립 교육연구소의 학교방송부(RTS)가 맡고, 교과내용 편성은 교육성 업무이며, 프로제작은 ORTF와 RTS가 6:4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송신에 관한 기술적 문제와 전파관리는 문화성과 우정성에서 각각 맡고있다. 이러한 다원적인 교육방송 체계가 가능한 것은 프랑스의 교육방송은 관 주도형으로 정부의 관료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도 국가 예산으로 충당 된다.

ORTF는 일반 성인교육프로그램과 방송대학도 실시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방송대학은 영국이나 일본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 단순히 일반대학에서 실시하는 강의를 방송을 통해 중계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러한 방송대학의 비중 약화는 프랑스의 대학제도가 다른 유럽국가보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데서 부분적이나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Ⅵ. 교육방송 제도의 분류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교육방송 제도를 살펴 보았다. 이들 네 나라는 교육방송의 선진국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각기 독특한 교육방송 제도를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교육방송 제도는 관리와 재정이라는 두가지 면에서 분류할 수 있겠다. 관리면이라 함은 어떤 기관이 교육방송을 주관하느냐에 관한 문제며,

재정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먼저 관리면에서 보면 다음 네 가지를 나눌 수 있다.

- 1) 국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교육 방송 제도가 설립된 경우
- 2) 비정치적, 비영리적인 공영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 3) 비 영리 민간방송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 4) 민간 상업방송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한편 재정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대개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실제로 이 다섯가지의 절충형태를 취하고 있다.

- 1) 국가가 일체의 재정 담당.
- 2) 수상기 등록세로 재정 충당.
- 3) 국가의 지원이나 민간 단체의 기부금에 의존.
- 4) 상업 스폰서에 의존.
- 5) 교재 출판, 수강료를 방송국 자체 수입에 의존.

이상에서 논의된 관리와 재정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네 나라의 교육 방송 제도는 다음 도표와 같이 분류된다.

교육방송 제도의 분류

재정	관리	국가주도	공영기관	비 영 리 민	상업민방
국가 부담		ORTF			
등록세			BBC NHK		
지원, 기부금				PBS	
상업스폰서				PBS	
자체사업			BBC NHK		영국ITA 일본NET

앞의 도표를 보면 대부분 관리형태에 따라 재정의 종류도 같이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제도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관리형태에 관계 없이 다양한 재정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도표의 빈칸을 메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의 도표는 현행 교육방송 제도의 분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개발의 가능성을 지시한다고 하겠다. ○

# 教育放送의 計劃과 展望

閱 相 根  
(本院 教育放送 企劃局長)

放送(電波媒體)에 依한 教育效果가 여러 나라에서 認定받기 시작하면서 世界 各國에서 放送 教育이 試圖되고 그 중 많은 나라에서 相當한 程度로 發展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事實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教育放送 特히 텔 리비전에 依한 教育放送의 計劃과 展望에 關하여 살펴 보코자 한다.

## 1. 教育放送의 推進經緯

韓國教育開發院은 教育의 目的, 內容, 方法 等의 開發에 關한 調查, 研究와 放送(電波媒體)을 教育에 活用하기 爲하여 1972年 7月 5日, 大統 領의 裁可를 받아, 同年 8月 30日, 正式으로 出 帆하였다. 政府 當局에서는 이 事業의 重要性을 높이 評價하여 1973年 3月에 韓國教育開發院의 育 成法을 制定公布하였으며 當初의 實驗의인 一部 地域의 教育放送 實施計劃을 TCOM方式의 送信 體制를 導入, UHF·TV 2個채널, FM·RADIO 1個채널을 통한 全國放送의 規模로 大幅의인 修 正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政府가 採擇한 TCOM方式의 送出網構 築은 技術上의 缺陷으로 1977年 9月 10日 第32 次 經濟長官 協議會에서 TCOM 事業契約 解 除通告 및 賠償要求를 議決하였으며 同年 12 月 27日 第57次 經濟長官會議에서 UHF·TV 1個 채널, FM·RADIO 1個채널의 地上 送信網(教育 放送 專用)記置로 修正기로 合意하였다. 韓國教 育開發院에서는 第57次 經濟長官會議의 決定에 따라 地上 送信網 構築에 必要한 基礎作業에 拍 車를 加하던 중, 1978年 7月 26日, 國務總理室 에서 教育放送 推進方向에 關한 示達을 받았으

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教育放送局 設置 : 韓國放送公社 名義
- 基本編成 : 教育放送 審議委員會에서 決定
- 細部編成 : 文敎部 主管
- 프로그램制作 : 文敎部(KEDI)
- 프로그램送出 : 文公部(KBS)
- 送信網構成 : TCOM 賠償裝備로 地上 送信網

- 教育放送用 諸裝備 : 칼라放送用으로 施設 하되, 全國的 칼라化 政策이 決定될 때까지 黑白으로 放映

위 指示內容에 따라 1979年 7月 1日, 大統領 令 第9545號로 教育放送審議委員會 規定이 裁定 公布되었는데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設置目的 : 教育放送의 基本政策에 關한 事項을 審議
- 機能 : · 教育放送의 基本方向과 重要 計劃에 關한 事項  
· 教育放送의 編成 및 制作에 關한 事項  
· 教育放送의 運營에 關한 事項
- 構 成 :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 包 含 委員 15人 以內(當然職委員 11人, 委囑委員 4人)
- 會 議 : 年 2回

이와 같이 教育放送의 基本方向, 政策, 運營, 編成·制作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決定하기 爲하여 發足한 教育放送審議委員會는 年 2回 開 催하여야 하는 規定에도 不拘하고 10·26 事態等 으로 因하여 아직까지 未開催狀態에 있으며 이 는 아직까지 教育放送 計劃이 確定되지 않았다는 것을 意味한다.

어쨌든 이러한 狀況에서 지난 6月 16日부터 KBS에서는 獨自의인 計劃에 따라 “TV家庭高校”를 放送하기에 이르렀으며 韓國教育開發院에서는 1981年初에 放映할(UHF 채널) 教育放送 프로그램을 制作하고 있던 중, 지난 7月 30日 國保委의 教育正常化 및 過熱課外 解消方案의 一環으로 KBS의 “家庭高校”放送을 改善, “TV高校 教育放送”의 프로그램을 韓國教育開發院에서 制作, KBS와 MBC의 送出網을 通하여 放映에 있다. 또한 國保委의 教育放送施行計劃을 보던 1981년부터 教育專用放送을 實施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今年末에 完成되는 UHF·TV와 FM·RADIO의 送信網 構築이 完了된다는 前提下에 立案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1981년부터는 待望의 教育放送이 本格的으로 實施되리라 믿는다.

## 2. 教育放送 計劃

앞서도 말했듯이 教育放送의 基本計劃은 教育放送審議委員會의 審議·決定事項이므로 여기에서는 지난 2月, 教育放送審議委員會 審議案으로 作成한 韓國教育開發院의 教育放送計劃(案)을 中心으로 記述코자하며 이는 修正·補完을 必要로 함을 前提한 것이기 때문에 確定案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 가. 推進方向

學校教育(初·中·高·)을 補完하기 爲한 學校教育放送은 社會教育放送과 함께 教育放送開局과 同時에 實施한다.

※ 學校教育放送—幼稚園·初·中·高·大學(放送通信學校 包含)의 教育課程과 聯關性을 가진 授業放送 및 學習補助 放送

※ 社會教育放送—學校에 籍을 두지 않은 一般 大衆의 啓導 및 教養增進에 關聯된 放送

### 나. 業務分擔

(1) 基本方向 및 基本編成 : 審議委員會에서 審議·決定

(2) 細部編成 : 文敎部 主管

(3) 制作 : 文敎部(KEDI)

(4) 送出 : 文公部(KBS)

(5) 送信網 構成 : 地上 送信網  
가. UHF·TV 1式  
나. FM·RADIO 1式

(6) 送信網施設 管理 : 文公部(KBS)

### 다. 教育放送의 內容領域

教育放送의 內容領域을 便宜上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으로 區分하였고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 가) 學校教育放送

##### (1) 教科教育

이는 主로 初·中·高學生을 對象으로 學習과 思考의 基礎가 되는 學問의 基本概念을 理解하고, 知的·探究方法和 問題解決能力 및 社會生活에 基本이 되는 德性을 涵養케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2) 通信教育

通信高·大學生을 對象으로 教育의 機會를 보다 擴大하며 學習意慾을 充足시킴으로써 通信教育의 效率性을 높이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3) 就學前 兒童教育

就學前 兒童의 知的·社會的·情緒的 發達을 助長하며 社會人으로서의 健全한 性格形成의 基礎를 닦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4) 敎員 教育

現職 敎員들에게 專門職 遂行의 效率性을 높이는 데 必要한 새로운 教育理論, 教育技術 및 教育問題에 關한 理解를 提高케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나) 社會教育放送

社會教育은 學校外 教育으로서 一般 成人을 主對象으로 한다.

##### (1) 外國語 教育

英語, 獨語, 佛語, 西班牙語, 等の 外國語 教育을 通하여 國際時代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2) 職業技術教育

勤勞青少年들에게 技術의 理論과 實際를 理解시키며, 有用한 技術을 生産에 活用할 수 있게 하여 技術立國의 土진을 닦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3) 農漁村教育

農漁民들에게 새로운 情報과 技術을 提供하여 生産能率을 倍加케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4) 文化·藝術教育

우리 固有의 文化藝術은 勿論 海外 文化·藝術을 紹介하여 國民의 情緒生活에 도움을 주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5) 國民精神教育

民族主體意識을 高揚하며, 우리 民族이 當面하고 있는 課題를 올바르게 認識케 하고, 그 解決에 積極的인 姿勢로 臨하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라. 教育放送의 時間帶 및 放送量

教育放送 審議委員會 결정과 國家的인 政策에 따라 可變性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初·中學校의 學校教育放送은 낮 時間 放映이 바람직하나 電力事情과 現場學校의 受像機 普及 未洽으로 實現性이 稀薄하며 따라서 當分間은 저녁放送爲主가 될 것 같다. 放送量은 開局 初年度인 81년에는 學校教育 5時間 30分, 社會教育 2時間 30分程度(8時間)로 豫想되며 段階的으로 時間量을 늘려 最終年度(85年度頃)에는 18時間의 全日放送으로 擴大시킬 豫定이다.

## 3. 教育放送의 展望

앞에서 記述한 教育放送計劃 自體가 決定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展望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今年 11月 中에는 教育放送 審議委員會가 開催될 豫定이므로 81年度의 教育放送 靑寫眞은 곧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教育放送의 展望은 豫見되는 問題點을 살펴보는 것으로 代身하고자 한다.

### 가. 制作機關과 送出機關의 相異에서 오는 問題點

現在 放送中인 各種 教育放送프로그램(TV 高校教育放送, 라디오 學校放送, 放送通信 高等學校放送)은 制作은, 韓國教育開發院, 送出은 KBS, MBC, CBS이기 때문에 制作側과 送出側間에 크고 작은 責任問題로부터 事故處理問題, 電波料是非等 磨擦이 豫想되므로 프로그램 制作과 送出은 教育放送 專擔機關에서 함께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나. 受像機 普及問題

一線學校에는 아직 受信準備가 되어있지 않아 受像機의 普及問題가 크게 擡頭된다. 이의 解決을 爲하여는 凡國民的인 受像機 普及運動의 展開와 學級經費에서의 年次的인 普及이 要望된다.

### 다. 難視聽 地域問題

81年初 開局豫定인 UHF·TV의 可視聽地域인 人口比 67%程度로 알려져 있어 視聽惠澤與否로 論難이 豫想된다. (現 KBS의 VHF·TV 채널은 人口費 95%가 可視聽地域임) 특히 82年度부터 實施豫定인 放送通信教育에의 TV 媒體活用問題는 慎重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의 解決은 早速한 時日內의 集中的인 投資가 있어야 겠다.

### 라. 制作施設 擴充問題

向後 5年以內에 終日放送(約 18時間)을 實施하려면 이에 따른 制作施設의 擴充이 不可避하다. 現在의 스튜디오 2個로는 도저히 堪當할 수가 없으므로 段階的으로라도 擴充을 하여야 한다.

### 마. 教育放送從事者의 處遇問題

現 韓國教育開發院의 放送從事者의 處遇가 他 放送機關 從事者 水準에 미치지 못하여 離職現象이 두드러지므로 最少限 KBS水準으로 引上되어야 한다.

(23페이지에 계속)

# 西 獨 의 入 試 制 度

金 永 哲

〈教育政策研究 4室長〉

## I. 序

독일 연방공화국 내에서의 교육은 各州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문교부가 없고, 각 州間에 통일된 敎育政策도 없다. 이처럼 교육정책이 주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地方統制가 강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독일에서 주마다 서로 다른 교육제도가 발전하게 된 이유를 첫째로는 주나름의 문화적 봉건주의(cultural federalism)가 너무 강했고, 둘째로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복잡성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독 내 11개 州間에는에는 문교장관 연합회의를 설치하여 교육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회의결과로 나온 합의 사항 중의 하나인 1964년의 함부르크 합의(Hamburger Abkommen)에는 모든 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제도를 지향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주의 자율성은 신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II. 敎育制度

독일의 근대교육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독일제국하에서 시작하여(1870~1919년), Weimar 공화국(1918~1933년), 나치 정부(1933~1945년)를 거쳐서 오늘의 독일 교육제도는 제 2차대전 후(1945년)에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발전된 독일 교육제도는 전통적으로 人文課程과 職業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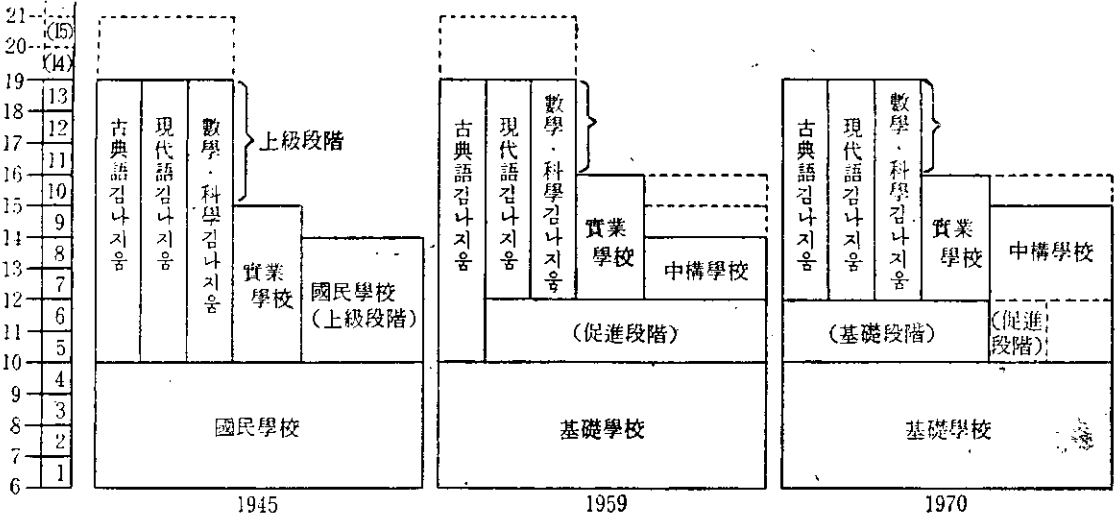
程으로 엄격히 구분되었고, 기초교육 이후의 중등교육은 三元制(tripartite system) 교육제도로 유지되어 왔다.

1945년 당시에 서독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초등교육으로는 4년제의 國民學校(Volksschule)가 있었고(Berlin등은 6년임). 중등교육으로는 古典語, 現代語 및 數學·自然科學분야로 세분되는 9년제(이중 위에 3년간은 上級段階임)의 김나지움(Gymnasium), 6년제의 實業學校(Realschule)와 4년제의 上級段階 國民學校가 있었다. 당시 교육제도에서 義務敎育年限은 8년간이었고 8년간의 상급단계 국민학교를 이수한 사람은 도제교육이나 시간제 직업교육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나지움에서는 留級制度로 인해 2년간 수연년한이 더 연장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독일교육제도는 국민학교 4년 과정을 마치는 10세까지의 학생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진로를 조기선별한다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연방정부는 1959년에 Rahmenplan을 만들어 기초교육위에 중등교육에서 2년간의 촉진단계(Förderstufe)를 두어 학생의 진로 결정을 10세 대신에 12세로 연장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 안은 고전어 김나지움(Studienschule)을 제외한 모든 중등 학교에 적용되었다. 이 촉진단계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진단해 보는 관찰시기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이 당시 의무교육 연한도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되었다. 그리고 국민학교(Volksschule) 명칭도 기초학교(Grundschule)로 바뀌고, 이에 따라 상급단계 국민학교도 중학교(Hauptschule)로 바뀌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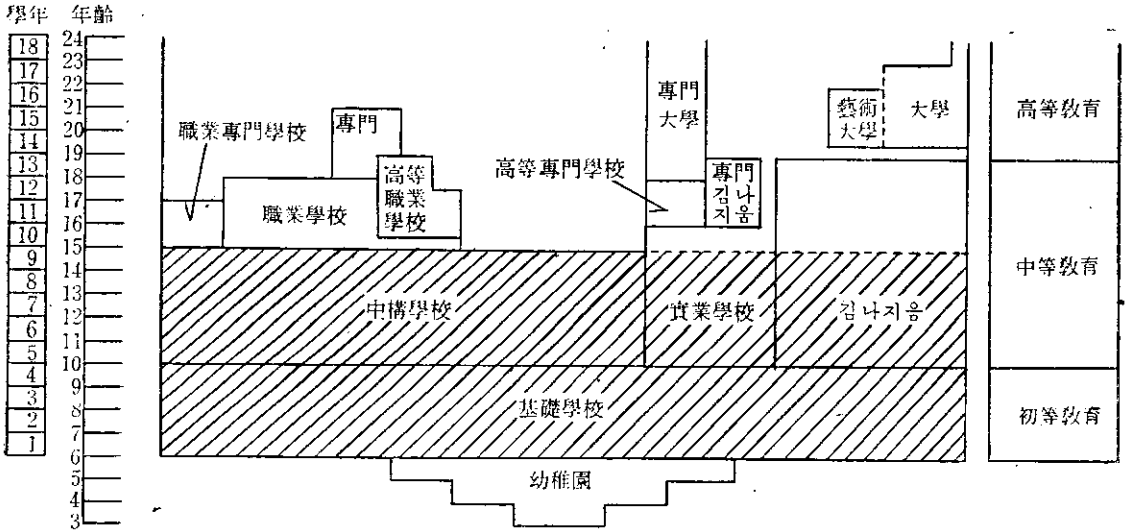
西獨의 初·中等學校 制度 變遷



구학교, 실업학교 및 김나지움으로 구분되는三元制 중등교육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학생과 사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중등학교 교육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統合學校(Gesamtschule)를 설치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밟고 정착된 현행 서독 교육제도를 학교 단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西獨의 現行學制



1. 初等教育：基礎學校(Grundschulen)

서독에서 6세가 된 모든 아동은 4년과정의 기초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Berlin Hamburg, Bremen 지역의 기초학교 수업연한은 6년임). 기초학교의 목적은 아동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독일어, 수학, 사회, 역사 등의 기본적인 모든 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케 하고, 주당 수업시간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20~30시간 정도이다.



## 2. 中等教育

기초학교를 마치면 중등교육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중구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및 統合學校(Gesdmtschole) 등이 있다.

### (1) 중구학교(Hauptschule)

중구학교는 과거의 국민학교 상급단계가 바뀐 것으로 일인적으로 5~9학년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州에서는 10학년까지의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학교가 6년간인 Berlin 등의 일부지역에서는 7~9년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중구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졸업자들은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런 경우 계속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적어도 3년 이상은 시간제 직업학교(Berufsschule)에 다니게 되어 있다(시간제 직업학교의 주당수업시간은 12시간 정도임). 그러므로 서독의 의무교육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지만 시간제의 직업교육까지 합하면 12년이 되는 셈이다.

### (2) 實業學校(Reaschule)

실업학교는 중구학교와 김나지움의 중간형태 학교로, 수업연한은 5~10학년간이다(Berlin 등의 지역에서는 학년간임). 실업학교는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기능을 가르키게 된다. 실업학교 졸업 후에는 中間教育履修證(mittlere reife)을 받게 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실습훈련을 받은 후 산업계분야의 중견 직업인으로 종사하게 된다. 또한 계속 교육을 원하는 졸업생은 고등직업학교 등에 진학할 수도 있고, 유능한 졸업생은 김나지움에 진학하여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 (3) 김나지움(Gymnasium)

김나지움은 인문계 중·고등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수업연한은 5~13학년간이고(Berlin 등의 지역에서는 7~13학년간임), 졸업연도에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격을 갖는 최종졸업시험(Reifeprüfung Abiturprüfung)을 치루게 된다.

김나지움의 전통적 학교 형태로는 고전어 김나지움(atsprachliches Gymnasium), 현대어 김나지움(neuspralchliches Gymnasium) 및 수학/자연과학 김나지움(mathematischnafurwissenscha-

ftliches Gymnasium) 등이 있고, 이외에도 사회과학, 경제학, 공학, 농학, 음악, 가정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김나지움도 있다. 그리고 7학년과정을 마친 중구학교 학생과 실업학교 및 직업학교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김나지움 特別課程(Qufbauformen)도 있고, 김나지움 상급과정을 재편성하는 정책에 따라 취업자들의 abifur 시험과 대학진학준비를 위해서 3년과정으로 설치한 야간 김나지움(Abendgymnasium)도 있다.

그러나 김나지움 전체 학생의 80~90%는 전통적인 세 가지 형태 김의나지움에 재학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수학/자연과학 김나지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Baden-Wurttemberg 州의 경우, 전체 김나지움 학생의 66%가 수학/자연과학 김나지움에 재학하고 있으며, 10% 학생이 고전어 김나지움에, 그리고 23% 학생이 현대어 김나지움에 재학하고 있다.

### (4) 統合學校(Gesamtschufe)

학생의 早期 進路選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통합학교이다. 현재 서독에는 200개교 이상의 통합학교가 설치되어 실험되고 있으며, 수업연한은 5~9학년간(일부지역에서는 5~10학년간임)이며, 수업내용은 전통적인 세 가지 학교들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통합학교 교사자격도 중구학교 실업학교 및 김나지움의 교사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게 하고 있다.

## 3. 職業教育

서독에는 이상의 전통적인 중등학교 제도 외에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학교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직업교육기관은 대개 후기 중등교육에 해당하여, 이런 종류의 학교로는 職業學校(Berufsschule), 職業專問學校(Berufsfachschule) 高等職業學校(Berufsaufbauschule), 高等專問學校(Fachoberschule) 및 專問學校(Fachschule) 등이 있다.

職業學校는 중등학교의 한 형태로 時間制 職業教育機關이다. 이 학교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중구학교 또는 기타 인문계 교육기관을 마친 취업자들이 다니게 된다. 이 학교

서독초·중학교 학생수(1972-'76)

(단위 : 1000명)

유 형	1972	1974	1976	1977
기초 학교(1-4학년)	4,165	4,060	3,727	3,504
전기 중등(5-10)				
중 구 학 교	2,327(51.3)	2,227(47.3)	2,272(45.6)	2,212(43.9)
실 과 학 교	1,006(22.2)	1,137(24.1)	1,259(25.3)	1,327(26.3)
검 나 지 음 I	1,208(26.6)	1,352(28.7)	1,457(29.3)	1,507(29.9)
계	4,541	4,716	4,988	5,046
후기 중등(11-13)				
검 나 지 음 II	398(47.4)	478(48.9)	524(50.8)	531(50.9)
기 초 직 업 훈 련	7 (0.9)	20 (2.1)	47 (4.6)	63 (6.1)
고 등 직 업 학 교	33 (4.0)	30 (3.1)	22 (2.2)	17 (1.7)
고 등 전 문 학 교	83 (9.9)	86 (8.8)	79 (7.7)	71 (6.8)
직 업 전 문 학 교	206(24.5)	257(26.3)	276(26.8)	290(27.8)
전 문 학 교	114(13.6)	107(11.0)	85 (8.3)	72 (6.9)
계	842	978	1,033	1,045
후기 중등(시간제)				
직 업 학 교	1,617	1,633	1,581	1,636
산 학 협 동 학 교	96	159	206	223
특 수 학 교	364	385	402	401
총 계	7,459	7,871	8,210	8,451

\* ( )안은 해당 학교급의 백분비(%)임.

의 목적은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일반교양과 전문지식을 숙달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체 수업시간의 약 40% 정도는 독일어, 공민, 경제, 종교 등의 인문계 과목이다. 이 학교를 수료하게 되면 시험없이 職業教育修了證(Facharbeiter brief)을 받게 되고, 졸업자들은 이 수료증으로 고급직업훈련과정인 專門學校(Fachschulen)에 진학할 수 있다.

職業專門學校는 정시제 직업교육기관으로 일반 교양을 포함하여 전문지식을 숙달시키기 위한 기관이다.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지만 중구학교나 실업학교를 이수해야 한다. 직업전문학교에는 상업학교를 포함해 보모 및 직업학교 훈련교사 등을 양성하는 학교도 있다. 직업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최소한 1년 이상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전문학교 과정이 끝나면 종합시험을 거쳐서 졸업을 하게 된다.

高等職業學校의 입학요건은 직업학교보다 상급수준을 다루게 된다. 고등직업학교에는 상업, 공업, 농업 등의 분야가 있으며, 한 프로그램은 최저 13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高等專門學校는 실업학교를 마치거나 이와 유사한 학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11학년과 12학년 과정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기술을 가르치며 (11학년 과정에서 실무훈련을 받고, 12학년 과정에서 교양교과 및 직업관련교과를 이수),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專門學校는 일반교양과 고급과정의 직업훈련을 시키는 학교로 공업과 농업 분야 등의 중간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수업연한은 공업전문학교와 상업전문학교가 4년 6개월이고, 농업전문학교는 2년 6개월 등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 4. 高等教育

독일의 대학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386년에 설립된 Heidelberg 대학을 위시하여 몇몇 다른 대학도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독의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大學(Universität), 師範大學(Pädagogische Hochschule), 藝術大學(Kunsthochschule) 및 音樂大學(musikhochschule)과 최근에 설치된 專門大學(Fachhochschule)과 統合大學(Gesamthochschule) 등이 있다.

전통적인 대학의 이념에 따르면 대학은 순수한 학문연구의장이 되어야 하고 직업준비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이념도 교육의 기회균등과 고등교육의 보편화 추세가 대두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1950년에는 적령 인구의 6%만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현재는 2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에 비해 역사가 훨씬 짧은 專門大學(Fachhochschule)은 학문적 理論을 기간으로 하여 실무적 經驗을 쌓게 하여 졸업과 동시에 직업을 갖도록 하고 졸업 후에는 대학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최근 일부 州에서는 기존대학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대학체제 내의 모든 기관들이 상호보완·협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統合大學(Gesamthochschule)이 설치되고, 일부 기존의 고등교육기관도 이 통합대학에 흡수되기도 했다. 이러한 통합대학 중 특이한 학교로는 통신과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通信大學(Fernuniversität)이 있다. 1976년에 개설된 이 대학에는 1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 3. 入試制度

서독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게는 대학입학을 위한 일반자격과 전문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 등이 있다.

#### 1. 大學入試資格

서독에서의 대학입학은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김나지움 상급과정의 내신 성적과 김나지움수로 시험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대학입학자격은 김나지움의 13학년과정을 마친 후 김나지움 수료시험(Reifeprüfung/Abiturprüfung)에 합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大學入學一般資格證(Zeugnis der allgemeinen Hochschulreife)을 얻게 되면 어떤 분야의 대학도 입학이 허용된다. 단 예능계대학은 예능실기증명이 추가로 요구되고, 전문대학의 경우는 실무훈련 및 경험이 요구되기도 한다.

abitur로 일컬어지는 김나지움 수료시험은 필답시험과 구두시험으로 구성되고, 자연과학 분야와 예·체능계에서는 實技試驗이 추가로 부과된다. 필답시험 과목은 州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필수과목은 古典語 김나지움에서는 독일, 수학, 라틴어, 희랍어를 치루고 現代語 김나지움에서는 독일, 수학 및 현대어 2과목(또는 현대어와 고전어 각각 한 과목)을 치루고, 수학, 자연과학 김나지움에서는 독일, 수학, 현대어 및 물리를 치룬다.

시험문제는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출제하게 되며 考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시험결과는 고사위원회가 임명한 채점위원회에 의해서 채점되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교과담당교사와 타학교 교사가 채점하고, 이 두 교사의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만 제3의 채점자를 선정하여 평가하게 한다. 구두시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첫째는 김나지움 교과성적과 필답시험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에 최종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둘째는 필답고사가 없는 화학, 생물 등의 교과목을 보충해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大學入學一般資格과는 별도로 대학진학시 대학의 특정분야로 제한하는 자격제도(Fachgebundene Hochschulreife)가 있는데, 이처럼 대학진학시 특정분야만을 지정하여 수여하는 자격은 김나지움의 졸업전 3년간에 제2외국어 대신에 선택하는 농업 및 기타 기술계교과를

이수하고 해당과목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수여하고, 이처럼 학문분야를 제한하는 자격은 제 2의국어 보충시험을 통해서 일반자격으로 대치될 수 있다.

## 2. 專門大學入學資格

專門大學入學資格(Fachhoch schul reife)은 고등전문학교에서 12학년 과정을 마치면서 최종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얻게 되며, 이 자격으로 專門大學(Fach hoch schule, Polytechnic)에 입학할 수 있다.

이 시험은 필답시험과 구두시험으로 구성되고 필답시험에서는 독어, 수학, 외국어 및 고등전문학교에서 이수한 영역 중 한 과목을 치루고, 구두시험에서는 필답시험에서 치룬 전과목과 본인의 진로(전공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을 치룬다.

## IV. 結

독일의 교육제도는 전통적으로 중등교육은 人文敎育과 職業敎育을 구분하는 三元制度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기회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早期에 學生의 進路를 결정하는 독일의 復線制 學制

에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개선안이 전기 중등학교 과정에서의 促進段階 설치 및 統合學校(大學) 운영 등이다.

한편 高等教育 需要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대학입학 자격시험제도 등에도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종래까지는 Abitur 합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입학이 보장되어 왔으나, 최근 Abitur 합격자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진학희망이 몰리는 일부학과(치·외과, 화학, 생물, 약학, 심리학등)에서는 Abitur 합격자까지도 제한하여 입학시키고 있다. 최근 이처럼 증가하는 대학진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교부 장관 연락회의에서는 大學施設 擴充 및 施設活用 極大化, 敎授要員 充員,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通信講座 開設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와함께 대학입학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지원자가 몰리는 학과의 경우 이를 대학별로 배분하여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學生需要를 충족시키기에 大學의 敎育機會는 너무 부족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Abitur도 시험성적이 州마다 學校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성적의 신뢰성 문제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55페이지에서)

## VI. 結 語

私的 構念理論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lbert Ellis의 合理的 情意理論(Rational-Emotive Theory)과 함께 20세기의 후반기에 발전된 認知的 카운슬링 理論의 대표적인 것이다. 종래의 성격이론과 카운슬링이론이 人間行動의 認知的 側面을 소홀히 해왔던 것을 보완하고, 또 思考와 概念의 敎育에 의한 人間行動變化라는 측면의 연구와 응용을 활성화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Kelly의 견해는 우리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동안 소수의 피상담자들에게 Kelly의 이론을 적용시켜 보았다. 좀더 많은 實驗과

探索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그의 접근은 카운슬링과 정신치료 영역에는 새로운 활력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더 실험을 해보고 좀더 개선된 건설적 私的 構念理論을 전개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Kelly의 私的 構念理論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읽기 원하는 분들에게 다음의 책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Kelly, G.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Vols. 1 & 2. New York : Norton, 1955

Kelly, G. A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Norton, 1963

Bannister, D. & Fransella, F. Inquiring man, Baltimore : Penguin Books; 1971

Adams-Webber, J.R. Personal construct theory New York : Wiley & sons, 1979

# 教育課程 國際比較 研究\*

林 在 潤  
姜 善 甫

(本院 研究員)

## I. 研究 必要性 및 目的

교육과 社會變化, 그리고 改革의 三者는 그 性格上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社會變化에 대한 오늘날의 世界的인 모든 論議는 量的인 教育擴張만으로는 教育이 이에 대해 어떠한 解決策도 제시할 수 없음을 示唆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世界各國으로 하여금 過去와 現在의 教育을 檢討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自國의 教育制度를 他國의 教育制度和 比較하게 함으로써 教育改革의 必要性을 추측하였다.

이것은 國家發展에 있어서 教育의 役割에 대한 인식이 高潮됨에 따라 教育의 改善이 國家의 社會·經濟的 發達에 本質的 要素로서, 그 重要性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社會變化의 速度와 內容이 교육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教育樣式이 變化되어야 한다는 教育改革에 관한 論議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比較教育의 役割이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同時에 國家間의 相互依存度(mutual interdependency)가 증가되고, 또 國家마다 長期教育計劃을 실시하는데 있어 比較教育의 觀點에서 그 實現이 可能해짐에 따라 自國의 教育制度 改善에 있어 精確한 現況診斷과 아울러 比較教育學的인 考察을 土臺로 하여 改善의 準據와 方向을 摸索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比較教育研究의 意義에 따라 國際比較研究의 體系化와 學問的 國際交流의 증진에 이바지 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 初·中等學校 教育課程試案作成과 그 運營, 그리고 教科書 開發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本研究은 다음과 같은 研究目的과 그 영역을 설정하였다.

첫째, 각국의 初·中等學校 教育課程 開發과 運營에 관련된 다음 영역들을 分析한다.

1) 각국의 基本學制와 教育에 관련된 基本的인 動向은 무엇인가?

2) 一般教育 目標을 포함한 初·中等 各급 학교의 教育目標은 무엇인가?

3) 教育課程 開發과 改編을 담당하고 있는 機關, 그 節次 및 새 教育과정의 보급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教科書의 執筆과 發行, 教科書 採擇과 使用 범위는 무엇인가?

5) 教授—學習資料와 教育放送은 어떠한가?

6) 教科目的 종류와 이에 따른 時間配當은 무엇인가?

7) 年間 및 一日 學校 프로그램 및 학급조직과 운영은 어떠한가?

8) 教師養成制度和 教師資格 및 教職員 構成은 어떠한가?

둘째, 이들 영역에 대한 각국의 현상을 종합 比較하여 教育課程 開發과 그 運營에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한다.

## II. 研究方法

### 1. 文獻研究

各種 國內外 文獻을 계속적으로 蒐集·分析하여 참고하였다. 따라서 國內外의 各種資料를 통

\* 본 소론은 1979년 본원 기초연구과제인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 記述的 方法(descriptive method)도 併行되었다.

한편 比較研究를 위한 方法設定은 주로 베레디(Beredy)의 比較研究方法에 준해 이루어졌다. 즉 베레디는 ① 제 1 단계 : 叙述(Description : pedagogical data only) ② 제 2 단계 : 解釋(Interpretation: evaluation of stage 1 data in terms of other knowledge) ③ 제 3 단계 : 並置(Juxtaposition: establish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④ 제 4 단계 : 比較 (Comparison: simultaneous comparison)의 四段階 比較分析 모델을 제시하였는데<sup>1)</sup> 본 研究에서는 연구수행의 편의상 베레디의 모델을 部分的으로 援用하였다.

## 2. 質問紙(Questionnaire)

各種 정보 및 자료를 蒐集·分析하기 위해 본 研究에서 主要道具(chief tool)로 사용된 것은 質問紙이다. 이에 따라 開發된 質問紙는 三次에 걸쳐 24個國 73個處 관련기관에 發送되었으나 各種資料 및 質問答紙의 회수상황과 國內에서의 資料蒐集과 관련하여 分析可能한 國家를 12個國으로 축소 확정하였다. (일본, 자유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서독, 스웨덴)

## 3. 인터뷰 및 協議會

各種 資料의 蒐集, 그리고 수집된 各種 情報와 資料處理上의 確認을 위해 相關國 大使館이나 文化院 專門家들 및 해당분야 敎育學者들과 인터뷰를 가졌으며, 동시에 數次에 걸쳐 院內 協議會를 통하여 中間檢討 및 評價를 계속적으로 실시했다.

## 4. 國家別 分析 및 綜合比較分析

各國으로부터 회수된 質問紙를 비롯하여 國內 外의 各種 1次資料, 2次資料 및 補助資料를 영역에 따라 國家別로 1次的으로 分析하였다.

國家別 分析이 完了된 후 12個國 전체의 領域別 綜合分析을 통하여 各國家間의 敎育構造의 相異性和 相似性を 밝혔으며 同時に 領域別로 一般的인 敎育의 趨勢를 分析·記述하였다. 綜合比較分析時에는 本 研究의 目的上 水平比較法(horizontal comparison)을 使用하였다.

## Ⅲ. 研究制限點

本稿에서는 國家別 分析內容을 省略하고, 領域別 綜合分析만 提示하였다. 한편 本 연구는 다음과 같은 制限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한 國家의 敎育狀況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各種 背景要因의 分析이 제외된 점,

둘째, 광범위한 研究領域으로 인하여 치밀하고 체계적인 研究를 못하고 全般的인 소개를 中心으로 하였기 때문에 全般的인 것은 잘 파악할 수 있으나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

셋째, 敎育課程 問題의 核心的인 部分인 敎育課程內容과 敎科書 內容 分析이 제외된 점,

넷째로, 本 研究員들이 各 分析對相國에 직접적으로 거주하거나 방문을 하여서 觀察한 經驗이 없이 各種資料에만 依存했기 때문에 敎育現象에 있어서 表面的인 研究에 치우쳤을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等이다.

한편 資料蒐集의 未備에서 비롯되는 內容上의 均衡과괴, 그리고 敎育課程 開發 및 比較敎育에 關聯된 國內資料의 未備 等도 本 研究에 큰 부담을 주었다.

## Ⅳ. 綜合 比較分析

### 1. 一般的 敎育背景

일반적으로 世界 各國은 各 나라마다 고유한 文化樣式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各國의 敎育制度도 獨특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

1) Phillip E. Jones, *Comparative Education: Purpose and Method*, Queensland: Univ. of Queensland Press, 1973, p.88.

한 바탕 위에서, 최근에 들어 國家間的 빈번한 왕래와 各種 國際交流活動에 의해 自國의 教育 制度를 世界 各國의 일반적 추세에 발맞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同時에 公教育의 발달로 인해 점차로 國家間的 教育制度의 격차도 감소되어가고 있다. 즉 국가마다 전통적으로 상이한 文化的 背景에서 비롯된 教育제도의 特異性이 民主的 社會體制로의 轉移와 함께 教育內容面이나 形式面에 있어서 國家間的 理解가 광복할만큼 증대되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復線型 學制를 고수해 왔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점차로 민주적인 單線型의 學制를 實現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등학교에 있어서 綜合制 學校를 설립함으로써 학교 제도의 民主化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單線化를 위한 制度的 變化로서 各國마다 의무교육을 연장 실시하고 있으며 同時에 學校間的 接속관계를 改善하기 위해 努力할 뿐만 아니라 後期 中等教育의 綜合化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義務教育의 확장방법으로는 初等學校를 中心으로 그 以前으로 확장하는 方法(즉 학령전 교육으로의 확장)과 그 以後로 확장하는 方法의 두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 西獨 등의 경우가 後者에 속하며 英國의 경우는 前者, 後者의 경우에 모두 속한다.

이미 美國, 프랑스 등의 先進國에서는 학령전의 많은 兒童들이 各國 教育機關에 就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무교육의 年限이 學齡前으로 확장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早期教育의 경향과 그 重要性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教育目的

教育의 根本原理로 삼아야 할 價値體制는 各 나라의 文化的 背景에 따라서 상이하며 時代的 狀況에 따라서 自國內에서도 變하게 된다. 그러므로 變化하는 社會와 教育目標은 不可分의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教育의 目標가 그 나라의 全般的인 社會體制의 各種 要求分析(needs assessment)을 거친 후에 形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各國의 教育目標은 다양하게 기술되

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국가에서는 國家觀이나 國家發展에 관련된 德目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유럽이나 북미지역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個性尊重, 自我實現 및 全人的 人間의 形成, 그리고 意思傳達 및 원만한 對人關係 등 대상의 범위가 國家的 次元보다는 個人的 次元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全體的인 多樣性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教育目標을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① 퍼어낼러티 개발을 위한 基本的인 知識, 態度 및 技能의 개발, ② 道德的, 審美的 및 精神的 價値 等の 啓發, ③ 원만한 人間關係, ④ 市民的 資質 혹은 市民精神의 啓發, ⑤ 全人的 人間의 形成, ⑥ 自我實現을 위한 創造力과 비판적 思考能力의 啓發, ⑦ 科學的 知識, 態度 및 技能의 啓發, ⑧ 身體와 運動機能의 啓發, ⑨ 意思傳達 能力의 啓發, ⑩ 職業의 能力에 대한 준비 등으로 教育目標의 一般의 추세를 大別할 수 있다.

새로운 知識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급변하는 社會 속에서 낡은 知識은 점차로 대체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의 폭발과 관련하여 더 많은 教科內容의 신중한 選定과 새로운 敎授 學習方法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變化하는 社會 속에서 社會의 一部分인 학교도 變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과 관련하여 教育目的의 범위도 점차로 넓어지면서 變化하고 있다는 事實에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 3. 教育課程 開發 및 改定

### 1) 擔當機關

아시아 지역의 大部分의 國家들은 教育課程開發 및 改定을 國家的 次元에서 주로 文敎部가 擔當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유럽이나 北美 等地의 국가들은 國家的 次元에서 州 水準, 地域水準, 혹은 심지어 學校水準까지 그 規模가 축소되는 소위 教育과정 개발에 있어서의 地方分權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教育課程 開發이란 항상 中央集權의 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性質의 것임을 보이며 同時에 教育과정에 관련된 問題點들

이 오히려 現場에서 더 쉽게 발견되며 그 현장 사정에 맞게 개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항상 중앙정부에서 개발되어 각 지방이나 학교에 보급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리 학교나 지방수준에서도 自律性 속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逆順으로 그 보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 教育課程 開發節次

教育課程 開發作業은 국가별 패턴에 의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관련 專門委員會의 構成과 이들의 참여는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다양한 人事들을 포함하는 各種委員會를 구성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하게 되는 民主的 過程 및 專門的 過程을 강조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점차로 확대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편, 教育課程의 開發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문교부 장관, 教育學者, 教育課程 專門家 및 관련분야의 專門家, 教科專門家, 行政家(장학관 혹은 정부관리), 校長, 教師, 教育研究機關의 研究員, 地域社會 人事, 學父兄, 그리고 學生 等이다.

各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教育課程의 開發節次를 간략히 정리하면 대체로 ① 提唱→② 委員會 構成→③ 檢討·調整→④ 草案作成→⑤ 現場實驗→⑥ 檢討評價 및 修正→⑦ 草案의 修正案→⑧ 再檢討 및 評價→⑨ 確定→⑩ 承認→⑪ 公布→⑫ 繼續的 評價 다시 ①번으로 feed back되는 過程으로 요약된다.

## 3) 새 教育課程의 普及

教育課程의 普及方法은 國家마다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은 普及(dissemination)의 개념이 점차 變化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즉 종래의 보급개념은 '傳達에 그치고 말았으나 이제는 전달 후의 침투효과 및 그 효율성까지 고려하게 됨으로써 보급 그 자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되어 보급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普及方法은, 教科書나 教育課程 관련자료의 보급에 의할 뿐 아니라 實

驗學校나 教師養成機關을 통한 方法이 있으며 혹은 教師協會나 教師協議會 等 각종 教師團體를 통하여 研修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때 教育專門家, 獎學士 등은 校內외의 연수, 講演會 및 정기 간행물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開發된 教育課程의 生命은 그 보급의 成敗에 달려있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보급의 중요성에 따른 그 現代的 概念의 變遷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보급을 위한 研究·開發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4) 教育課程 評價

大部分의 國家들은 교육과정 평가 전담기관이나 體系的인 評價 프로그램이 없으며 대신 非體系的인 教育課程 評價(informal curriculum evaluation)에 의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것을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質問紙나 인터뷰를 통해 教育課程, 教科書 및 各種資料에 대한 견해나 제안을 수집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評價하는 경우(大部分의 國家)와,

둘째, 教育課程 研究家나 教科 專門家 그리고 관련분야의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特別委員會에 의해 교육과정이 검토·평가되는 경우(자유중국, 뉴질랜드 等)가 있으며,

셋째, 교육과정의 適合性 및 實用性을 主務官廳의 감독하에 實驗學校에서 실시하는 등 各種方法을 통해 평가하기도 한다. (일본, 영국, 태국, 자유중국, 서독,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외에 교육과정을 評價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學生評價를 하는 경우도 있다(일본, 태국, 호주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科學的인 研究方法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평가에 관련된 體系的인 프로그램과 평가준거 등이 다각적으로 研究·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 4. 教科書

教科書 執筆의 경우 日本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기관이 지정하는 個人이나 機關에 의해 교과서가 집필되나, 유럽



동지의 국가에서는 모두 정부기관과는 無關한 一般個人에 의해 집필되고 있다.

집필된 教科書는 대부분의 國家에서 보통 文敎部長官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전혀 어떤 合法的인 승인을 받지 않는 나라도 있다. 後者의 경우에 속하는 나라들로서는 英國,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있는데 公式인 승인이 없는 대신에 各學校에서 교재를 채택할 때 엄격한 規準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最終 承認을 받은 教科書는 自由中國을 제외하고는 모두 民間出版業者에 의해 發行되고 있다.

教科書 배부방법에 있어서 초등학교 수준 혹은 의무교육기간은 거의 모든 나라가 無償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中等學校 水準에서는 有償支給 無償支給·보조금지급, 그리고 무상대여 등 國家마다 相異性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집차로 中等學校 水準까지 無償으로 지급 또는 대여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教科書 採擇의 준거로서 大部分의 國家에서 ① 規定된 教科內容(syllabus)과의 일치도 ② 內容, 表現方法, 그리고 組織 등의 적합성 ③ 註釋(explanatory notes), 삽화(illustrations) 등의 적합성 ④ 인쇄, 紙質, 책의 크기, 價格 등에 대한 규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5. 教科目과 時間配當

초등학교 교과목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語文學, 數學, 社會, 自然, 體育, 音樂, 美術 등 전통적인 교과목을 채택하고 있다. 語文學의 경우는 물론 自國語의 말하기, 읽기, 쓰기, 文法 등이 그 주된 내용이며, 영국과 서독, 스웨덴 등에서는 일부 외국어를 이 단계에서부터 부여하고, 말레이시아는 多民族의 특성으로 말레이어 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을 각 학교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사회성 및 人性指導를 위한 道德科 외에 일본, 말레이시아, 서독, 스웨덴 등은 宗教科目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초기능과 全人敎育의 특징은 교과목과 그 시간배당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語文學과 數學科의 기초기능을 강

조하고 광범위한 예·체능학과나 단체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교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태국으로서 기초기능과 생활경험, 성격교육, 노작교육 등의 4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준에서 전통적인 教科科目을 채택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어 1~2과목을 정규과목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이 광범위해지고 직업교육, 단체활동, 특별활동 등이 강화되어져 있다. 자유중국의 경우는 보이스카웃 활동이 초·중단계에서부터 정규과목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선택과목이 다양해진만치 이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외국어, 직업기술교과, 예능과, 특별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교과목에 대한 시간배당은 語文學科가 20~3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기초과목으로서 數學 역시 이에 비견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實技工藝科나 職業科目이 점차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20~30%까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이들 국가의 교과목의 특성은 기초기능과 全人敎育 및 기능교육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6. 學校 프로그램

국가별 연간 시간계획은 아래의 <表-1>과 같다. <表-1>에서 종강일은 방학을 포함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學年度의 시작과 끝은 각 나라마다 그 전통과 형편에 따라 다르다. 西歐와 美洲의 學制는 學年度의 시작이 9월이 대부분이며, 日本은 4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말까지 계속됨으로서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學期 역시 각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授業日數는 日本의 240일에서부터 美國의 180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上級學年으로의 진급은 의무교육기간 동안

<表-1>

각국의 年間 時間計劃

(1978학년도 기준)

국가별	자유중국	일 본	말레이지아	태 국	영 국	서 독	프랑스	스웨덴	호 주	뉴질랜드	미 국	캐나다
학 년 력 (개강~ 종강)	8월 1일 ~ 익년 7월 말	4월 1일 ~ 익년 3월	1월 3일 ~ 11월 9일	5월 20일 ~ 익년 3월 26일	9월 ~ 익년 8월	9월 중 순~8월 말	9월 중 순~6월 10일	8월 21일 ~ 익년 6월 10일	2월 초순 ~ 12월 중순	1월 말 ~ 12월 중순	9월 초 ~ 익년 7월 중순	9월 초 ~ 익년 6월 말
학기수	2학기	3학기	3학기	2학기	3~4학 기			2학기	2~3학기	3학기	보통 3 학기	보통 2 학기
연간수업 일수	약 210일	약 240일	약 190일	약 200일	약 200일	약 230일	180~ 185일			초등 200 일, 중등 약 180일	195일 (Nova Scotia경 우)	

<表-2>

各國의 學生·教師·學級 構成比

비율	국가별	국가별										
		자유중국	일 본	말레이지아	태 국	영 국	서 독	프 랑 스	스웨 덴	뉴질랜드	캐 나 다	
교사 1인당 학 생 수	초등학교	33	25	33	22			24-40	13.1	24.4	18.1	
	중등학교	25.5	19.8	26	21			24-30	10.8	17.4		
1 학 급 당 학 생 수	초등학교	45	33.3	50	27	30	40	25-30	22.2	30.5	18.2	
	중등학교	50	38.7	45	39	25	25-40	35-40	21.2	5-35		
1 학 급 당 교 사 수	초등학교	1.16	0.9	1.2	1				1.7		1.1	
	중등학교	1.9	0.9	1.3	2				2.0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 自由中國이나 日本에서와 같이 총 수업일수의 50% 혹은 3분의 2 이상 미달일 경우 재 수강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지아는 9학년까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으로써 학생층이 원할 경우 자동진급토록 되어있다.

한편 각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 1학급당 학생수 1학급당 교사수는 <表-2>와 같다.

위의 表에서 英國의 경우는 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法的 基準을 밝힌 것이며, 캐나다는 Nova Scotia의 경우이다.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말레이지아 50명에서 뉴질랜드 5명까지 다양하며, 西歐國家들이 20~30명선에 머무르나 아시아 국가는 40~50명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 1인당 학생수나 1학급당 교사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7. 教 師

각국별 초·중등학교 교사 양성제도는 <表-3>과 같다.

<表-3>

各國別 初·中等學校 教師養成 制度

제도	국가별	국가별												
		자유중국	일 본	말레이지아	태 국	영 국	서 독	프 랑 스	호 주	뉴 질랜드	미 국	캐나다		
초등학교 교 사	주요양성기관	사범전과 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	초급대· 종합대	교육대학	사범 대학	사범학교	교육 대학	교육 대학	사범 대학	사범 대학		
	교육 기간	입학전	9년	12	11~13	12	13	13	12	9	12	12	11~12	
		입학후	5년	4	2	2	4	3	3	2	4	3	3	4
중등학교 교 사	주요양성기관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초급대· 종합대	종합대· 교육대	종합 대학	고등사범	사범 대학	사범 대학	사범 대학	사범 대학		
	교육 기간	입학전	12	12	11~13	12	16	13	13	12~14	12	12	12	11~12
		입학후	4	4	2~5	2	4	1	3	3~4	3~6	4	3	4~5

초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총 修業年數는 13~16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初級大學 水準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日本, 英國, 西獨, 美國, 캐나다 등은 4年制大學水準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敎育期間中 敎育實習期間 역시 자기 다르며, 自由中國의 1年에서부터 日本의 4週까지 있다. 졸업 후 修習過程은 말레이시아, 英國, 西獨, 美國 등이 채택하고 있다. 한편 中等學校의 경우는 初等學校에 비하여 평균 2년 이상의 敎育期間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학부에서 4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말레이시아는 中學校 교사의 경우 敎育大學에서, 高等學校 교사의 경우 大學校에서 각각 2년과 4~5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태국 역시 초급대학과 綜合大學에서 각각 2년, 혹은 4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英國은 16년까지의 綜合大學을 이수한 학생이 1년의 교사코스를 이수하거나 13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학생이 3년의 교육대학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西獨은 13년의 교육을 마친 학생이 종합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에서 3~4년의 교사코스를 마침으로써 교사지움이나 기타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 프랑스의 경우는 고등사범학교, 종합대학교, 기타 중등교사예비교육기관 등에서 3~6년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中等學校 교사 자격은 최소한 학사학위 수준까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大學院 過程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敎師養成敎育이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師範學校 수준에서 벗어나 그 교육기간이 연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敎師資格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中央政府나 州政府에서 부여하며, 혹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 이를 大學에서 관장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고등학교 교사에 한해서 이를 大學內에서 주관한다.

## V. 結 論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文明의 進步와 社會의 發展에 따라 自國民으로 하여금 최선의 평등한 敎育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함으로써 自我實現을 극대화하고, 敎育을 통한 國家·社會의 發展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關心이 敎育의 適切性을 높이기 위한 폭 넓은 敎育理念과 질 좋은 敎育內容 및 개방된 敎育體制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要求에 따라 각국은 바로 義務敎育期間의 연장, 學制의 單線型化, 綜合學校의 확충 등으로 발전하고, 敎育에 관한 각종의 社會的 決定에 있어서의 다방면의 폭 넓은 人事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敎育問題에 관한 限, 敎育專門家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社會的 責任과 關心의 증대를 표시한다.

사실상 오늘날 세계 각국의 敎育理念의 性格과 方向이 相異하고, 敎科內容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교육은 3R's를 포함한 기초기능을 강화하고 全人敎育을 지향하며, 技能敎育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은 現代社會의 文明發達에 따른 敎育의 역할이 보다 광범위해졌음을 의미한다.

國家·社會發展에 대한 敎育의 인식과 질 좋은 敎育을 위한 노력이 오늘날 敎育에 관련된 세계 각국의 추세라고 할 때, 敎育을 구성하는 각 영역들에 관한 발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敎育發展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共通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 Kelly의 私的 構念理論

朴 性 洙

(서울대 카운슬링)

## I. 私的 構念이란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 관찰과는 달리 심리학이 교육학에서 思考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 특히 性格이나 行動이 그 사람의 思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 理論이 체계화된 것은 美國을 중심으로 하여 일련의 심리학자들이 認知的 接近을 활발하게 시도한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격이론과 카운슬링 분야에서 발전된 심리학은 Ellis의 合理的 情意理論(Rational Emotive Theory)과 Kelly의 私的 構念理論(Personal Construct Theory)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다루겠다.

George A. Kelly (1905~1966)는 많은 행동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思考와 思想이 人間行動을 결정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독특한 성격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인간이 경험의 세계를 知覺하고, 解釋하고, 豫期하며 이 모든 認知的 過程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構念(construct)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면 構念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설명을 살펴보자.

사람이란 이 세계를 명백한 類型(patterns)이나 板型(templates)을 통해서 보고 있는 파이'보는 型'들이란 스스로가 創案한 것이며, 인간은 세상에 있는 여러가지 現實들에 이 型을 맞추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 型을 맞추어 만든다는

것은 언제나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보는 型'이 없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란 아무런 意味도 찾을 수 없는 未分化된 同質體로 보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세상을 보는 類型이나 板型을 私的 構念이라고 하고 있다. 이로 이루어 볼 때 構念이란 현실세계의 어떤 측면을 보고 어떤 意味를 창안하는 抽象化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이 추상화에 근거해서 후속하게 되는 事象을 개념화하거나 예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 세계에 있는 사실 그 자체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나름의 觀點에서 이를 보게 된다. 그 결과 동일한 사실에서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은 意味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構念한다(construe)는 것은 개인의 독특한 보는 눈을 의미하여 이는 私的 理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경험의 세계에서 되풀이 되는 어떤 것들 속에서 반복하여 판단하고 예기하는 내용의 主題를 私的 構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II. 私的 構念에 관련된 주요 命題들

우리들이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고 예기하는 것은 언제나 개선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私的 構念은 어떤 '結晶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는 觀點이나 어떤 意味의 解釋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觀點이나 解釋이 비록 훌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

한 것은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私的 構念은 언제나 좀더 建設的인 것으로 대체될 수 있고 또 우리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Kelly는 建設的 代案主義 (constructive alternativism)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적 대안주의의 입장은 모든 인간을 일종의 科學者로 보는 그의 입장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부단하게 변화되고 있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어떤 대답을 발견하게 되며, 또 다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추구하게 된다. 부단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학자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발견한 대답을 현실의 세계에 맞추어 보고 그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 점에서 모든 사람은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소극적 유기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험하면서 행동하는 과학자라고 Kelly는 주장한다.

Kelly는 私的 構念에 관하여 한개의 基本的 命題와 열 한 가지의 副次的 命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基本的 命題

人間過程(human process)은 인간이 事象을 豫期하는 바로 그 樣式에 의해서 心理的으로 方向이 決定된다.

### 副次的 命題

① 인간은 어떤 事象의 반복을 構念함으로써 그 事象을 豫期하게 된다.

② 인간은 어떤 事象에 대한 構念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差異點을 지니고 있다.

③ 인간은 事象의 예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각기 독특하게 여러 構念들 사이의 位階關係를 세울 수 있는 構念體制를 발달시킨다.

④ 인간의 構念體制는 유한한 수의 二分的 構念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인간은 구념체제의 발전과 정의를 명백하게 할 가능성이 더 크리라고 예견되는 二分化된 (dichotomized) 構念 가운데서 새로운 代案構念을 선택한다.

⑥ 어떤 構念이건간에 한 構念을 유한한 범위

내의 事象의 豫見에만 편리(convenient)하다. (따라서 모든 事象을 예견하기에 편리한 構念은 생각하기 힘들다)

⑦ 인간의 構念體制는 반복되는 事象을 계속해서 構念할 때 다양하게 변화된다.

⑧ 인간의 구념체제의 多樣性은 편리함(convenience)의 범위내에서 그 構念의 滲透性에 의해서 정해진다. (구념체제의 다양성은 그 구념의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여러 構念들이 상호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나에 따라서 결정된다.

⑨ 인간은 서로 양립할 수 없거나 대립적인 여러 가지 構念의 下位體制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⑩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構念을 활용하고 있으면 그 두 사람의 心理的 過程은 서로 비슷할 것이다.

⑪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構念過程에 대해서 構念한다면, 바로 그가 構念하고 있는 범위까지 그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과정에 있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Kelly의 기본 명제들을 딱딱한 대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다.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은 아마도 본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일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명제들에 입각해서 볼 때 인간의 不適應行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카운슬링이나 정신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 III. 行動病理의 說明

Kelly는 과학자가 이미 부인된 가설로 어떤 事象을 설명하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활용하는 어떤 構念이 계속해서 현실과 잘 맞추어 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구념을 활용하는 것을 병리적 행동이라고 한다. 어떤 權念이 事象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예견하는 데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때 그 사람은 부적응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부적절한 구념의 활용으로 인해 豫測하지도 못하게 되고

實驗도 엉망으로 되며 어떤 事象을 사전에 期待하지도 못하여 결과적으로 아무런 學習도 일어나지 힘든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異常心理의 소유자는 자신의 고통이 자기가 적용하고 있는 構念이 아닌 다른 人生의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 배우자, 그밖의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리기도 하며 비언어적인 依存의 構念을 활용하여 '行動化'(acting out)하게 되기도 한다. Kelly는 異常心理의 여러 측면을 私的 構念의 적용을 통해서 해석하는 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感情이나 情諸는 構念을 필요로 하는 내적 事象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構念자체가 언어로 정립되지 못하였거나 산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不安은 構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은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事象에 적용할 수 있는 構念을 창안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敵愾心은 자기의 豫期나 構念이 진실한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 그와 對立되는 증거가 있을 때 자기의 구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罪責感은 자신의 역할구조에 관한 構念에서 명백하고 이탈되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면 不適應行動이란 경험의 세계를 知覺하고 解釋하고 豫期하는 것을 不適當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의 특정한 症狀은 그 사람 자신의 후속하는 人生의 事象에 대해서 제기하는 質問일 수도 있다. '내 이 비참한 상태에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순종만 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단순히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파악한다면 이는 妄想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바로 그 환자에게는 병적인 역할관계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부적응 행동이란 따라서 경험의 세계에 대해서 質問을 하고 對答을 하되 현실적 세계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建設的 代案을 추구하지 않거나 效力을 상실한 물음과 대답만을 되풀이 하며 파괴적인 構念을 활

동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IV. 行動病理의 診斷

Kelly는 전통적인 精神異常의 分類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診斷은 치료의 계획이며 환자의 행동을 豫見하는 것이다.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모든 私的 構念을 포괄할 수 있는 專門的 構念體制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의 構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한 過程이 그 자신이 개발한 役割構念目錄檢査(Role Construct Repertory Test 또는 단순히 Rep Test라고 함)이다.

役割構念目錄檢査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예기하는 것에 관련된 構念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특히 治療者가 患者의 물리적 또는 인간적 환경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構念體制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한 診斷道具이다. 이 檢査에는 集團型과 個人型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검사절차에는 공통된 점이 있다.

검사자는 피검자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으리라고 상정되는 20 내지 30의 人間役割의 定義를 기록한 役割名稱一覽(Role-Title List)을 제시한다. 각각의 역할명칭에 기술된 것과 가장 일치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한다. 각 역할에 해당되는 이름을 人物(figures)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 검사자는 세 인물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어떤 중요한 점에서 같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두 사람과 다른가를 알도록 한다.

예를 들면, 누이 형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두 사람은 같고 다른 한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게 한다. 누이와 형은 '차분하다'고 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신경질적이다'고 대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활용된 構念은 '차분하다'대 '신경질적이다'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節次를 반복(대개 20회 내지 30회 정도)하여 피검

자가 다른 사람을 範疇化하고 辨別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私的 構念의 體制를 진단할 수 있다.

Kelly는 役割構念을 검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검사도 개발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카운슬링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 V. 行動變化의 實際

Kelly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에 관련된 私的 構念을 적용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카운슬링이나 성격의 교육은 보다 유용하고 좋은 構念體利를 발전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心理的 障礙란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私的 構念이 계속해서 그 妥當性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構念을 반복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운슬링이란 그 사람의 構念體制를 다시 構築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意味에서 카운슬링이란 構念의 再建이나 새로운 構築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力動的 心理學이나 自我心理學에서 洞察이라는 認知的 過程이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밀맥상통하며 또한 洞察의 개념을 더욱 명쾌하게 제시하고 바로 이 洞察의 측면에 대한 私的 構念을 발전시켜 그 理論을 정립하였다고 하겠다. 그는 카운슬링에 대해서 새로운 解釋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형태의 카운슬링 전략을 개발하였다.

Kelly가 주장한 카운슬링의 전략인 固定役割治療(fixed-role therapy)에서는 인간이란 스스로 무엇을 構念하느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카운슬러의 역할은 피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새로운 方式으로 知覺하고 構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새롭고 효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固定役割治療는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상담자에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간략하게 記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간략한 記述에 상세한 概要같은 것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카운슬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피상담자에게 하게 된다.

‘나는 당신이 마치 어떤 연극의 主要인물이라고 가정하고 ○○○의 성격묘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동정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그 사람에 관해서 쓰는 것처럼 쓰십시오. 3인칭으로 써야 되는 점을 확실하게 해두십시오. 예를 들면 ○○○는……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된 自己性格의 描寫에서 그 자신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構念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적용하는 많은 構念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발견된 피상담자의 私的 構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재단된 假想의 人物의 성격묘사 내지는 역할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가상적 인물은 피상담자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의 역할을 피상담자가 試演하는 것이 행동변화나 구념체제의 변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 그러한 양식으로 행동하는 가상의 사람이다.

이 때 假想의 人物을 모방하거나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탐색하고 실험하도록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카운슬러가 피상담자에게 그 固定役割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가를 검토한다. 물론 이때 역할의 수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피상담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를 결정한다. 그렇게 되면 피상담자에게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그 역할을 實演하도록 한다. 대개 固定役割의 實演은 二週 정도 지속된다. 그는 가상인물의 성격묘사를 하루에 적어도 세번이상 읽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며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 시기에 카운슬러와 피상담자는 자주 만나서 새롭게 발견하는 새로운 構念에 대해서 논의한다. 피상담자가 새롭게 창안한 私的 構念을 가족관계, 교우관계, 직장관계, 그리고 그 밖의 중요한 삶의 事象에 적용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役割을 계속해서 實演하도록 한다.

(44페이지에 계속)

# 音樂科 教育課程의 改善方向

崔 鐘 珍

(文敎部 編修局 音樂擔當)

## I. 序 論

音으로부터 出發한. 音樂이 音樂敎育으로, 音樂敎育은 또한 音樂科 敎育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그리고 敎育課程도 1955年의 1次 敎育課程의 時代로부터 出發하여 3次 敎育課程의 時代에 머무르고 있으며 머지 않아 4次 敎育課程의 時代로 접어들기 爲하여 準備이 始作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音樂科 敎育課程의 問題點과 改善點을 再考하여 본다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勿論 紙面의 제약 때문에 많은 問題點과 改善點을 提示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問題點과 改善點을 提示함으로 해서 여러 讀者들과 音樂敎育專攻者들과 함께 생각하여 봄으로 新敎育課程 研究作業과 執筆過程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思考를 展開하여 보려고 한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나 個人의 主觀的인 主張의 立場에서 조명하여 본 점이라는 것을 前提로 하고 싶다.

내 主張을 前提로 한다는 점은 이 글을 읽는 여러 讀者들에게 보다 많은 問題點과 改善點을 얻고자 하는 強力한 욕심이 뒤에 內在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하고 싶다.

展開하고자 하는 內容은

- ① 音樂科 敎育課程의 目標
- ② 音樂科 敎育課程의 領域
- ③ 音樂科 敎育課程의 內容

以上の 順으로 展開하면서 다음 항에서 問題點과 改善點을 同時에 나열하겠다.

## II. 本 論

### 1. 音樂科 敎育의 一般 目標 提示가 學校敎育의 一般目標과 긴밀한 關係를 맺고 있는가?

解放以後 지금에 이르기까지 1955年과 1963年 그리고 1973년에 걸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敎育은 꾸준히 發展하여 오늘에 이르는 高度 産業社會와 복지 國家를 지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敎育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룩할 수 없었다는 것은 自他가 모두 公言하는 바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音樂科에서 要求하고 기르려고 하는 人間像이 과연 學校敎育의 테두리 안에서 要求하고 있는 人間像과 一致하고 있는지를 新敎育課程을 改編하고 있는 現在 우리 스스로 反省하여 보고 나아가야 할 것 같다.

勿論 現在까지 實施한 敎育이 學校敎育의 테두리를 벗어 났었다는 것은 아니다.

敎育法과 學校敎育의 一般目標라는 커다란 망을 가지고 音樂科 敎育의 一般 目標를 다시 한번 걸러 보자는 意圖다.

敎育課程하면 보는 사람의 角度에 따라 그 解釋이 多樣할 수 있겠으나 一般的으로 “敎育課程은 곧 學生들이 學校의 指導下에 經驗하는 모든 學習活動의 總和를 意味하는 것이다”라고 볼 때 音樂科도 모든 學習活動의 總和 속에서 벗어난 例外的 敎科가 아니기 때문에 이 總和와 關聯이 잘 맺어졌느냐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敎育課程은 敎育法의 規定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音樂科의 敎育課程도 內容과 組織形式은 勿論 運用도 이 規制를 벗어 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當然한 것이다.

따라서 音樂科의 一般目標도 教育法 第2條 6項의 教育方針에 근거를 두고 初·中·高等學校의 目的과 目標에 一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審美的 情緒를 涵養하여 崇高한 藝術을 鑑賞·創作하고 自然의 美를 즐기며 餘裕의 時間을 有效히 使用하여 和諧明郎한 生活를 하게 한다”로 되어 있으며 學校教育의 一般目標로서는 自我實現, 國家發展 및 民主的 價値의 強調 등으로 細部的인 여러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럼 그 동안 音樂科에서 가르려고 하는 人間像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1955年度의 1次 教育課程 時代에는 一般目標를 1個의 項으로 提示하였다. “音樂의 體驗을 通하여 아름다운 情緒와 圓만한 人格을 갖춤으로써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르게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1963年度의 2次 教育課程 時代에는 1955年度와는 달리 더 細分하여 1個의 項으로 되었던 것을 4個의 項으로 分類하여 첫째 項을 初·中·高等學校를 망라하는 共通的인 것으로 普通 音樂教育을 뒷받침하는 基本的인 目標로 삼고 있으며, 둘째 項은 人間 表現의 欲求에 對하여, 셋째 項은 鑑賞에 對한 重要性和 그 範圍 및 內容을 밝히고 있으며, 네째 項에서는 音樂教育에 있어서 너무나 疎忽히 다루어졌던 音樂의 인 感覺의 培養에 對하여 強調하여 全體 音樂教育의 核心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73年度의 3次 教育課程 時代에도 亦是 2次 때와 同一하게 4個의 項으로 되어 있지만 그 構成이 약간 다르다. 첫째 項은 2次 때와 같이 初·中·高等學校를 망라한 音樂教育에서 希求하는 中극적인 人間像을 그려보고 있으며, 이러한 人間像을 이룩하기 爲하여 둘째 項에서는 音樂의 感覺과 技能의 發達을 도모하였고, 셋째 項에서는 創造的 表現能力과 鑑賞能力을 기르며, 네째 項에서는 音樂文化 遺産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는 能力 및 態度를 기른다”라고 되어 있다.

以上の 內容들이 學校教育의 一般目標 속에서 要素를 가지고와 音樂科 教育의 一般目標를 구성하였다고는 하지만 急變하는 世界情勢와 1日

生活圈에 들어있는 都·農·漁村間의 價値觀의 變化, 그리고 知的 好氣心과 탐구적 態度, 合理的 思考와 創意的으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여러 能力, 發展하는 社會에 적응하고 未來를 創造할 줄 아는 精神, 主體 意識과 民族的 긍지, 올바른 國家觀과 統一에 대비하는 자세 확립, 國民的 연대 의식을 公고히 하고 협동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態度, 民族 文化에 對한 理解를 깊게 하고 그 계승 發展에 이바지하게 하는 態度, 人間의 존엄성을 理解하고 서로의 人格을 존중하는 精神, 경애의 정신으로 예절바른 生活를 하도록 하는 能力, 이 外의 많은 目標들과의 關聯들이 핵심적으로 파고 들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걸 들며 時代 感覺에 뒤 떨어진 思考 概念을 內包하고 있다는 點이 問題點인 과 同時에 改善點이라고 볼 수 있겠다.

## 2. 各 領域間의 區分 提示가 現場教育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音樂은 “음악으로서 우리의 思想과 感情을 表現하는 時間的 藝術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音樂은 教科로서는 認定을 받고 있지만 學問으로서는 認定을 받고 있지는 못한다. 音樂은 認知的인 領域에서 그 構成 要素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表情的인 領域에서 그 構成 要素들을 가지고 와서 教科로서 構成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音樂科의 教科 目的은 教育法 第94條 6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人間生活를 明郎하고 和樂하게 하는 音樂에 對하여 基礎的인 理解와 技能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基礎는 人間이 지니고 있는 音樂의 性能인 表現과 鑑賞을 말하는 것이다. 表現에서 要求하는 理解와 技能 그리고 鑑賞에서 要求하는 理解와 技能을 기른다고 理解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教育課程에서는 現場教師들에게 보다 더 쉽게 理解되고 빨리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表現과 鑑賞에서 要求되는 要素들을 細分하여 提示하였던 것이다. 즉 表現 領域을 細分하여 歌唱, 器樂, 創作 그리고 鑑賞의 네 領域으로 나누어 提示하였었는데 提示된 領域들 間의 要素들이 너무 多樣하고 高次的이며 專門性을 띠었던 탓인지 教育

課程의 現場 適用에 가서는 이들이 有機的으로 關係를 맺은 것이 아니라 서로 分離된 學習의 形態로 獨立되게 運營되는 現象이 우세하게 되고 말았다. 教育課程의 內容 提示는 各 領域別로 나누어 具體的으로 계속성과 계열성을 고려하여 統合性을 띠우도록 提示하고 있으나 分離시켜 提示 하였기에 이들이 서로 괴리된 상태로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教育課程 指導上의 留意點 첫 項目에 “이 教育課程은 便宜上 歌唱, 器樂, 創作, 鑑賞 등의 네 領域으로 나누어 構成하였다. 그러나 實際 學習에 있어서는 이들을 有機的으로 關聯시켜 하나의 統合體로서 運營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으나 實際 學習現場에 가서는 統合體로 運營되지 못하고 領域別 學習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勿論 언제나 모든 學習이 꼭 統合的으로 運營을 하여야 한다는 主張은 아니다. 必要에 따라서는 어느 領域을 重點的으로 指導할 때는 分離된 學習으로 運營을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어느 한 分野를 強調하면 다른 세 分野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으로 要素들을 적게 提供하여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誤解가 왜 教育現場에서 빗어졌었는가하는 몇 가지 점을 유출하여 보려고 한다.

첫째는 教育課程의 理解를 縱的으로 하지 않고 橫的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하여 볼 수가 있겠다. 教育課程을 橫的으로 理解를 하면 계속성이나 계열성을 볼 수는 있고 좁은 要素들의 深化過程을 볼 수는 있겠으나 統合的이고 構造的이며 全體性이 결여되고 만다. 즉 山 위에 올라서서 마을을 구경하는 것과 마을에 내려와 골목을 지나면서 마을을 理解하고 알려고 하는 格과 같다고 하겠다.

둘째는 教師들 自身の 專功 科目과 비슷해서 그러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여 보기도 한다. 聲樂科 出身이면 歌唱中心의 音樂學習에 보다 더 깊은 관심과 興味를 갖질 것이며, 器樂科 出身은 보다 器樂的인 學習에 치중하고, 作曲科 出身이면 創作과 鑑賞에 치중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디 까지나 가정을 하여 보는 것이지만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本人의 경우도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과거에 같이 근무 하였던

동료 教師들을 客觀的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러한 점을 영령히 볼 수가 있었다. 聲樂科 出身의 教師와 同職場에서 근무할 때 보면 亦是 歌唱中心의 學習形態를 즐겨 運營하는 것을 發見할 수가 있었다. 이는 아무래도 教師 中心의 學習形態로 運營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實情이고 보면 불가피한 事實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教育課程의 領域을 區分하여 提示한 것이 一線 教師들에게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여 본다.

그 理由로는 1955年度의 教育課程에서는 國民學校 教育課程 領域을 技能練習, 鑑賞, 創作 및 音樂의 生活化로 區分하였고, 中·高等學校에서는 歌唱, 器樂演奏, 鑑賞, 音樂의 基礎理論, 創作 등으로 區分 하였다. 그리고 1963年度와 1973年度의 教育課程에서부터는 初·中·高等學校를 망라하여 歌唱·器樂·創作·鑑賞의 네 領域으로 區分하기 始作하였다. 이는 아마 表現 鑑賞의 順으로 나열한 것 같다. 勿論 이 네개의 區分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區分하여 內容을 진술하다 보니 自然히 共通의인 要素의 重複이 불가피하며 번거롭게만 되는 現象을 發見할 수가 있게 된다. 音樂의 基礎感覺에는 리듬·멜로디·하아모니인데 이의 音樂性을 기르기 爲하여 歌唱的인 리듬 訓練과 器樂의 리듬 訓練, 그리고 創作的인 리듬 訓練이 있을 수 있고 鑑賞面의 리듬 訓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 結局보면 리듬의 訓練에 있어서 취급하는 角度가 다들 뿐이지 核心의인 要素는 同一하지 않겠느냐다. 멜로디 部分 또한 그러하며 하아모니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領域區分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보는 方法도 있겠고 오히려 이를 더 細分하여 概念的인 要素를 提示하여 주는 方法도 있겠다. 어떠한 모양으로 外型的인 틀을 짚더라도 그 속에 들어 있는 音樂的인 要素는 統合的으로 運營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은 不變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教育課程의 改編 作業과 研究에 있어서 어떠한 外型的인 틀을 짜느냐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구분하여 왔던 點에 대한 問題點을 提示하여 보았다. 이러한 점도 改善할 必要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

면서 다음으로 思考를 펼쳐 보겠다.

### 3. 內容 진술이 現場學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教育課程의 發展에 따라 內容 진술의 方法도 많은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一線學校의 教師들에게는 精確하고 核心的인 學習의 要素가 分明하게 提示 되지 못하고 文章을 서술형으로 나열만 하였다는 不平과 不信, 그리고 提示된 內容의 수준이 너무 높다. 또는 要求하고 있는 指導要素가 너무 多樣하고 많다. 그리고 추상적이라는 충고를 많이 듣게 된다. 事實 이 內容은 學校 教育의 狀況 속에서 教師와 學生間에 서로 相互作用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基本要素인 것이다. 이러한 要素가 制限된 時間內 教育現場에서 活動하기에 너무 벅차다는 것은 어딘가에 모순된 面이 있지 않겠느냐다 핏으로써 우리 思想을 오묘하게 表現하는 音樂이기에 그 表現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것도 있겠다. 그러나 音樂科의 內容 選擇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內容의 진술도 音樂教育의 目的과 目標를 上位 概念으로 하여 內容+行動型으로 진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어디 까지나 學生들의 音樂의 成長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音樂的 成長에 必要한 基本 要素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며 그 要素를 理解케 함으로써 音樂의 價値를 識別하고, 演奏技術이 發展되며, 音에 依한 自己 表現力을 強化하고, 즐거운 가운데 音樂을 즐길 수 있는 內容으로 構成하여 주어야 한다. 學生들이 音樂과 接觸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것, 보다 고상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길러 지도록 方向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音樂教育의 機能面에서 제 구실을 다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機能은 우리의 知覺과 經驗의 範圍를 擴張하고 그 意味를 明晰化 및 強化시켜 주는 것이다.

音樂科는 認知的 要素가 강한 教科에 비하여 學問的인 研究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것은 솔직히 表現하고 싶다. 비록 이러한 現象은 우리나라에서 만의 實情은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아쉬움을 금치 못할 때도 많이 있다. 音樂家는 많이 있지만 音樂教育家는 거의 없는 상태다. 音

樂科 教育에 關한 研究나 開拓은 音樂科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分野이지 우리들의 分野 또한 나의 分野와 다르다는 概念을 가지고 있는 實情을 볼 때 아쉬운 마음이 앞설 때가 많다. 많은 研究者들 그리고 音樂科 教育의 專功者들이 나와 音樂科 教育에서 內容의 組織은 이렇게 하고 表現과 指示方式은 이렇게 한다라고 提示하여 주는 學者들이 나왔으면 한다.

內容의 진술은 現場의 學習에서는 題材의 目標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學習內容임과 同時에 評價의 基準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술의 形態로 반드시 어떠한 行動의 變化를 計劃적으로 바라고 있는가라는 確實한 단면이 보여야 하겠다. 그리고 多樣한 活動을 通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音樂性이 풍부한 人間으로 成長될 수 있도록 要素를 과감하게 주어야 하겠다. 外部에서 주는 자극은 強한데 學校 教育에서 주는 자극은 소극적이라면은 學生들은 갈등 現象을 빚게 될 것이다. 國民學校 1學年 學生들에게 리듬 提示에서 2分音標나 4分音標로 이룩된 것만을 強調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國民學校에 入學하기 前에 이미 Radio나 T.V를 通하여 어려운 리듬 반응도 感受할 수 있도록 訓練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教科書에서 提示한 樂曲은 勿論 보다 수준 높은 藝術 歌曲도 유창하게 부를 수 있는 表現能力이 向上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內容의 수준도 상당히 많이 向上되었기에 구태의연한 진술을 탈피하고 보다 學生들의 發達段階에 알맞는 內容으로 진술하여 주어야 하겠다는 데 問題點을 提起하면서 또한 改善點으로 이야기 하고 싶다.

## Ⅲ. 結 論

以上の 세 가지 側面에서 音樂科 教育課程의 問題點과 改善點을 찾아 보았다. 어디 까지나 主人格인 目標에 對해서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집에 해당하는 外型의인 틀에 對해서 생각하였으며 그 속에 들어갈 內容에 對해서도 생각하여 보았다.

끝으로 學生들의 現在의 要求와 心理狀態는

어떠하며 音樂科의 目標나 內容 그리고 學習 形態를 어떠한 곳에서 찾아야 하고 이에 따라서 音樂科 教育課程이 나아가야 할 方向과 改善點을 찾고자 한다.

學生들은 봄이 되면은 한 겨울의 짓눌림에서 기지개를 펴고 즐거운 봄을 노래하고 싶어 하고, 진달래, 개나리, 목련화 등의 꽃을 노래 하고 싶어 하며, 여름이 되면 山과 들로 냇가로 또한 바다로 뛰여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려 힘차게 노닐면서 출렁이는 바닷물과 흰 구름 뭉게 뭉게 피어남을 노래하고 싶어 하며, 가을이면 자꾸 자꾸 파랗게 나로부터 멀리 멀리 멀어져만 가는 가을 하늘과 금물결 출렁이는 들판 속과 무발 배추밭 이랑 사이로 뛰여 다니며 고추잡 자리를 뒤 쫓으면서 즐거운 마음들을 노래하고 싶어 하며, 겨울이면 호호 불며 즐겁게 나누어 먹던 군고구마며 평평 함박 눈이 시퍼런 하늘

위에서 힘차게 쏟아 질 때 自己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환호성을 音樂으로 表現하듯은 간절한 마음! 이와 같은 學生들의 心理狀態와 要求에서 教師들은 音樂科 教育의 目標을 어떠한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그 目標에 알맞도록 內容을 選定하여 이를 學習指導에 效果를 올리기 爲하여 어떻게 組織하고 構成하여 密度높은 學習指導를 展開할 것인가를 연구하며, 다음으로 바람직한 學習效果를 올렸는지 못올렸는지 評價도 하여 季節에 따라, 學生들의 발달한 行動수준에 따라, 音樂的인 要素를 잘 加味하여 音樂科에서 要求하고 기대하던 人間像에 接近할 수 있도록 教育課程 作成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學生들의 要求와 發達 정도에 알맞지 않는 要素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研究하여 音樂科 教育課程이 바람직하게 構成될 수 있도록 努力하고 改善되었으면 좋겠다. ○

(65페이지에서 계속)

을 구체적으로 樹立할 것이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도중이나 總括評價에서 어떠한 내용의 것을 측정하여야 하며 이 樂曲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가 하는 점을 교사는 自己의 教育철학과 신념에 의하여 方向設定을 分明히 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교사의 반주에 따라 모방하는, 즉 교사의 範唱이나 範奏에 따라 학습을 시작하여 끝을 맺는 학습을 展開하여서는 안 된다.

분명한 목표에 의하여 “고향 생각” 노래의 내용을 定立한 다음에 교사와 학생들 간에 어떠한 學習經驗을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世界

로 어떻게 案內할 것인가 하는 경험의 종류를 選別하여 마지막에 評價를 할 때는 처음에 自己가 수립하였던 目標와 一致되게 수업이 진행되었는가를 판단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갈 것이며 실패하였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실패하였는가를 빨리 찾아 補完하고 強化시켜서 학습에 缺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循環的인 과정이 教育현장에서 부단히 계속되고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상에서 언급한 內容들로 改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 音樂科 教育의 改善方向

鄭 世 文

(本院 研究教授)

## 音樂科 教育의 方向

여러 藝術 가운데서도 音樂은 人間의 가장 高潮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次元 높은 藝術이며, 人間의 日常生活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幅 넓은 藝術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音樂이 音樂만으로 存在할 때는 아무런 빛도 나타낼 수 없다. 즉 音樂은 演奏者의 人格과 思想 및 感性 등에 의하여 바람직하게 再創造되었을 때 비로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한 教科로서 學校 教育課程에 編成되어 人格形成에 기여하고 人間의 참된 生活에 도움을 주었을 때 비로서 그 價値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教育思潮는 科學文明의 急進的인 發達과 經濟力의 伸張 등에 수반하여 人間의 能力開發, 그 중에서도 특히 創造力의 開發 문제가 社會的인 요구로 教育界에 깊숙히 반영되고 있다.

創造는 音樂藝術의 本質이며, 그것이 全部라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므로 音樂教育의 궁극적인 목적은 創造的인 人間의 育成이라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音樂教育은 이 문제를 中心課題로 하는 本質的인 教育을 實踐에 옮김으로써 유능한 人格形成에 기여하고 音樂의 藝術의 價値 및 教育的 價値를 保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모든 教科의 教育은 人格形成을 위한 意圖的인 努力의 一環이다라는 見解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할 教育者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時間 한 時間의 音樂授業이 과연 創造的인 人格形成에 直結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들이 항상 實踐하고 있는 音樂教育의 모든 場이 創造的인 人格形成을 中心課題로 삼고 있느냐 하는 點을 反省해 볼 必要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每 時間마다의 音樂授業에서 直接的으로 期待할 수 있는 것은 創造性 以前의 創造的인 能力이라 할 수 있는데, 그 理由는 創造的인 能力이 바탕이 되어서 創造性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音樂教育을 통하여 個性의 이고, 主體的이며, 創造的인 能力을 伸張시켰다면 이는 곧 創造性으로 發展하게 될 것이 틀림없고, 나아가서는 期待하는 人格形成에 功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創造的인 能力을 媒介로 하지 않고 直接 創造性을 期待하는 音樂教育이란 있을 수 없으며, 人間性을 強調하는 나머지 音樂科의 本質的인 問題, 즉 他教科와는 다른 獨自的인 特性을 疎忽히 하는 音樂教育은 더욱 있을 수 없다.

音樂教育의 本質은, 音樂性을 開發하는 그 過程에서 찾아야 하며, 音樂性은 音樂的인 諸能力에 의하여 마련할 수 있는 人間의 藝術的인 特性이다. 그러므로 音樂性은 音에 의한 表現과 受容의 豊富한 體驗으로써 音樂을 把握 理解하게 하고, 그 美에 同化할 수 있게 하는, 즉 音樂의 諸能力을 向上 發展시키는 過程과 그 結果에서 찾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音樂性은 先天的인 것이 아니며, 또 遺傳的인 것도 아니다. 努力으로써 獲得한 音樂의 諸能力和 音樂의 諸能力의 可能性을 합한 것이 곧 音樂性이다. 그러므로, 音樂性을 開發하고자 하는 音樂教育은 音樂의 基本能力, 즉 感受性으로서의 音樂의 感覺을 基盤으로 하고, 이에 技能으로서의 表現(鑑賞)能力和 이를 뒷받침하는 知的 理解力 등

을 포함한 音樂의 諸能力을 均衡있게 發展시킴으로써 그 뜻을 實現할 수 있다.

音樂科의 基本能力은 音樂의인 感受性에 의하여 마련되며, 音樂的 感受性은 音樂의인 感覺에 의하여 마련되는 人間의 特性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音樂의인 感覺은, 樂曲 構成의 諸要素에 대한 感知力과, 實行力, 즉, 各要素의 役割과 이들의 相互作用을 體得實感함으로써 音樂의 言語와 意味를 把握하는 基本能力의 基底를 이루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音樂的 感覺의 確立과 함께 마련되는 感受性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創造的인 演奏와 創造的인 鑑賞 및 스스로 지어 보는 創作活動의 基盤을 形成하게 된다.

그러나 創造性을 開發하기 위한 音樂이나 音樂教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音樂教育의 全體計劃과 한 時間, 한 時間의 授業에서 創造的인 人格을 形成하고자 하는 教師의 基本姿勢가 問題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現代教育理論을 理解하고 이를 實踐에 옮김으로써 創造的인 人間을 育成하고자 하는 音樂教師의 態度와 誠意가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이다.

## 教材의 精選

知識의 爆發이라는 말에서, 知識을 樂曲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하여 본다면, 國內外的인 樂曲의 數는 그야말로 爆發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나라 作曲家들이 지은 童謠와 歌曲 및 器樂曲 등만 하여도 엄청난 數字이며, 世界 여러 나라의 樂曲을 이에 합친다면 天文學的인 數字일 것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各民族의 傳統音樂까지 包含시키면 그 數를 爆發的이라는 말 以外에는 表現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많은 藝術作品 中에서 무엇을 教材로 擇해야 할 것인가 하는 指導內容의 精選問題가 音樂教育의 한 課題로 臺頭되지 않을 수 없다. 周知의 事實이지만, 브루너는 그의 教授理論에서 構造的인 接近方法을 提唱하였으며, 이로써 現實을 打開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構造的 接近이란 斷片的인 知識을 主入 暗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本質的인 原理가 相互關聯되어 意味 있는 것으로 把握되어야 함

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學問의 根幹이 되는 概念을 軸出하여 이들의 關係를 把握하게 함으로써 變化되는 새로운 知識에 對處할 수 있고 또 새로운 知識을 創造할 수 있는 底力을 構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教育의 內容은, 雜多한 知識의 網羅가 아니라, 精選된 知識體系를 尊重하며, 量的인 것으로부터 質的인 것으로 轉換하여야 한다는 것이 現代教育의 생각이다. 따라서 音樂科도 이러한 思潮를 誠意있게 받아들여서 音樂教育의 現代化를 꾀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雜多한 樂曲의 羅列에 滿足하였던 過去の 因習을 버리고 音樂藝術의 本質的인 體系를 尊重하며, 精選된 樂曲을 構造的으로 把握하게 함으로써 音樂의 言語와 意味를 깨닫게 하는 音樂教育의 새로운 길을 摸索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附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周圍에는 數 많은 樂曲들이 있고, 또 계속 作曲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音樂科 教育目標에 부합된 教材로서의 作品 以前에 純粹한 藝術 作品으로서 生産되고 있다는 點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筆者는 우리나라의 作曲家들과 現職 音樂教師들에게 各級 學校 學年의 水準에 알맞는 教育用 樂曲도 아울러 生産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現代의 感覺에 넘쳐 흐르고 祖上의 일을 되새길 수 있는 同時에 꿈과 理想을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童謠와 歌曲 및 器樂曲 등을 意圖적으로 作曲하여 教育의 場에 提供하는 일은 後世教育을 염려하는 우리나라의 作曲家와 音樂教師들이 수행하여야 할 重大한 任務中的 하나라고 생각한다.

## 教師의 問題

審美的이고 創造的인 人格을 形成할 수 있는 音樂教育은 有能한 教師의 計劃的인 養成과 教師 各自의 自發的인 研究 및 努力에 期待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教師의 養成과 教師의 能力에 關하여 간단히 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도 外形的으로는 音樂教育科가 있다. 그러나 音樂科 教師를 기르기 위한 純粹한 教育課程에 의하여 教育하는 學校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現在 中·高等學校에 근무하는 音樂教師들은 모두가 作曲家나 演奏家가 되기 위해서 工夫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音樂大學에서 作曲家나 演奏家가 되기 위하여 專門的으로 工夫한 그 方法과 初·中·高等學校의 音樂科 教育에서 活用되는 方法에는 커다란 差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音樂大學을 卒業한 많은 젊은 教師들은 그들이 工夫한 專門的인 方法을 初·中·高等學校에서 그대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聲樂을 專攻한 教師는 發聲練習에 많은 時間을 허비하고, 作曲을 專攻한 教師는 樂典 지도에 汲汲하며, 피아노를 專攻한 教師는 피아노 伴奏에 맞추어 노래나 외우게 하는 등, 初·中·高等學校에서 있어야 할 包括的이며 統合的인 音樂教育, 즉 人間教育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音樂教育 本來의 任務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文字 그대로의 音樂教師 養成機關이 設立되고 제대로 實踐되어야 하겠다는 點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包括的이고 統合的인 音樂教育을 實踐할 수 있는 教師는 作曲家나 演奏家가 아닌, 즉 教育理論으로 무장한 音樂專門家라야만 한다.

音樂教師라 해서 教育의 原理나 現代教育의 思潮 등을 外面할 수는 없다. 적어도 브루너나 피아제 등, 現代 教育學者들이 제창하는 學習指導理論이 어떠한 것인지, 또는 우리나라 教育學者들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國內外的 音樂教育學者들이 強調하는 點은 무엇인지 등, 教育理論에 대하여 理解하고 그 土臺 위에서 音樂을 專攻하는 文字 그대로의 音樂教師가 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音樂教師는 自身の 專攻에만 汲汲할 것이 아니라 幅 넓은 音樂的 技能과 能力을 지닐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一線 學校의 例를 들어 보면 브라스밴드가 있는 學校, 合唱團이 有名한 學校, 全校生에게 時間을 指導하고 있는 學校, 創作教育이 活潑한 學校 등, 學校의 特色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나는 聲樂을 專攻했기 때문에 브라스밴드는 指導할 수 없다라든지, 나는 器樂을 專攻했기 때문에 作曲 指導는 不可能하다는 등의 理由가 成立될 수 없는 곳이 初·中·高等學校의 學習現場이다.

그러므로 音樂教師는 自己의 本專攻이 무엇이든 간에 그 밖의 音樂教師로서 지녀야 할 必要한 여러 가지 能力을 包括的으로 갖출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結 言

學校 教育課程에 다른 여러 教科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音樂은, 專門的인 音樂이 아니라, 一般教育으로서의 音樂 곧 音樂 教科目으로서의 性格과 內容 및 方法 등이 있어야 한다.

즉, 教育學, 心理學, 教授·學習에 관한 理論 등의 教育에 관한 學問을 基盤으로 하여 音樂의 문제를 생각하는 音樂教育에 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現代社會가 期待하는 바람직한 音樂教育을 實踐에 옮기기 위하여는 現代 教育思潮를 基盤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音樂教育을 現代化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리라 믿는다.

美國을 비롯한 先進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前부터 이러한 研究가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音樂大學이 音樂教育學科를 獨立 設置하여 많은 音樂教育者를 배출하고 있으며, 音樂教育의 學問的 研究와 그 實踐에 깊은 關心을 나타내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나라도 이러한 面에 보다 더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이 問題의 해결은 音樂教育者인 우리들의 努力과 研究 및 實踐에 期待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 音樂科 評價에 대한 改善點

黃 炳 勳

(本院 研究員)

## I. 序 論

評價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期待되는 能力을 向上시켜주기 위한 事前 資料의 수집 과정과, 기대되는 能力이 어느 정도 向上되었는가 하는 最終 단계의 點檢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評價라 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紙面測定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教育에서 總網羅된 測定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音樂科 教育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은 항상 실시하고자 하는 평가의 대상이 不分明한 것 같아 본고에서는 音樂科 教育에서 찾고 있는 對象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點을 찾아 보려고 한다.

## II. 本 論

音樂科 教育에서의 評價는 目標에 대한 평가, 學習經驗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습 이전의 出發點評價와 학습도중에 실시하는 形成評價, 그리고 끝으로 終着點을 점검하는 總合的 評價가 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音樂科 教育 本然의 位置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音樂科에서는 어디까지나 音을 素材로 하여 表現하기 때문에 表現하기 위해서는 技能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評價의 對象은 自然히 技能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 技能의 領域으로는

첫째 : 학습된 歌曲을 個性에 따라 創造的으로 表現할 수 있는 能力

둘째 : 樂曲의 특징에 알맞는 器樂的 演奏能力  
셋째 : 自己의 느낌을 가락으로 表現할 수 있는 能力

넷째 : 讀譜力과 聽音力 및 記譜의 能力  
다섯째 : 音樂에 맞추어 身體的으로 表現할 수 있는 能力

이상의 점이 音樂과 教育의 重要한 目標임과 동시에 音樂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 具體的으로 밝혀본다면 다음과 같다.

### 가. 技能的 表現能力

#### 1) 歌唱

- (가) 바른 發聲으로 노래부를 수 있는 능력
- (나) 聲樂曲의 특징에 따라 익숙하게 表現할 수 있는 능력
- (다) 齊唱, 돌림노래, 合唱 등의 表現 기능

#### 2) 器樂

- (가) 각 악기를 바른 奏法으로 演奏할 수 있는 能力
- (나) 器樂曲의 특징에 따라 익숙하게 表現할 수 있는 能力
- (다) 獨奏, 齊奏, 合奏, 重奏 등의 表現 기능

#### 3) 創作

- (가) 가락이나 和聲, 리듬 등을 듣고 가리거나 적을 수 있는 能力
- (나) 가락을 지어 적을 수 있는 능력
- (다) 악곡의 形式과 構成에 대한 이해와 表現

#### 4) 讀譜力

- (가) 악보를 보고 제 힘으로 연주(歌唱, 器樂)할 수 있는 能力
- (나) 리듬, 가락, 화성 등을 듣고 가리거나 적을 수 있는 能力



### 5) 身體的 表現 能力

- (가) 음악에서 받은 느낌을 身體的인 動作으로 혼자서 표현할 수 있는 能力
- (나) 음악에서 받은 느낌을 身體的인 動作으로 協同하여 표현할 수 있는 能力

### 나. 知的 理解

#### (가) 樂典知識

다섯줄, 음표, 쉼표, 박자표, 세로줄, 음자리표 등

(나) 음악의 요소와 구성에 관한 지식, 리듬, 음정, 화성, 음계, 형식 등

#### (다) 演奏形態에 관한 知識

聲樂과 기악의 여러 가지 연주 형태에 관한 것.

#### (라) 음악의 종류에 관한 知識

聲樂曲 및 器樂曲의 여러가지 種類

#### (마) 其他

樂器에 대하여, 音樂家들에 대하여

### 다. 感性的 把握

#### (가) 創造的 表現能力

- ① 노래를 個性에 따라 創造的으로 부를 수 있는 能力
- ② 樂器를 개성에 따라 創造的으로 연주할 수 있는 能力

#### (나) 即興的 表現能力

- ① 즉흥적으로 단편적인 가락을 노래나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② 즉흥적으로 짜임새있는 가락을 노래나 악기로 表現할 수 있는 능력

#### (다) 音樂的 想像力

- ① 음악의 특징을 느낄 수 있고 藝術的인 想像力을 作用시킬 수 있는 능력
- ② 感覺과 理解의 媒介의 役割을 하는 音樂的인 記憶力

### 라. 학생의 태도와 습관

#### (가) 협조적 태도

여러 學習活動에 參與하여 협조하는 태도

#### (나) 창조적 태도

창조적으로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 (다) 탐구적 태도

주의깊게 학습하려는 태도

#### (라) 비판적 태도

積極的으로 批判하고 反省하는 태도

#### (마) 持久的 態度

학습을 끈기있게 계속하는 태도

#### (바) 흥미적 태도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태도

이상과 같이 기능·지식·감성적·태도 등으로 음악과 평가의 대상을 선택하여 보았다. 그러나 一線 敎育現場에서는 知的인 면의 理論的이며, 지식에 置重된 出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적 표현능력에 알맞는 測定의 道具는 觀察測定과 紙面測定이 가능하며, 知的 이해면의 측정 도구로서 지면측정이 알맞으며, 感性的의 파악을 측정하는 데는 실기검사가기 때문에 관찰법을 활용하면서 계속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여도 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학생의 태도 역시 체크리스트법과 관찰법을 활용하여야 하겠다.

음악과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技能 중심교육이며 人間의 心層 表現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도 무척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음악과에서 요구하지 않는 他 敎科 領域의 기능을 측정하기도 하는 誤謬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것의 평가에서 주의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고 開拓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Ⅲ. 結 論

音樂科의 평가는 지면측정이 거의 不可能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이면서도 이 면의 出題를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中學校 1학년 학생들에게 李 殷相 作詞 洪 蘭波 作曲인 “고향 생각”의 노래를 지도하려고 할 때 교사는 먼저 1학년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연구하였을 것이며 출발점 행동으로서 먼저 이 노래를 半知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이며 또한 지식면에서는 調性, 拍子感, 리듬感, 음표에 관한 것, 그리고 임시표에 관한 知識 등을 측정하여 본 다음에 이 曲에 대한 지도계획

(60페이지에 계속)

# 課外工夫 그 後에 있어야 할 일

鄭 元 植

(서울大學校 師大學長)

얼마 전에 어떤 가정 주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다. 課外工夫가 없어진 후 이제는 부모로서 할일이 없어진 것 같아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마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연인즉 課外工夫가 있을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좋은 課外教師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바빠 써야만이 되었고, 그런 일에서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을 맛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아무일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무척 외스럼게도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 對話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課外工夫를 위하여 쏟았던 부모의 熱意를 다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만이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은 어린이의 養育에서부터 10代の 지도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포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그것은 學校工夫의 보완에서부터 삶의 지표를 주기 위한 정신 교육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課外工夫 이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自명한 것이다.

課外工夫에 쏟았던 부모의 情熱과 헌신적인 努力을 다른 方向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엄청난 재정 부담도 감수했던 희생적 태도와 자녀의 과외공부를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었던 무조건적인 열의는 대단한 것이며, 이 열의가 제대로 분출될 수 있도록 바른 通路를 마련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힘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정 주부와 전화로 대화가 있을 후 자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허탈해 하는 마음 속에 어떤 의미있는 일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의욕과 열의를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

치니 결론은 한 가지로 좁혀진다. 그것은 家庭教育의 意味를 되찾는 일이다. 오랜 동안 참다운 가정 교육의 뜻과 그 기능은 망각되어 온 것 같다. 학교 교육이 불가피하게 知育偏重이 됨에 따라 가정의 교육도 어느덧 그러한 知育을 相補하는 기능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성적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입시에서의 점수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확신되고 있는 풍토에서 가정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점수를 얻는 일에 열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에 가정 교육도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가정 교육은 제대로의 의미와 기능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課外工夫를 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필요도 없이졌으며 시험 점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것보다도 成熟한 인격을 형성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가정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성숙한 인격의 형성을 포함하는 인간 교육의 모든 기능을 학교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家庭教育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며, 자연 부모의 역할도 課外工夫를 시키는 일보다 커지고, 또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 교육의 바른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家庭教育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보다 구체적인 어떤 方向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課外工夫에 쏟았던 家庭의 熱意를 진정한 人間教育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학교 교육과 상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정이 그 교육적인 기능에 의해서 성취해야 할 몇 가지의 志向點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은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일컬어 課外工夫 그 후에 있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먼저 배움에 대한 能動的인 자세를 확립하는 일이다. 대개의 경우, 아니 거의 예외없이 課外工夫는 學習者의 受動的인 학습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동안 이런 형태의 배움만을 강요당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자발적이며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발견하기 어렵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課外工夫를 탈피하는 것은 매달 일정액의 課外費 支出을 중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 주일에 수 시간씩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수업반면 일을 그만 두는 것만이 課外工夫의 탈피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課外工夫를 탈피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동적 학습 자세에서 能動的인 학습 자세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본시 어린이들은 未知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왕성한 의욕을 지니고 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요, 또 課外공부를 시키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未知에 도전하고 탐구함으로써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에서 자기 나름의 희열과 만족을 경험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배움의 자세가 있기에 빠른 시일 안에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자발적인 배움의 의욕과 태도가 強要된 학습에 의해서 변질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제자리에 옮기는 일, 그것은 분명 課外工夫 그 후에 있어야 할 첫번째의 일이 아닐 수 없다.

課外工夫 그 후에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부모와 자녀간의 인격적인 접촉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課外工夫는 확실히 어린이와 靑少年의 성장하기 위한 時間을 너무 많이 뺏아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연 부모 자녀간의 접촉이 드물게 되기 마련이다. 어쩌다 부모와 자녀가 마주 앉게 되더라도 그것은 인격적인 접촉이라기 보다는 관습적인 접촉에 머무르기 일쑤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는 인격 형성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도 사무적인 일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모와의 접촉에 의해서 인생을 논하고 사회를 언급하면서 부모의 인격과 가치관에 接하고 영향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靑少

年에게 중요한 경험이 된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師弟와 같은 관계에서 두 인격이 접촉하고 대화하는 과정의 교육적 意義를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부모 자녀간의 접촉이 단순한 관례적인 접촉에 머무르지 않고 인격적인 접촉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가 자녀의 인격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社會化 過程을 이른바 模型學習의 과정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모가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하다. 課外工夫가 성행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은 家庭 밖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모형학습의 과정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어야 할 과제를 각 가정 이 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있어야 할 일을 생각해 본다. 그것은 이른바 精神教育에 힘을 기울이는 일이다. 課外工夫는 예외없이 知的 학습과 技能習得에만 치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면 教育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결손은 精神教育面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도 知育中心의 교육에서 크게 탈피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신 교육에 관한 限, 그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의 영역이다. 적어도 학교, 가정, 사회가 일치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힘써야만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다.

精神教育이라는 用語는 비교적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價値觀을 습득하고 개인 나름의 統整된 人生觀을 확립하는 것이다. 오늘의 불쾌한 環境條件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逆境을 낙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意志力도 精神教育에 의하여 육성되어야 할 특성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감정의 자기 통제와 昇化된 표현, 세련된 情感을 가능케하는 情緒의 교육도 정신 교육의 주요 부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마더로 그것은 情意의 教育이다. 바로 이와 같은 情意의 教育에 대하여 家庭이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있다.

진정으로 課外工夫를 탈피하는 길은 단순히 과외라는 형태의 학습을 중단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어야 할 교육의 새로운 志向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

## 원 내 동 정

### 원장 이·취임식

- 이임 원장 이 영덕 박사는 본원 창립 이래 8년여를 재직한 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대학교 교수직으로 복귀하였으나 자문 교수로 있으면서 본원 연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맡기로 하였다.
- 신임 원장 홍 응선 박사는 연세대학교 문과 대학장으로 재직 중 본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 인사이동

- 김 충희 박사는 교육방송 부장직을 80년 10월 51일자로 사임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 강의를 맡게 되었으며 후임으로 김 형립 박사가 임명되었다.
- 윤 정일 박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80. 10. 15일자)
- 구 학봉 교육방송 편성심의실장은 80년 10월 16일자로 사직하고 청와대 문화문교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후임으로는 서울산업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던 김 학천 선생이 80년 10월 1일자로 발령되었다.
- 락 병선 박사는 미국 MARQUETTE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본원 교과도서 연구실로 발령되었다(80. 9. 18일자).

### 세 미 나

- 9월 19일 영동 유스호스텔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제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원 강당에서 연인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방송의 방향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탐색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
-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학교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방향 탐색을

주제로 학제, 연구기관, 문교부 관계관, 본원 연구진 등 연인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본원 주최로 그랜드세미나가 있었다.

### 출 입 국

- 공 은배 연구원은 유네스코의 초청으로 교육계획 및 경영훈련차 태국으로 출국하였다(80. 10. 13~11. 15)
- 이 정근 박사와 김 진구 연구원은 80년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방글라데쉬에서 개최되는 아세아 교육공학 세미나에 참석차 출국하였다.

### 내 방

- 80년 10월 10일부터~80년 11월 10일까지 파푸니아 뉴기니아국의 Mr. Kiff Umezo(문교부 직원)는 문교정책에 관하여 본원에서 연수 중이다.
- 80년 10월 16일 태국의 Dr. B.S. Soenee(탐마사트 대학교수)가 본원을 예방하였다.

隔月刊      교    육    개    발  
(제 2 권 4 호 · 통권 8 호)

<비매품>      1980年 10月 25日 인쇄  
                  1980年 10月 31日 발행

發行人      洪      雄      善  
財 團 法 人      韓 國 教 育 開 發 院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7-5121, 57-5021

印刷處      정 화 인 쇄 문 화 사  
1975年 8月 20日      등록 바-574

\* 本誌의 內容은 本院의 公式的인 意思가 아님.

